

면지

매헌 윤봉길의사 탄신 110주년 기념 국내학술회의

매헌 윤봉길의사의 문학사상과 독립정신

● 일시 | 2018. 11. 23.(금) 10:30 ~ 16:00

● 장소 | 매헌윤봉길의사기념관 강당(3층)

주최  매헌윤봉길의사기념관

후원  국가보훈처

매헌 윤봉길의사 탄신 110주년 기념 국내학술회의

매헌 윤봉길의사의 문학사상과 독립정신

▶ 프로그램

시 간	내 용
10:00~10:30	등 록
10:30~10:50	국민의례 개회사 : 황길수 (매헌윤봉길의사기념사업회 회장) 축 사 : 오진영 (서울지방보훈청 청장)
10:50~11:20	기조강연 : 헌사(獻詞) 독립투혼의 절정, 그 활화산 - 매헌 윤봉길 의사의 실천사상과 대개선(大凱旋) 발표 : 이근배 (시인, 대한민국예술원 문학분과 회장)
11:20~11:50	제 1주제 : 매헌 윤봉길의 修學과정과 사상적 배경 발표 : 김상기 (매헌연구원장, 충남대학교 국사학과 교수)
11:50~12:20	제 2주제 : 윤봉길 의사 자작시의 민족사상 발표 : 허경진 (연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12:20~13:30	오 찬
13:30~14:00	제 3주제 : 윤봉길 의사의 산문에 대하여 발표 : 심경호 (고려대학교 한문학과 교수)
14:00~14:30	제 4주제 : 현대시인이 바라본 윤봉길 시의 성격 발표 : 함돈균 (시민행성 대표)
14:30~14:40	휴 식
14:40~15:40	종합토론 좌장 : 한시준 (단국대학교 사학과 교수) 제1주제 토론 : 김용달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소장) 제2주제 토론 : 구지현 (선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제3주제 토론 : 이현일 (성균관대학교 한문교육과 교수) 제4주제 토론 : 이형권 (충남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15:40~15:45	폐 회

개 회 사

매한 윤봉길 의사님 탄신 110주년을 맞아 ‘윤봉길의사의 문학사상과 독립정신’이라는 주제로 학술회의를 갖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초겨울에 진입하여 날씨도 차갑고 바쁜신 일정에도 왕림하여 주신 존경하는 내외귀빈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학술회의를 후원해주신 국가보훈처 피우진 처장님께 감사드립니다. 또 오늘 분야별 발표와 토론, 좌장을 맡아주시는 고명하신 시인과 교수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윤의사는 25세의 짧은 생애를 사시고 고귀한 생명을 바쳐 순국하심으로서 조국광복의 초석이 되신 민족의 영웅이며 은인이십니다.

윤의사를 추모하고 배우고 기리기 위하여 우리는 윤의사 생애와 인격 전체를 깊이 알아야하며 오늘 학술회의의 목적이기도 합니다.

‘여산(廬山)의 진면목을 알기 어렵다’는 말이 있듯이 윤의사는 그 인물의 깊이와 웅대함에 비추어 너무 짧은 생을 사셨기에 그 생애 전체의 참모습을 알기가 쉽지 않을 뿐 아니라 그 동안 상해 의거에 대해서는 많은 학술회의, 논문, 저서가 있었으나 윤의사의 작품과 내면의 의식세계를 탐구하는 노력은 미진하였습니다.

윤의사는 시·일기·서간문 등 적지 않은 문학적·사상적 자료를 남기셨습니다. 윤의사는 초등학교 2학년때 스스로 일제 식민교육을 거부하고 자퇴한 후 오치서숙에서 한학에 정진하며 한시에 뛰어났고 300여편의 한시를 엮어 5개의 시집을 남기셨습니다. 또 깊은 사유와 고뇌를 토해내는 여러 가지 시와 글들을 남기셨습니다.

시로서는 야학과 계몽운동에 헌신하면서 일제폭압정치의 높은 벽을 실감하고 중국 망명길에 오르며 남기신 장부출가생불환(丈夫出家生不還)을 비롯하여 이향시, 인간의 자유와 평등, 상해 의거 당시의 유족시 등이 있고, 일기에도 인간에 대한 깊은 동정과 변민을 기술하였으며, 또 자필이력서에 의하면 그 당시 겨레의 고통을 앓아서 보고만



있을 수 없어 사랑하는 부모, 처자식을 버리고 쓰러린 가슴을 부여잡고 압록강을 건넜다고 기술하였고, 중국에서 어머니께 보낸 편지에서 ‘사람은 왜 사느냐’라며 방바닥을 치며 외쳐 보았고 천사만려 끝에 부모에 대한 사랑, 처자에 대한 사랑보다도 더 ‘강의한 사랑’의 길을 가기로 각오하였음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와같이 그 당시 윤의사의 의식세계의 정점은 ‘사랑’이었습니다. 모든 종교경전의 정점도 사랑·자비입니다. 윤의사는 이미 생과사를 초월한 성인의 경지였습니다.

상해의거후 미국 한인 신문의 편집인이며 시인이고 독립운동가였던 ‘홍언’은 윤의사는 순국선열 중에서 강철심장이면서도 지극한 정을 가졌고 측은지심이 깊은 인물로 자비와 용기를 겸하였기에 진실로 천고의 1인으로 대위업을 이룰 수 있었으며 세계적으로도 이러한 장렬한 인물은 드물다고 평가하였습니다. 광복 후 동아일보 사설에서도 윤의사를 성도(聖徒), 보살(菩薩), 지인(至人)으로 칭하였습니다

윤의사는 민족의 영광이며 명예입니다. 윤의사가 남긴 글에서는 인간, 자연, 생명, 조국에 대한 사랑이 도도히 흐르고 있습니다.

오늘 학술회의를 통해서 윤의사가 생의 굽이굽이에서 무엇을 열망하고 고뇌하고 애쓰셨는지를 탐구함으로써 윤의사를 지난 역사의 고체화된 이미지가 아니라 항상 우리 겨레와 함께 숨쉬고 맥박하며 살아가는 스승이요, 선각자로서 더 가까워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윤의사의 숭고한 정신은 우리가 미래에 마주하게 될 어떠한 도전이라도 헤치고 살아갈 원동력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서 항상 강령하시기를 기원합니다.

2018. 11. 23.

매한윤봉길의사기념사업회
회 장 황 길 수

축 사

친애하는 내외 귀빈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매헌 윤봉길 의사님의 탄신 110주년을 기념하여 개최되는 학술 회의에서 축하의 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대단히 뜻 깊게 생각합니다.

우선 110년 전 이 땅에 나시어 조국독립을 위해 불꽃같은 삶을 살다 가신 윤봉길 의사님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뜻을 표합니다.

또한 오늘의 학술회의를 주최하여 주신 매헌윤봉길의사기념사업회 황길수 회장님을 비롯한 모든 관계자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상해의거의 주역으로서 의열투사의 표상이자, 조국을 위해 산화한 청년 의사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독립운동가 이것이 많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 남아있는 윤봉길 의사의 모습입니다.

한인애국단 가입부터 의열 순국하시기까지의 행보가 강렬하게 느껴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이 기간은 윤봉길 의사님의 25년 생애 중 마지막 1년에 불과합니다.

그간 많은 관심을 받지는 못했지만 의사님의 의거 이전 24년의 삶 또한 재조명되어야 할 충분한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는 자신을 희생하여 조국광복의 대업을 이룩하겠다는 의사님의 거룩한 결심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의거 이전 의사님의 행적을 알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의열투사 이전 의사님께서 보여주셨던 농촌계몽운동가로서의 면모와 독립운동 사상가로서의 모습도 윤봉길 의사님께서 걸어오신 대일항쟁의 또다른 행보라는 사실 또한 결코 간과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그간 거의 다뤄지지 않았던 의사님의 유묵과 산문, 그리고 적지 않은 분량의 한시들을 통해, 고집스러웠던 농촌의 한 소년이 각성하여 민족의식에 눈



을 뜬 열혈 애국청년으로 성장하는 모습을 밝히는 오늘의 학술회의는 적지 않은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리를 함께하신 여러분!

윤봉길 의사님의 25년 생애는 짧았지만, 지향하는 바를 이루고자 최선을 다했던 의사님의 매 순간들은 자주독립의 초석이요, 조국광복의 자양분이 되었습니다.

의거에서 순국으로 이어진 생애 마지막은 물론 농촌계몽운동가로서의 면모과 독립사상을 키워가던 문학가로서의 모습들은 모두 그 자체로서 하나의 독립운동이었던 것입니다.

오늘의 학술회의를 통해 윤봉길 의사님의 사상가이자 문학가로서의 측면이 재조명되기를 바라며, 특히 의사님의 매화와 같은 고상한 절개가 담겨진 많은 시문들이 빛을 보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끝으로 오늘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의 건강과 행복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8. 11. 23.

서울지방보훈청장 오진영



목 차

◆ 기초강연

- 헌사(獻詞) 독립투혼의 절정, 그 활화산
- 매헌 윤봉길 의사의 실천사상과 대개선(大凱旋) 1
■ 이근배 (시인, 대한민국예술원 문학분과 회장)

◆ 주제발표

- 제 1주제 : 매헌 윤봉길의 修學과정과 사상적 배경 11
■ 김상기 (매헌연구원장, 충남대학교 국사학과 교수)
- 제 2주제 : 윤봉길 의사 자작시의 민족사상 37
■ 허경진 (연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 제 3주제 : 윤봉길 의사의 산문에 대하여 69
■ 심경호 (고려대학교 한문학과 교수)
- 제 4주제 : 현대시인이 바라본 윤봉길 시의 성격 91
■ 함돈균 (시민행성 대표)

기조강연

헌사(獻詞) 독립투혼의 절정, 그 활화산 - 매헌 윤봉길 의사의 실천사상과 대개선(大凱旋)

이근배

(시인, 대한민국예술원 문학분과 회장)

이근배
尹奉吉
名物回
去氣結

이 나라 역사의 높푸른 하늘을 우러릅니다. 옷깃을 여미고 마음을 다스려 내 겨레 천세(千歲)의 스승이시며 만대의 충렬(忠烈)이신 매헌(梅軒) 윤봉길(尹奉吉) 의사의 탄신 일백십 주년을 경모(景慕)하는 글월을 올립니다.

어이타 바깥세계를 내다보지 못하고 문약(文弱)에 치우쳐 부국강병에 소홀히 하다 오천년 사직이 무너지는 국치(國恥)를 맞게 되었습니다. 누천년 오직 대륙 정벌의 야욕을 키워오던 왜국(倭國)은 19세기 중엽 이른바 메이지유신을 계기로 미국, 영국, 러시아, 네덜란드, 프랑스 등 서구의 경제, 군사 대국들과 통상조약 및 동맹을 맺으며 동북아시아의 침탈에 광분하기 시작했습니다. 1894년 청일전쟁에 이어 1904년 러일전쟁에서의 승리로 스스로 군사강국임을 과시하면서 그 영토 확장의 시동을 우리나라로 잡고 무력과 계략을 동원해 강점을 했던 것입니다.

적(敵)들이 바다를 주름잡으며 세계를 무대로 국력과 외교력과 군사력을 강화하는 동안 우리나라는 겨울 눈을 모르는 여름매미(蟬不知雪)처럼 저만치 앞서나가는 새로운 시대의 흐름과 나라의 위기를 감지하지 못한 채 전쟁을 치를 겨를도 없이 나라를 송두리째 빼앗기는바 되었습니다.

1905년 을사늑약으로 이미 국권을 잃고 5년 뒤 합방(合邦)이라는 듣도 보도 못한 해괴한 낱말을 만들어 아예 속국(屬國)으로 병탄하니 이로써 하늘이 꺼지고 땅이 무너지는 암흑천지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어찌 나라를 잃음에 백성으로서 할 바를 아니하겠습니까. 을사늑약에 항거하여 을사오적의 처형을 주청하다 순국자결한 민영환(閔泳煥), 조병세(趙秉世), 홍만식(洪萬植)등을 비롯한 많은 순국지사들이 있었고 1906년에는 최익현(崔益鉉)선생이 74세의 고령에도 항일의병을 일으켜 분전하다 대마도에 압송 순절하셨습니다. 그리고 1909년 10월 26일 안중근(安重根)의사의 총탄으로 왜적의 수괴(首魁) 이토 히로부미를 척결하니 삼천만 겨레의 비원(悲願)의 발현이요 하늘의 벌(罰)이었습니다.

병탄되던 1910년 8월 29일 홍범식(洪範植) 등의 순국자결이 잇따랐고 황현(黃玹)도 국치(國恥)에 이르매 절명시(絶命詩)를 남기고 목숨을 끊었습니다. 방방곡곡에 들불처럼 일어나는 항일독립의 기운이 한시인들 잠들 수 있겠습니까. 마침내 기미년 삼월

초하루 정오를 기려 민족대표 33인의 독립선언서 낭독 배포와 함께 타오른 만세운동의 전말을 어찌 다 적을 수 있겠습니까.

이 나라 사직의 적통을 잇는 『대한민국임시정부』가 상해에 서고(1919. 4.13) 북만주에서는 독립군이 왜병들과 전쟁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국치의 통사(痛史)를 새삼스럽게 나열한 것은 윤봉길 의사의 사상적 형성과 그 독립투혼의 불꽃이 어디서부터 솟아났는가를 돌아보고자함이었습니다.

의사는 1908년 6월 21일 충청남도 덕산 땅 농촌마을에서 아버지 황(璜) 공과 어머니 김원상(金元祥) 여사의 장남으로 태어나셔서 어릴 때 큰아버님 서당에서 한문을 배우고 어머니께 한글을 익히며 자라고 있었습니다. 덕산공립보통학교 2학년인 열한 살 때 3·1운동의 만세행렬을 따르면서 나라 잃은 겨레에 대한 깨우침을 얻어 왜제의 말과 글을 가르치는 학교를 자퇴하고 한문 수학과 신문, 잡지를 읽으며 나라 찾기와 겨레의 살 길에 대해 무엇을 할 것인가를 밤낮으로 골몰히 생각했을 것입니다.

스무 살에 「농민독본」을 지어 농촌을 깨우고자 하고 다음 해에는 〈부흥원〉을 설립하고 스물두 살 때는 「기사년일기」를 쓰면서 어떤 한계를 느끼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덕산은 궁벽하고 한적한 산골마을이어서 의사 혼자 힘으로 더 나아갈 지평이 없기 때문입니다.

스물세 살 때 의사는 조국을 위해 한 몸을 던질 각오를 단단히 하고 집과 고향을 떠나 망명의 길에 오릅니다.

“뺨뺨이 말라가는 삼천리강산을 바라보고만 있을 수 없다” “철권으로 적을 즉각 부수어 수화(水火)에 빠진 나라를 건지려다”고 저 천추에 빛나는 “대장부가 집을 나섰다면 어찌 살아서 돌아오리오(丈夫出家生不環)” 글씨를 써놓고 자신도 모를 싸움터로 출정을 합니다.

중국 청도를 거쳐 만주 유람, 상해로 가서 한일공우회 조직, 상해 영어 학교에서 공부, 스물네 살에 홍구(虹口)공원에서 소채장수를 하며 백범 김구 선생을 뵈었고 「한인애국단」에 입단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전사로 독립투쟁의 선봉에 나설 것을 결의합니다.

그날 1932년 4월 29일 왜왕의 생일인 천장절 기념식을 왜군은 상해사변에서 승리한 전승 축하와 함께 갖는다는 상해매일신보의 기사를 읽고 목숨 바쳐 적을 궤멸할 천재일우의 기회임을 직감합니다.

나는 적성赤誠으로써 조국의 독립과 자유를 회복하기 위하여 한인애국단의 일원이 되어 중국을 침략한 적의 장교를 도륙하기로 맹서하나이다

대한민국 십사 년 사월 이십육 일 윤봉길

한인애국단 앞

선서문을 써서 걸어놓고 김구 선생과 태극기 옆에서 사진을 찍습니다. 이보다 앞서 이봉창 의사가 1931년 12월 31일 역시 선서문을 붙이고 1932년 1월 8일 왜왕 히로히토를 폭살하려 나섰으나 성공을 거두지 못했던 터라 윤봉길 의사의 각오와 김구 선생의 계획은 형언키 어려울 만큼 필승의 신념으로 뭉쳐있었습니다.

마침내 1932년 4월 29일 아침 홍구공원에 꾸민 적들의 축하 단상에는 시라카와 대장, 해군총사령관 도무라 중장, 우에다 중장 등 침략의 원흉들이 모두 올라 국가 연주가 끝날 무렵인 11시 40분 경 윤봉길 의사가 던진 수통 폭탄이 정통으로 폭발해 시라카와는 즉사하고 나머지는 중상을 입는 천지를 진동시키는 대 개선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윤봉길 의사의 승전고는 전 세계에 울려 퍼지면서 대한국인의 위용을 하늘 높이 떠올렸습니다. 뿐입니까.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위상도 사해에 알려지고 파죽지세로 대륙을 석권하려던 왜제의 야욕도 백일하에 그 실상을 드러내게 되었습니다. 당시 중국 국민당의 1인자였던 장개석은 “중국의 백만 대군도 못한 일을 일개 조선청년이 해냈다고” 칭송을 하면서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크게 지원하는 계기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대하소설로 써도 윤봉길 의사의 생애와 사상, 그 독립투혼의 활화산을 다 그릴 수 없겠거니와 그러면 윤봉길 의사는 누구인가 그리고 어디서 그 정신과 실천을 가져왔는가를 더듬어볼까 합니다.

첫째 충의사상(忠義思想)입니다. 아산만을 에워싼 충청도 북단 일대를 내포(內浦)지역이라 합니다. 아산은 충무공 이순신 탄생지이며 현충사가 있고 천안은 이동령, 이범석, 유관순 등 독립 운동가들의 고향이며 홍성은 최영, 성삼문에 이어 한용운, 김좌진이 태어나신 곳이며 청양에는 한일의병장 최익현이 있습니다. 이러한 지리적 배경에서 나라에 충성하고 대의를 위해서 멸사봉공(滅私奉公)하는 충의정신을 윤봉길 의사는 어려서부터 몸속에 담고 자랐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찌하여 나라가 이 지경이 되었는가, 다시 국권을 회복할 길은 무엇인가. 의사는 국치를 전후한 주변국들의 움직임과 그에 대응하여 일어난 항일독립투쟁의 전말을 낱낱이 짚어보며 건잡을 수 없는 통한과 울분을 새겼을 것입니다.

지금 이럴 때가 아니다. 두메산골에 묻혀 아이들이나 가르치고 있을 때가 아니다. 부모에 효도하고 형제와 처자식을 돌보는 일은 나라를 잃은 백성으로서의 소의(小義)이고 적과 싸워서 이기는 일은 대의(大義)가 아니겠는가. 나는 작은 나(小我)를 버리고 큰 나(大我)를 위하는 충의를 실천하련다. 여기에 생각이 미치고 실행에 옮기기까지 의사는 얼마나 많은 고뇌와 갈등의 밤낮을 겪었겠습니까.

대체에서 신문학을 공부한 내로라는 지식인도 아니요 사람들로부터 추앙을 받는 지도자도 아닌 겨우 스무 살 남짓의 농촌 청년으로서의 참으로 놀라운 선각(先覺)이었고 지혜였고 실천사상의 결단이었습니다. 아마도 천지신명의 큰 원력(願力)이 윤봉길 의사를 독립전사로 이 땅에 보내신 것이라고 밖에는 달리 풀이할 길이 없습니다.

둘째 한글 정신입니다. 윤봉길 의사는 어머니로부터 한글을 배웠습니다. 한문 공부도 깊었으나 우리 겨레는 우리 글자를 쓰고 우리글을 써야겠다는 남다른 한글 정신을 일찍부터 몸소 실천했습니다. 「농민독본」을 쓰고 한글교육에 나선 것도 그것입니다.

보라! 풀은 꽃이 피고 나무는 열매 맺습니다. 만물의 영장 사람 저도 이상의 꽃이 피고 목적의 열매 맺기를 자신합니다. 그리고 우리 청년 세대에게는 부모의 사랑보다도 형제의 사랑보다도 더 일층 강毅(強毅)한 사랑이 있는 것을 각오하였습니다.

청도에서 보낸 “사랑하는 어머니에게” 보낸 편지는 한 편의 시요, 세상에서 가장 큰 사랑이 나라 사랑임을 쓰고 있습니다. 나라 사랑은 곧 한글 사랑과 하나입니다.

너희도 만일 피가 있고 뼈가 있다면 반드시 조선을 위해 용감한 투사가 되어라. 태극기 깃발 높이 날리고 나의 빈 무덤 앞에 찾아와 한 잔 술을 부어라.

강보에 싸인 두 병정에게—

두 아들 모순(模淳)과 담(淡)에게 쓴 편지도 윤 의사는 자신이 조국의 아들이며 조국의 아버지임을 만대에 천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윤 의사는 시인이었습니다.

벼루를 씻고 등불 친하는 것
 각기 시기가 있거니
 다시 내일 아침 거문고 타면
 그 운치 새삼 유장하리라
 —임술 유월 그믐날 벼루 씻으며
 눈으로 보기에 산과 내여
 기이하고 고운 기운 넘치기로
 이 나라의 태평스런 국권은
 기필코 돌아오고야 말리라
 —길가다가 느낌이 있어 짓는다

참으로 아깝고 안타까운 일입니다. 윤 의사가 독립영웅으로 싸움터에 나가 스물네 살의 젊은 나이로 장렬하게 순국하지 않았더라면 아니 국운이 쇠퇴하지 않았더라면 문학사에 길이 남을 많은 시와 겨레의 경전이 될 대작들을 남겼을 것입니다. 아무래도 윤봉길 의사의 한글 정신과 문학세계는 이 땅의 석학들이 나서서 새롭게 정립해야겠습니다.

저는 이 글을 쓰기 위해 윤봉길 의사에 대한 책을 사러 대형서점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백 권까지는 몰라도 몇 십 권은 서가에 꽂혀있을 줄 알았던 평전이나 연구서적들이 한 권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래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윤봉길 의사가 중국 땅 홍구공원에서 이룬 독립투쟁의 대 개선은 천년만년이 지나도 꺼지지 않을 이 나라 역사의 활화산입니다.

윤봉길 의사는 젊은 나이에 이미 대 사상가였으며 실천적 행동가였으며 구국의 대 영웅이었습니다. 이 위대한 겨레의 은인이며 만대의 스승이 목숨을 던져 이룬 해보다 밝은 광명을 우리 후손들이 떠받들고 미래로 나아가는 횃불로 삼지 않는다면 누가 부모형제보다도 내 목숨보다도 더 소중한 나라를 지키고 나라를 위해 몸을 던지겠습니까.

끝으로 제가 열네 해 전 윤봉길 의사 추모음악회에 올렸던 “다시 불을 뿜어다오 역사의 활화산이여”의 한 구절만 읽겠습니다.

영원한 겨레의 스승 매헌 선생이시여
그날 홍구공원에서 왜적의 심장을 향해 터뜨린
수통폭탄을 다시 한 번 터뜨려주십시오
대한독립만세를 다시 한 번 외쳐주십시오
다시 한 번 역사의 활화산 불을 뿜어 주십시오

주제발표

▶ 제 1주제 : 매헌 윤봉길의 修學과정과 사상적 배경

발 표 : 김상기 (매헌연구원장, 충남대학교 국사학과 교수)

토 론 : 김용달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소장)

▶ 제 2주제 : 윤봉길 의사 자작시의 민족사상

발 표 : 허경진 (연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토 론 : 구지현 (선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 제 3주제 : 윤봉길 의사의 산문에 대하여

발 표 : 심경호 (고려대학교 한문학과 교수)

토 론 : 이현일 (성균관대학교 한문교육과 교수)

▶ 제 4주제 : 현대시인이 바라본 윤봉길 시의 성격

발 표 : 함돈균 (시민행성 대표)

토 론 : 이형권 (충남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제 1주제 발표

매헌 윤봉길의 修學과정과 사상적 배경

김상기

(매헌연구원장, 충남대학교 국사학과 교수)

I. 머리말

II. 修學과정

1. 서당 입문
2. 오치서숙에서 수학
3. 신학문 수학

III. 한시집과 유묵

1. 한시집
2. 유묵
 - 1) 出鄉歌
 - 2) 毛遂自薦歌

IV. 맺는말



I. 머리말

윤봉길(尹奉吉, 1908-1932)의 상해의거는 한국인의 독립의지를 전 세계에 천명하였다. 한국인의 독립운동을 고양시켰으며, 임시정부를 희생시켰다. 일제 침략군에 타격을 주어 상해사변 전승을 무색하게 만들었으며, 중국의 장개석(蔣介石) 정부가 대한민국임시정부에 전폭적인 지원을 하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 만주지역에서는 만보산사건으로 인한 반한감정이 풀어졌으며, 나아가 한중 연합작전이 전개되는 데에도 큰 역할을 하였다.¹⁾

윤봉길은 상해의거를 감행한 혁명가로 많이 알려져 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윤봉길에 대한 연구는 상해의거에 집중되어왔다.²⁾ 그러나 그는 국내에서 한학을 수학하고 야학을 개설하여 농촌 아동을 가르친 교육자이면서 농촌운동을 펼쳤던 농촌계몽운동가이다. 또한 그가 남긴 『농민독본』을 비롯하여 여러 편의 한시와 편지류, 일기 등을 보면 그의 사상가로서의 면모를 발견할 수 있다.³⁾

최근에 윤봉길에 관한 자료들을 집대성한 『매헌윤봉길전집』(전9권)이 간행되었다. 이 문집에는 그의 시문을 비롯하여 그의 사상적 특성을 밝힐 수 있는 자료들이 망라되어 있다. 또한 상해에서 숙식을 함께 한 김광(金光)이 지은 『윤봉길전(尹奉吉傳)』이 공개되었다. 여기에는 윤봉길이 국내에서 행했던 연설문도 있다.⁴⁾

이 글에서는 그의 수학(修學)과정과 한시집을 살피고, 망명하면서 남긴 7자유묵 ‘출향가’와 의거의 결의를 밝힌 ‘모수자천가(毛遂自薦歌)’를 중심으로 그의 사상적 배경을 구명하고자 한다. 이에 대한 구명은 그가 농촌계몽운동을 하다가 어떤 계기로, 왜 혁명운동가로 전환하였는지에 대한 이해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1) 김상기, 「윤봉길 상해의거의 국내외적 영향과 의의」, 《한국독립운동사연구》61, 2018.

2) 胡春惠, 「윤봉길 의거가 한국독립운동 및 중국사회에 미친 영향」, 『한국독립운동과 윤봉길의사』, 매헌윤봉길의사기념사업회, 1992.

신용하, 「윤봉길의 상해의거와 그 의의」, 위 책.

윤병석, 「1932년 '상해의거' 전후의 국제정세와 독립운동의 동향」, 위 책.

김광재, 「윤봉길의 상해의거와 '중국 측 역할」, 《한국민족운동사연구》33, 2002.

김상기, 「윤봉길의 상해의거에 대한 일본 언론의 보도」, 《한국독립운동사연구》32, 2009.

3) 김상기, 「윤봉길의 수학과정과 항일독립론」, 《한국근현대사연구》67, 2013.

4) 김광, 『尹奉吉傳』, 상해 한광사, 1933. ; 이민원 양수지 역주, 『나의 친구 윤봉길』, 선인, 2017.

II. 수학과정

1. 서당 입문

윤봉길은 7살부터 백부가 운영하는 서당에서 백부의 큰아들인 순의(舜儀, 1907-1983)와 이민덕(李敏惠) 등과 함께 천자문을 수학하였다. 어려서부터 재동(才童)으로 불렸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살가지’라고 불릴 정도로 성질이 굳었다.⁵⁾ 11세 때인 1918년에 덕산공립보통학교에 입학하였다. 이듬해인 1919년 3·1운동이 일어났으며, 그 여파가 덕산까지 미쳤다. 덕산 읍내에서는 4월 5일 대치리 출신의 최승구(崔昇九, 1897-1949)⁶⁾ 등 7백여 명이 태극기를 흔들면서 만세운동을 벌였다. 이날 밤에는 덕산면내 여러 지역에서 햇불만세운동이 있었다.⁷⁾ 헌병들이 주도 인물을 체포하자 군중들은 구급자 석방을 요구하며 항의하였다. 헌병대는 주도자인 최승구를 체포하고 군중을 해산시켰다. 최승구는 예산헌병분대에 끌려가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태 90도를 받았다.⁸⁾

윤봉길은 이러한 덕산읍내에서의 만세시위를 보고 일본의 종살이 하라는 교육을 받지 않겠다면서 보통학교를 자퇴하였다.⁹⁾ 그리고 인근의 최은구(崔殷九, 1887-1973)가 설립한 서당에 들어가 그의 아들인 최병천(崔炳天, 1908년생, 호적명은 최영수(崔永秀))과 이태경·이민덕 등과 함께 한학을 수학하였다. 최은구는 총독부에서 강행한 토지조사사업에 측량보조원으로 따라다니다가 1918년 조사사업이 끝나자 시랑리에 서

5) 「윤봉길이력」, 『매헌윤봉길전집』(이하 『전집』)1, 40쪽. 윤규상은 위 책(35쪽)에서 6세부터 백부한테 수학하기 시작했다고 하였으나, 여기에서는 윤봉길의 자필 이력서를 따르기로 한다.

6) 최昇九(1897-1949)는 예산군 덕산면 대치리 55번지에서 崔遇成과 김씨 사이에 장남으로 태어났다. 본관은 삭령이다. 1919년 4월 4일 있었던 덕산에서의 만세운동에 참여하였다가 체포되어 소위 보안법위반으로 1919년 4월 19일 예산헌병분대에서 ‘태 90도’에 즉결처분 되었다. 1949년 9월 22일 청원군 강외면 桑亭里에서 사망하였다(수형인명부 참조). 정부에서 그의 공을 기려 2009년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7) 김진호, 「예산지역의 3·1운동 전개와 의의」, 『예산지역 독립운동의 재조명』, 충남대 충청문화연구소, 2011.11, 25쪽.

8) 「최승구 형사사건부」(국가기록원 소장) 참조. 정부에서는 최승구의 공훈을 기려 2009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인근의 고덕 한천시장에서는 4월 3일 1천여 명의 만세시위가 있었다. 이 시위 도중에 印漢洙(1881-1919)가 현장에서 순국하였다. 인한수는 1992년 애국장을 추서 받았다.

9) 윤남의, 『윤봉길일대기』, 1975, 정음사, 26쪽. 당시 덕산보통학교의 교장은 邊田이 아닌 邊守三郎(재임기간: 1912.12.26. -1919.5.21.)이었다(덕산향교 편, 『덕산향교지』, 1990, 87쪽).

당을 개설하였다. 윤봉길은 최은구로부터 토지조사사업 때 경험한 바를 자세히 듣고 일제의 토지조사사업이 우리 땅을 수탈하기 위한 술책에 불과했음을 알게 되었다. 일제는 최은구의 서당이 무허가라고 트집을 잡아 강제로 폐쇄시켰다.¹⁰⁾

한편 김광(金光)의 『윤봉길전(尹奉吉傳)』에 의하면, 윤봉길이 보통학교를 자퇴하고 이광운(李光雲)이 운영하는 서당에 다니면서 애국정신을 깨우친 것으로 되어 있다. 김광은 이광운에 대하여 “한학자 이광운은 고대 역사 및 정치, 철학에 조예가 깊었다. 언론계, 간행물, 잡지계에 투신하여 한걸음 나아가 민중 사상을 고취하는 운동을 하고, 길거리에 나아가 민중을 불러 모아 대민강연을 하였다. 그는 1907년 7조약이 체결되는 것을 보고 낙향하여 은거하고 교편생활을 하였다.”라고 소개하고 있다. 이광운이 국치 12주기를 맞이하여 학생들에게 강의한 내용도 소개되어 있는데, 이에 의하면 학생들에게 혁명에 투신하여 나라와 민족을 위해 희생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면서 국가 흥망은 필부에게도 책임이 있으니 죽기로 싸울 정신을 가지고 민족의 영광을 위하여 무기를 들고 나아가 몸을 던져 적과 최후까지 싸우자고 하였다. 그런데 “윤의 사가 13세 때인 어느 가을에 42세의 일기로 병으로 세상을 떠났다”라고 하여 이광운이 1920년 가을에 사망하였다 한다.¹¹⁾ 이때는 윤봉길이 최은구의 서당에 다닐 때인데, 위에서 보았듯이 최은구는 총독부에서 강행한 토지조사사업에 측량보조원으로 따라다니다가 나와서 서당을 차렸다고 하는 것으로 보아 이광운이 최은구를 말하는 것이 아닌가 한다. 그러나 최은구는 1973년까지 생존했던 것으로 보아 이광운이 누구인지는 확정하기 어렵다.

윤남의는 『윤봉길일대기』에서 가형인 윤봉길이 최병대(崔炳大, 1887-1962, 호: 석운(石雲)) 문하에서 수학하였다고 하였다.¹²⁾ 최병대는 서산시 팔봉면 진장리 출신으로 부친 최한구(崔漢九)를 따라 덕산의 시랑리 39번지로 이사하였다. 원래 학자집안이었다 한다. 그는 윤봉길을 교육하였다는 이유로 일경의 추적을 당하다가 청양의 정산 일대에서 훈장을 하였으며, 밥상 수선공을 하기도 하였다 한다.¹³⁾

10) 윤규상 이상재, 『매헌 윤봉길의사의 농촌부흥운동에 관한 연구』, 농업협동조합중앙회, 1993, 36쪽, 70-71쪽.

11) 김광, 위 책, 82-85쪽.

12) 윤남의, 위 책, 33쪽.

2. 오치서숙(烏峙書熟)에서 수학

윤봉길은 14살 되던 1921년부터는 최은구의 서당에서 나와 이웃 마을인 둔리로 이사 온 성주록(成周錄, 1876-1963)의 오치서숙(烏峙書熟)에서 경학을 수학하였다. 성주록의 자는 공진(公振), 호는 매곡(梅谷), 본관은 창령이다. 1876년 충남 당진 송악에서 태어나 덕산의 둔리(屯里) 지산(芝山)에 이거하여 서당을 차렸다. 그는 창녕성씨의 회곡(檜谷)파에 해당한다. 회곡은 조선 건국의 공으로 원종공신에 봉해진 문숙공 성석용(成石瑬, 1352 공민왕1~1403 태종3)을 말한다. 그는 승(勝)과 승(勝) 두 손자를 두었는데 큰 손자인 승의 아들이 바로 계유정난을 일으킨 성삼문이다. 승의 후손이 계유정난으로 멸족됨에 따라 이후 회곡파는 그의 동생인 승(勝)의 후손으로 이어졌다. 의정부 우참찬의 벼슬에 있던 승(勝)은 이후 벼슬에 나가지 않고 칩거하였다. 성주록은 그의 15대손이다.¹⁴⁾ 성삼문의 절의정신을 가학으로 이어받은 그는 그의 족형인 성주영(成周英, 1867-1919, 자: 俊卿, 호: 松史)이 고종의 칙령을 받아 성삼문의 제사를 지내는 봉사손으로 책정된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등 가문에 대한 긍지를 가지고 있었다.¹⁵⁾ 성주록은 의병에 참여하지 않고 순수 학문만을 고집하는 간재 전우의 문도를 매도하면서 심지어는 전우의 무리를 처단해야 한다(‘先斬田愚之徒’)는 구호를 부르짖기도 하면서 흥주의병을 숭상하였다. 성주록의 가르침은 단지 훈고학에 그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¹⁶⁾ 윤봉길은 그의 문하에서 이러한 성삼문의 절의정신과 흥주의병의 민족정신을 배웠다.

윤봉길은 한시에 특별한 재능을 보여 봄, 가을로 열리는 시회(詩會)에서는 장원을 자주 한 것으로 알려진다. 그가 상해에서 지은 「윤봉길이력」에서 자신이 15살 되던 1922년 7월에 장원한 ‘학행(學行)’이란 한시를 적어 놓았다.¹⁷⁾

13) 매헌윤봉길의사기념사업회, 『매헌윤봉길의사거80주년기념 한시백일장시집』 「서문」, 2012.

蘇仕永 李興範 金奉濟, 「石雲崔炳大先生任行狀抄」, 2008.

14) 『창녕성씨문숙공파세보』 권1, 1986, 472쪽.

15) 성주영은 1902년 12월에 성삼문 제사를 지내는 ‘봉사손’에 임명된 바 있었다(「승정원일기」 고종39년 12월 22일자).

16) 윤규상, 위 책, 71쪽.

17) 「윤봉길이력」, 『전집』1, 41쪽. 58쪽. 이 시는 중추절 시회에서 독장원을 한 작품으로 알려진다. 이 시회에는 오치서숙의 학생 뿐 아니라 인근 마을의 지망자들도 참석하였는데, 韻은 明, 淸, 聲이었다 한다(윤남의, 위 책, 30쪽).

不朽聲名士氣明 길이 드리울 그 이름 선비의 기개 밝고
 士氣明明萬古晴 선비의 기개 밝고 밝아서 만고에 빛나네
 萬古晴心都在學 만고에 빛나는 마음은 학문에서 우러나며
 都在學行不朽聲 그 모두가 배워 행함에 있으니 그 이름 스러짐이 없으리

그는 이 시에서 선비의 기개를 맑고 맑다고 하면서 이를 배우고 또 실천해야 한다고 하였다. 당시 동문수학했던 이들로는 이강돈·이민덕·윤순의·맹영재·김유현·안수근·이종윤 등이 있다. 이민덕이 “(윤봉길은) 기억력이 뛰어난 점으로 평생을 두고 그런 사람을 처음 보았지만, 한시에 능한 것도 그를 당할 사람이 없었고, 글씨 솜씨도 확실히 수준 이상이었습니다.”라고 회고한 것으로 보아 윤봉길의 재주는 보통 이상이였음에 틀림없다.

성주록은 윤봉길이 17살 되던 1924년 자신이 더 가르칠 것이 없다고 생각되었다. 12살부터 5년간 가르친 결과, 이제 경서에 대한 이해는 물론 시를 자유롭게 지을 정도가 되었다. 성주록은 윤봉길에게 자신의 호와 성삼문의 호를 따서 ‘매헌(梅軒)’이란 호를 지어 졸업 선물로 주었다. 한 겨울 추위를 잘 견뎌내는 매화의 고고한 기풍과 성삼문의 충의정신을 본받으라는 뜻이었다.¹⁸⁾ 그리고 윤봉길의 학문적 성장을 위하여 그를 흥성에 있는 유교부식회(儒敎扶植會)에 추천하고 그들과 교류하도록 주선해 주었다.¹⁹⁾ 유교부식회는 흥주의병장 김복한(金福漢)의 유지로 그의 장자인 김은동(金殷東)과 문인인 오석우(吳錫禹), 이우직(李禹植), 김노동(金魯東), 성원경(成元慶), 전용욱(田容勳) 등이 1927년에 흥성에서 설립한 유교진흥 단체였다. 유교부식회는 유교를 진흥시켜 ‘대공(大公)’ 또는 ‘대동(大同)’의 세계 건설과 ‘시대에 적합한 충의심을 양양’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인도(人道)》라는 잡지를 간행했으며, 수시로 강연회를 개최하였다. 유교부식회에서의 강연 내용은 주로 유교의 부흥을 강조하였지만, 일본

18) 「윤봉길이력」, 『전집』1, 41쪽. “17세에는 개도 아니 먹는 똥을 누는 사람이 되었다. 부득이 7, 8세 아동을 가르치게 되었다. 18세까지 2개년이다”라고 하였는데, 이때 그는 서당에서 나와 집 사랑에 서당을 차리고 아이들을 가르쳤음을 밝혔다.

19) 김상기, 「윤봉길의 상해의거에 대한 일본 언론의 보도」, 《한국독립운동사연구》32, 2009, 9-11쪽.

윤규상, 위 책, 76쪽.

『덕산향교지』에 있는 그의 이력에 의하면 “14세부터 오치서숙 성주록 선생에게서 수학. 또 흥성 유교부식회에서 독립운동 정신을 수강함”(393쪽) 이라고 되어 있다.

경찰에 의해 금지될 정도로 민족정신을 고취하는 내용이 많았다. 《인도》지는 일본 경찰의 탄압과 재정문제로 1931년 3월호를 끝으로 정간되었다. 간행을 책임졌던 김은동은 상해로 망명하여 임시정부 활동에 참여한 것으로 전해진다.²⁰⁾ 윤봉길은 이 유교부식회에서 흥주의병장 김복한의 의병정신을 배울 수 있었으며, 척사 이념에 입각한 민족자주사상을 깨우칠 수 있었다.

윤봉길의 시집으로 알려진 『옥타』에 김복한(1860-1924)의 죽음을 애도하는 「만지산장(輓志山長)」이라는 만시(輓詩)가 실려 있다. 칠언율시의 만시에서는 김복한을 ‘어진 사람들 중에 현공(賢公)’이라면서 김복한이 춘추의 의리를 다하였으며 그의 티 없는 굳은 절개를 다시 보지 못함을 아쉬워하고 있다.²¹⁾ 이 만시는 윤봉길이 지은 것 같지는 않다. 오히려 그의 스승인 성주록이 지은 것이라는 해석이 유력하다.²²⁾ 윤봉길은 성주록을 통하여 당시 호서지역 대표적인 민족지사인 김복한의 의병정신에 감화를 받았을 것이다. 윤봉길이 1930년 3월 대한민국임시정부가 있는 상해로 향했던 것은 유교부식회에서 흥주의병의 의병정신을 깨친 것과 관련이 크다 할 수 있다.

유교부식회에서는 김복한의 제자인 전용육이 강학부의 책임을 졌으며 자연히 윤봉길과 관계가 두터웠던 것 같다. 전용육은 해방된 후 윤봉길의 유해가 돌아오고 충의사가 설립되자 충의사에서 윤의사를 추모하며 「윤의사봉길충의사유감(尹義士奉吉忠義祀有感)」이란 시를 지어 영전에 바쳤다. 이 시는 “전일에 그대 위해 강을 했던 일을 회상하니 흐르는 눈물 금할 수 없어 스스로 숙경(肅敬)하네”라고 끝맺고 있으며, 후미에 “윤군은 일찍이 유교부식회원으로 그 스승 성주록씨를 따라 회관에 와서 강하였기에 읊는다(尹君曾以儒教扶植會員陪其師成周錄氏來講於會館來句及之)”²³⁾라고 윤봉길이 유교부식회 회원이었음을 알려주고 있다.

성주록은 1933년부터 1939년까지는 덕산향교에서 현재의 도유사에 해당하는 직원(直員)을 지냈다.²⁴⁾ 그는 향교 직원으로 있으면서 1938년 향교 건물을 중수하였다.²⁵⁾

20) 김상기, 「한말 일제하 흥성지역 유림의 형성과 항일민족운동」, 《한국근현대사연구》31, 2004.

21) 「輓志山長」, 『전집』1, 576-578쪽.

22) 진영미, 「윤봉길 시문집 재고」, 《한문교육연구》23, 한국한문교육학회, 2004, 180쪽.

23) 김상기, 『호서유림의 사상과 민족운동』, 지식산업사, 2016, 93쪽.

24) 덕산향교 편, 『덕산향교지』, 1990, 59쪽. ; 尹世熙, 「恩師梅谷成周錄先生追慕碑」, 1984년 5월.

또 일제가 태평양전쟁 때 향교의 낫그릇으로 된 제기류를 모두 공출이란 명목으로 강탈해가자, 제향을 올릴 때 사용하는 조두(俎豆)와 향촉대(香燭臺), 그리고 술잔인 존작(尊爵)과 향을 담은 합(盆) 등을 목기로 새로 준비하였다.²⁶⁾

성주록은 해방되어 윤봉길의 상해의거를 기념하는 첫 행사가 열리자 이를 기념하여 추도시를 지어 그를 추모하였다. 그의 추도시는 다음과 같다.²⁷⁾

고 대동의열사 윤봉길 의사 의거 15주년 4월 29일 기념 함께 책을 읽었던 성주록 곡하며 위로함(故 大東義烈士 尹公義舉十五周年四月二十九日紀念 伴讀人 成周錄 哭慰)

오호 통재! 의거하신 그대여	嗚呼痛哉舉義唯君
어느 때인들 이 세상을 더욱 간절히 생각지 않으리오	何時不念尤切斯界
고절과 의는 실로 모두 자세히 설명하기 어려우나	高節大志實悉難詳
그 의로움은 禮에 있으니 감히 잊을 수 없소이다	義之所在禮不敢忘
하늘이 반드시 쓸 사람이 있으면 땅이 응하여 태어나게 하는 법	天必有用地應時生
단군 이래 韓나라에 이르도록 의열을 모아 이루었던 땅	包檀迄韓集義烈成
한 책상에서 5년을 함께 책을 읽었던 그대	一床伴讀五載勤工
언제나 겸손하며 의를 수행하며 높은 풍격을 사모하였지	恒遜俾儀益慕高風
종형이신 익(益)과 이(李)는 강송하며 연마하도록 가르쳐주시어	從兄益李講誦刮磨
천추에 길이 읊을 시경 3장을 비춰보며 노래했소	千秋格詩三章照歌
세상을 구제하겠노라 분거하여 책상을 박차고 몸을 떨쳐 일어나	濟世奮擧拍案起身
엄한 법의 상해 조계에 어려움을 뚫고 임시정부에 새로 들어가셨네	嚴法租界撥難入新
폭탄을 둘러매고 시계를 차고 수신기를 받아	擔爆佩鍾授受信戡
공격하여 부수고 폭발시키니 적장이 있는 곳이 불바다	擊碎爆滅敵將卒燂
그 큰 소리에 아홉 번이나 현해탄이 더욱 검어졌고	仲呂念九玄默涸灘
합방을 애절히 느끼던 한국을 의롭게 일으켰네	切痛合邦拔義扶韓
25세 청년 나이에 일생을 마치는 두 번의 음악소리	二五青春兆二黃鍾
그때를 알리는 시간과 거울이 어느덧 15년이 흐른 이 겨울	巾鍾錢鏡十五前冬
우뚝하고 우뚝한 의절이며, 끝없이 흐르는 떳떳한 버리	卓卓義節源源常綱

25) 『덕산향교지』, 579쪽.

26) 위 책, 606쪽.

27) 『전집』 권7, 635-638쪽.

쇠가 깨어져 울리는 소리, 옥이 부서져 더욱 밝아진 빛
 순국한 혼으로 비단옷에 귀국하니
 독립의 기운이 이렇게 커진 것은 바로 그 덕 때문이지
 법전 아래 정령이 공식화되고 선비들의 논의가 이루어져서
 귀환하여 장례식을 거행하니 그 의절이 더욱 빛나도다
 옛 충절의 선비들 이 의열인으로 하여금
 반드시 땅 속 모든 혼령들을 모아 그를 천신이라 부르게 하리라
 사람뿐만 아니라 비통해 하던 혼령들도 감탄하니
 의로움을 조문하는 눈물이 이 찬 계절에 뜨겁도다
 마침내 양친의 이름 드날리고 다섯 형제 함께하니
 매화는 모두 울고 난초도 봄이 오면 틀림없이 만발하리
 나고 자란 옛집 로 살아오던 고향이
 지난날엔 노래하던 곳, 지금은 장례식장이 열렸네
 연월일시 이 날이면 그를 그리는 마음 끝이 없으리니
 꽃다운 혼, 어둡지 않아 오르내림이 늠름하도다
 높고 높은 수덕산, 아름다운 목계 냇물
 바람이 그 높고 긴 산과 냇물 원토록 이름을 함께 하리라
 추도문으로 고하노니 슬픈 눈물이 애처롭구려.

金破振聲玉碎益光
 僉尊先生錦衣還躬
 獨立運泰均被德隆
 典下政命公發士論
 返葬禮重彰節儀敦
 古忠節士令義烈人
 必鍾地靈咸稱天神
 人畜悲哀魂必感歎
 吊義淚熱哭節氣寒
 終顯二親行居五兄
 梅唯盡哭蘭必春榮
 生長古宅世居梓鄉
 昔臨詠渚今開式場
 年月日時記念無疆
 英靈不昧陟降洋洋
 巖巖修德豐豐沐溪
 風與高長永世名齊
 追悼文告悲淚淒淒

위 시에서 성주록은 윤봉길을 “한 책상에서 5년을 함께 책을 읽었던 그대”라고 부르면서 “언제나 겸손하여 의를 수행하며 높은 품격을 사모하였지”라고 그의 성품을 평하였다. 그리고 “하늘이 반드시 쓸 사람이 있으면 땅이 응하여 태어나게 하는 법”이라면서 윤봉길을 하늘의 명령에 땅이 응하여 태어난 인물이라고 하였다. 나아가 세상을 구제하겠다고 분연히 일으킨 그의 의거는 “합방을 통절하게 느끼던 한국을 의롭게 일으켰다”고 그의 공적을 높이 평가하였다. 끝으로 “옛 충절의 선비들이 땅 속 혼령을 모아 그를 천신이라 부르게 하리라”면서 그를 ‘대동의열사(大東義烈士)’이며 ‘천신(天神)’이라고 예찬하였다. 성주록의 이 시는 윤봉길의 고향에서의 수학과정과 성장, 그리고 상해의거를 사실적이고 감동적이고 힘 있게 잘 표현한 그의 대표적인 시로 평가된다.²⁸⁾

3. 신학문 수학

윤봉길은 한학을 공부하면서 한편으로는 신학문을 배웠다. 그는 돈이 생길 때마다 예산으로 나가 신학문에 관한 책을 사다 보았다. 그는 《동아일보》나 《개벽》과 같은 잡지를 구해서 보았으며 성경을 읽기도 했다. 그는 《개벽》은 한권도 빠지 않고 읽었다고 한다.²⁹⁾ 《개벽》은 천도교의 기관지로, 편집인이 천도교 이론가인 야뢰(夜雷) 이돈화(李敦化)였다. 매호 국판 160쪽 내외의 국한문혼용체로 간행되었다. 《개벽》에는 동학사상은 물론 사회주의 이념까지 소개되었다. 이돈화는 「인내천의 연구」에서 동학의 혁명사상을 소개하고 있으며, 박헌영은 「국제 청년데이의 의의」에서 무산청년동맹의 국제적 단결을 주장하면서 ‘미래의 세상은 청년의 것이다’라는 요지의 내용을 발표하였다. 1925년 2월호에는 영국의 공상적 사회주의자이며 조합운동의 선구자로 미국으로 건너가 공상촌(New Harmony)인 ‘협동사회’를 시도했던 오웬(Owen, Robert)의 활동도 소개되어 있다.³⁰⁾ 1924년 4월호에 게재한 「세계 사회주의 운동의 현세(現勢)」는 삭제되었다. 또한 개벽사에서서는 일본의 사회주의자 사카이 도시히코(堺利彦)가 지은 『사회주의(社會主義)』(정백 역(鄭栢 譯))를 간행하여 판매하였다. 이처럼 《개벽》은 사회주의적 또는 혁명적인 내용들을 게재하는 등 혁신적인 잡지였다. 이에 따라 창간호에서부터 일제의 탄압을 받아 압수되었지만 독자들의 호응이 높았다. 윤봉길의 『농민독본』의 내용으로 유추하건대, 윤봉길은 《개벽》의 이러한 혁신적 이념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윤봉길은 또한 경서를 통하여 경세치용의 학문을 수학하였으며, 『명현록(名賢錄)』과 『국조명신록(國朝名臣錄)』 같은 역사책으로 그의 역사관을 확립하여 갔다. 『국조명신록』은 조선시대 태조부터 인조 때까지의 명신 390인의 행적을 모은 책이다. 그는 이

28) 성주록의 한시집으로 『梅谷言志』(갑오 5월)가 있다(손자 성낙호 소장).

29) 윤봉길에게 《개벽》과 같은 잡지를 구해 준 이로는 그의 사촌 동생인尹申得(1912년생, 본명은尹殷儀)으로 알려진다. 윤봉길은 선천경찰서에서 구금되었다 풀려난 후 정주여관에서 윤신득에게 “종제 신득아, 흰 옷가지나마 있으면 한 벌 부쳐주기 바란다”고 편지를 보내기도 하였다(윤남의, 위책, 121쪽).

30) 夜雷, 「人乃天의 研究」, 《개벽》1-6, 1920-1921.

박헌영, 「국제청년데이의 의의」, 《개벽》51, 1924.9.

玉川生, 「오웬의 計圖한 協和合力의 村」, 《개벽》56, 1925. 2, 58-63쪽.

책들을 머리말에 두고 탐독하였다고 한다. 그는 야학을 설립한 후 수시로 이 책들에 있는 우리의 역사를 강의하여 학생들에게 민족의식을 심어주었다.³¹⁾

윤봉길은 서당에 다니던 1923년에는 『일어속성독본』이란 책을 사다가 일본어를 자습하였다. 주위 선생들이 모두 반대하였으나, 그는 적국인 일본을 알기 위해서는 그들의 말을 배워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1년 동안 열심히 공부한 결과 회화가 능통한 수준이 되었다.³²⁾ 그가 이때 일본어를 익힌 결과 후일 청도(靑島)에서 일본인이 운영하는 세탁소에 취직할 수 있었으며, 상해의거 시에는 일본인 복장으로 일본인 행세를 하며 유유히 입장을 할 수 있었다.

Ⅲ. 한시집과 유묵

1. 한시집

윤봉길의 한시집은 『한시집(漢詩集)』, 『임추(壬樞)』, 『명추(鳴樞)』, 『옥타(玉唾)』, 『염락(濂洛)』 등 5편이 있다.³³⁾ 이 한시집들의 작성연대는 확인이 안 된다. 그러나 『명추(鳴樞)』의 표지에 ‘갑자’년이라 하여 1924년에 편집한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명추(鳴樞)』에 들어있는 글들을 보면 ‘을축년(1925년)’에 쓴 글이 있으며, ‘대정14년’(1925년)의 문서도 있다. 이로보아 1924년부터 1925년간에 편집한 것으로 보인다. 윤봉길이 오치서숙을 나온 것이 1924년이니까 서숙을 나온 후 직접 쓴 것이나 공부하고자 정리했던 한시들을 묶어 책으로 편찬한 것은 아닌가 한다. 이 한시집들은 그 동안 윤봉길이 직접 지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를 번역하는 과정에서 작자의

31) 김광, 「윤봉길전」, 『전집』6, 97-98쪽.

32) 「윤봉길이력」, 『전집』1, 41쪽.

33) 한시집 뒤에 『郇雲大篇』이 있는데 이는 붓글씨 체본으로 보인다. 이 책은 “甲子 四月 日 騰于書”라 한 것으로 보아 1924년 4월에 베낀 것으로 보인다. 이는 당나라 韋陟의 글씨를 윤봉길이 모사한 것으로 보인다. 韋陟이 ‘郇國公’에 봉해졌는데, 그가 자신의 이름인 ‘陟’자를 구름이 다섯 개 있는 듯 썼다 한다. 사람들이 이를 좋아하여 그를 ‘郇雲’이라 불렀으며 그의 글씨체를 ‘郇公五雲體’라 불렀다 한다(『新唐書』, 「韋陟傳」 참조).

생존연대가 윤봉길과는 맞지 않고 필체가 서로 다른 작품이 있는 것으로 보아 윤봉길의 저작으로 보기 힘들다는 지적이 있었다. 오히려 스승인 성주록이나 강치헌 등의 작품으로 보기도 하였다.³⁴⁾ 여기에서는 이러한 점을 참고하면서 한시집들을 재검토하기로 한다.

『한시집(漢詩集)』에는 칠언율시 200여 편과 칠언절구 6편, 오언절구 2편이 들어있다. 저자는 알 수 없으나 ‘늘그막에는 벗들이 가장 그리운 법(暮年朋友最相思)’³⁵⁾이라는 글귀가 있다. 또 저자는 남병희(南秉熙)와 친구 조연봉(趙蓮峯)의 아들 조창행(趙昌行)의 관례를 축하하는 글을 썼다. 조창행은 그때 15세였다. 친구 이미석(李嵎石)에게 준 글에서 “사람이 늙을수록 고인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음을 확신하겠다”라고 하고 있음을 보아 작자가 노년임을 알겠다. 또 「몽산별업(蒙山別業)」이란 글이 있는데, 이 글은 친구 후암(後菴) 이월(李輿)이 기유년(1909년) 겨울에 범천(泛川)에서 몽산(蒙山, 면양 뒤에 있는 진산) 아래 가제동(可濟洞)에 거처를 옮김에 이를 기념하여 몽산별업이란 편액을 만들어 주고 이 글을 쓴 것으로 보인다.

이 시에는 저자의 친구인 이석정(李石亭)과 이미석(李嵎石), 조연봉(趙蓮峯)을 비롯하여 김필제(金弼濟), 이재헌(李在憲), 이순성(李舜性), 나상용(羅上用), 위당(韋堂) 등이 등장한다. 그런데 이 시의 말미에 “庚戌大呂上澣 姜致憲序”라 하여 1910년 음력 12월 상순에 강치헌이 썼다는 글귀가 있다. 이로보아 『한시집(漢詩集)』의 작자는 강치헌이 아닌가 한다.

강치헌은 성주록의 친구로 그의 호는 혜정(蕙亭)이며 면천 사람으로 보인다. 1895년 윤5월에 면천 지역의 유생들이 범부대신에게 올린 단자가 있는데

匪黨의 入호야 前前官 李是鎰等네를 迫脅호야 四千兩을 討錢호고 末에 儒會長을 圖得호야 騎馬호고 持銃執戟者 數十人을 率호고 閭里의 橫行호야 人의 錢穀과 牛馬와 衣服佩物器皿 塩苞等屬 掠奪호거슬 數를 可히 勝호츄 음옴지라.³⁶⁾

34) 진영미, 「윤봉길 시문집 재고」, 《한문교육연구》23, 한국한문교육학회, 2004.

35) 한시집, 「暮秋澗寂而坐」(『전집』1, 133쪽).

36) 沈國慶 등, 「충청우도 면천군 儒生民人等齊聲單子」, 을미 윤5월, 장서각문서 『의송』2(장서각 디지털아카이브).

라면서 송산면(松山面)에 사는 ‘비당(匪黨)’에 들어가 행패를 부린 김익수(金翊秀)라는 자가 전전(前前) 군수에게 돈을 주고 유희장(儒會長)이 되어 마을마다 돈과 우마 등을 약탈한다면서 그를 처벌해달라는 의송 단자를 올렸는데, 그 유생 명단에 강치헌이 들어있음이 확인된다.

『임추(壬樞)』에는 칠언율시 45편과 오언율시 13편이 들어있다. 윤봉길의 친필로 보이나 저자를 확정하기는 어렵다. 이 중에 윤봉길의 시가 한편 보인다. 「강혜정의 장수한 날에 공경히 바치며, 우의 敬呈姜蕙亭長壽辰韻 禹儀」가 그것이다. 우의(禹儀)는 바로 윤봉길의 본명이다. 이 시는 다음과 같다.

어진 사람 덕 베풀어 길이 향년을 누리는데/ 仁人種德永享年
 감미로운 맛 마음 기르도록 玉延을 바치네/ 甘旨養心獻玉延
 寶樹(불교에서 말하는 칠보의 나무)라 바람 따뜻한 절에서 새가 머금듯/ 寶樹鳥舍風暖院
 芳年이라 물 맑은 연못에서 거북이 늙어가듯/ 芳年龜老水澄淵
 백발 육순 오래지 않아 이르는데/ 白髮六旬旬朔至
 노란 국화 구월 보름에 달 둥글도다/ 黃花九月月望圓
 두 아들 다섯 손자 즐거움 함께 하는 날/ 二子五孫同樂日
 무궁한 복록 모두 하늘로부터 받았네/ 無窮福祿摠由天

윤봉길이 스승 성주록의 벗인 혜정 강치헌의 생신을 축하하기 위해 지은 시로 보인다. 20대 초반의 청년답지 않게 원숙한 표현이 돋보인다.

또 「월당(月塘)의 문집을 보고 느낌이 있어 차운하며」란 시가 있는데, 월당은 조선 중기 문신 강석기(姜碩期, 1580-1643, 본: 금천)의 호이다. 강석기는 인조반정 뒤에 이조판서와 우의정을 지냈으나, 소위 강변의 옥이 일어나 그의 가문은 역적 집안으로 화를 입었다. 「수재 종윤(秀才 鍾潤)에게 학문을 권하며」란 시가 들어있는데, 종윤은 이종윤(李鍾潤)을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

『명추(鳴樞)』에는 칠언율시 17편과 칠언절구 3편이 들어있다. 제목 중에 「수암산에 올라가 육률(六律)에 응하며」³⁷⁾라 하여 수암산이 등장하고, 「또 칠언율시를 짓다」³⁸⁾

37) 「수암산에 올라가 六律에 응하며」, 『전집』1, 458쪽.

에서도 “수암산이 청광(淸狂)한 나를 저버리지 아니하여”라 하여 윤봉길이 즐겨 다닌 수암산이 나온다. 이 시에서 자신을 ‘청광(淸狂)한 나’라고 하였다. ‘청광(淸狂)’이란 심성은 깨끗하나 규격을 벗어나 마음대로 행동함을 이른다 할 때 윤봉길이 자신의 성격을 표현한 것은 아닌가 한다. 「봄날 회포를 풀며」에서도 “나의 청광함과 짝할 만한 일없는 나그네”라고 하여 역시 자신을 청광(淸狂)하다고 말하고 있다. 「을축년 설날 아침에」에서는 “백발 드리운 어머니 생각 간절하고 붉은 옷 입었던 어린 시절 그림자”³⁹⁾고 하여 어머니를 그리며 어린 시절을 회고하는 구절이 나온다. 「수덕사에 대해 칠언절구 두수를 더하며」란 시도 있다. 이처럼 윤봉길과 관련이 깊은 시어들이 여럿 등장한다. 또 다른 시집에서는 작자가 노년임을 암시하는 표현들이 나온다. 그러나 『명추(鳴樞)』에서는 “노인들은 추위 피해 문을 굳게 닫고, 외로이 읊기 싫어 붓대를 물리친다”⁴⁰⁾라고 하여 노인을 제3인칭화 하고 있다. 「김종윤에게 주며」⁴¹⁾라는 시가 있는데, 여기에서 작자는 “그대는 내 친구가 아니라 곧 스승일세”라고 하였다. 이종윤은 면천 사람으로 윤봉길보다 연상이지만 함께 성주록 문하에서 수학하였다.

한편 『명추(鳴樞)』 뒷 부분에는 윤봉길 집안의 재산상태와 가족 관계 등을 적어놓았다. 부동산으로 삼교면 2리 279번지 624평, 송산리 22번지 488평, 대치리 32번지 1,401평, 덕산면 둔리 29번지 1,114평이라고 적었다. 「소화원년 추수기(秋收記)」와 「대정14년 지세기(地稅記)」도 있다. 윤봉길을 비롯한 부모와 5남3녀의 생년을 적은 기록도 있다. 이외에 「해명법(解名法)」과 혼인신고서 양식이 있다. 윤봉길이 대정 14년(1925년) 8월 30일 덕산면장 김건제(金建濟)에게 제출한 인감증명원도 있다.⁴²⁾ 또한 『명추(鳴樞)』는 다른 시집과 달리 세로로 10칸이 그려져 있는 편지지에 썼는데, 윤봉길의 글씨체로 보인다. 용지는 윤봉길의 「기사년일기」를 쓴 종지와 같은 것이며 글씨

38) 「또 칠언을시를 짓다」, 『전집』1, 459쪽.

39) 「을축년 설날 아침에」, 『전집』1, 462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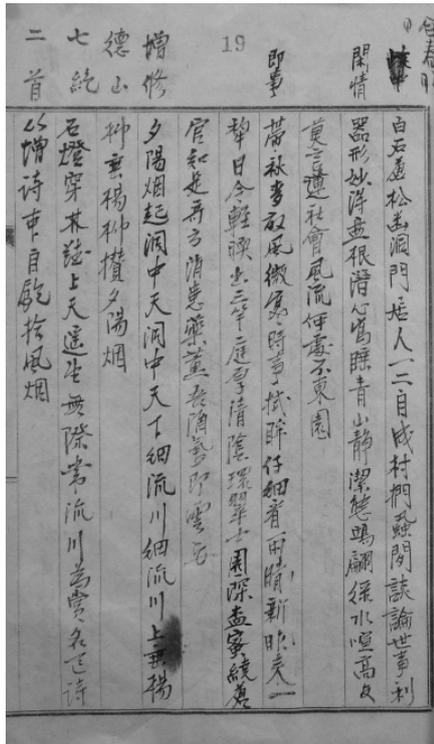
40) 「몹시 차가운 눈」, 『전집』1, 469쪽.

41) 「김종윤에게 주며」, 『전집』1, 465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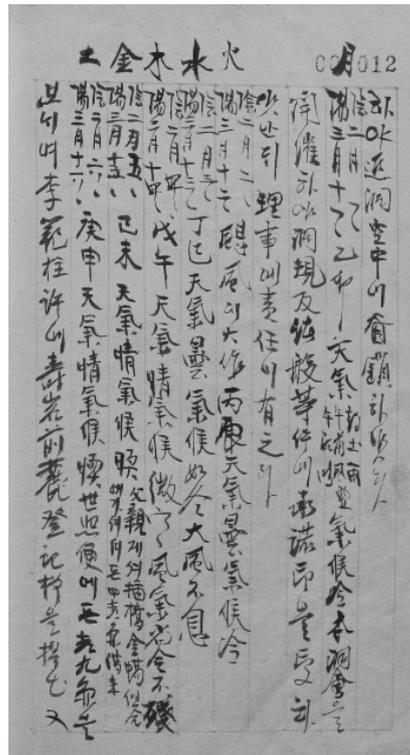
42) 부동산으로 삼교면 2리 279번지 624평, 송산리 22번지 488평, 대치리 32번지 1,401평, 덕산면 둔리 29번지 1114평이라고 적혀 있다. 소화원년 秋收記와 대정14년 地稅記도 있다. 윤봉길의 가족 관계인 부모와 5남3녀의 생년을 적은 기록도 있다. 이외에 ‘해명법’과 혼인신고서 양식이 있다. 윤봉길이 대정 14년 8월 30일 덕산면장 김건제에게 제출한 인감증명원도 있다.

체 역시 같아 보인다.

이와 같은 내용들로 보아 『명추(鳴椎)』의 작자를 윤봉길로 상정함은 어떤가 한다. 『명추(鳴椎)』는 표지에 ‘갑자’년이라 하여 1924년에 편집하였다 한다. 그러나 ‘을축년(1925년)’에 쓴 글이 있으며, ‘대정14년’(1925년)의 문서도 있는 것으로 보아 윤봉길이 오치서숙을 나온 후인 1924년부터 1925년간에 편집한 것으로 보인다.



〈그림 1〉 『명추』



〈그림 2〉 『기사년일기』

『옥타(玉唾)』 역시 작자는 확인하기 어렵다. 여기에는 시 8편과 서문이 실려 있는데, 다른 시집과는 달리 행초로 썼다. 시로는 혜정 강치헌이 지은 것이 5편, 매곡 성주륙의 시 1편, 아산 둔포인이 지은 시 1편, 그리고 두보의 시 「한별(恨別)」이 있다. 서문으로는 전우(田愚)가 지은 「매죽헌선생문집 중간후서(梅竹軒先生文集 重刊後序)」가 있다. 후반부에는 거미, 노송, 부채, 파리, 앵두, 석류 등 영물시(詠物詩)를 비롯하여 30여 편이 있다. 맨 끝에는 지산 김복한을 위한 만시인 「지산 어른에 대한 만시」가 있다.

『염락(濂洛)』은 염계(濂溪)의 주돈이(周敦頤), 낙양(洛陽)의 정호(鄭顥)와 정이(程頤), 관중(關中)의 장재(張載), 민중(閩中)의 주희(朱熹), 그리고 소강절(邵康節) 등의 시 모음집이다. 표지에 “壬戌 6월 晦日 畢 烏嶺書塾”이라고 한 것으로 보아 1926년 6월 마지막 날에 오치서숙에서 필사를 마친 것으로 보인다.

2. 유묵

1) 출향가(出鄉歌)

윤봉길이 남긴 유묵으로 가장 대표적인 것이 망명하면서 남긴 유묵인 ‘장부출가생 불환(丈夫出家生不還)’이란 ‘출향가(出鄉歌)’이다. 이 유묵에서 그의 망명 동기와 상해 의거의 정신이 압축적으로 잘 나타난다. 이 글은 연나라의 형가(荊軻)가 읊은 「역수가(易水歌)」의 “장사일거혜불부환(壯士一去兮不復還)”의 글귀와 같은 뜻으로, 형가와 같이 죽음을 무릅쓰고 거사를 감행하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⁴³⁾ 형가가 진시황을 암살하기 위해 떠나는 날 태자를 비롯한 연나라 사람들이 흰옷을 입고 역수(易水)에 나와 그를 배웅했는데, 이때 형가가 최후의 심정을 읊은 것이

風蕭蕭兮易水寒 (바람은 소슬하고 역수는 찬데)

壯士一去兮不復還 (장사 한 번 떠나면 다시 오지 못하네)

라는 「역수가」이다. 형가는 번우기의 머리와 연나라 지도를 이용해 진시황을 암살하려고 했지만 결국 성공하지 못하고 피살됐다.⁴⁴⁾ 윤봉길은 형가와 같은 심정으로

丈夫出家生不還 (사나이 집을 떠나면 살아서 돌아오지 않으리)

43) 형가의 「역수가」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마오쩌둥(毛澤東, 1893-1976)과 일본의 征韓論者 사이고 다카모리(西鄉隆盛, 1828-1877), 승려 겿쇼(月成, 1817-1856)의 출향시가 있다. 마오쩌둥은 17세에 집을 나서면서 “孩兒立志出鄉關 學不成名誓不還”(사나이 뜻을 세워 고향을 나서매, 배움으로 명성을 얻지 못하면 돌아오지 않으리)라고 하였다. 일본의 사이고 다카모리 역시 “男兒立志出鄉關 學不成名死復還”(남아 뜻을 세워 고향을 나섬에 배움으로 이름을 얻지 못하면 죽어도 돌아오지 않으리)라 하였다(도진순, 『강철로 된 무지개 陸史』, 창비, 2017, 106-108쪽).

44) 『사기』, 「형가열전」 참조.

이라고 다짐하고 집을 떠나 상해의거를 감행했다. 그의 거사는 형가와 달리 대성공이었으나 그 역시 형가처럼 살아서 돌아오지는 못했다.

미주에서 간행된 『신한민보』의 주필 홍언(洪彦, 1880-1951)은 상해의거 직후인 1932년 「윤봉길의사 홍구작격(虹口炸擊) 10수(首)」라 하여 상해의거를 찬양하는 5언 절구 10편을 발표하였다. 그 마지막 편에서 장량(張良)의 ‘박랑사(博浪沙) 거사’와 형가(荊軻)의 ‘역수(易水) 결의’를 들면서 윤봉길의 거사는 한국과 중국 두 나라의 원수를 갚은 것으로 천추에 빛날 것이라고 다음과 같이 읊었다.

博浪狙擊感恩忱 (博浪沙의 저격은 나라의 은혜에 감사하는 誠心이요)
易水悲歌知己音 (역수의 悲歌는 자기를 알아주는 지기의 노래로다)
壯士千秋斯一舉 (장사의 천년의 이 거사는)
投身兩國執仇心 (몸 바쳐 두 나라의 원수 갚은 마음이리)

홍언의 이 시는 윤봉길의 출향가(出鄉歌)를 보지 못했던 상태에서 작성된 것이다. 홍언은 윤봉길이 장량과 형가가 진시황을 죽이려는 심정으로 상해의거를 감행했음을 알고 있었던 것이다.⁴⁵⁾

2) 모수자천가(毛遂自薦歌)

『옥타(玉唾)』의 뒷 표지에 윤봉길이 지은 두 편의 글이 있음이 확인된다. 이 글들은 뒷 표지에 행서로 쓰여 있어 그동안 주목받지 못했다.⁴⁶⁾

45) 도진순, 위 책.

46) 『전집』 권1, 528쪽.



〈그림 3〉 윤봉길의 '모수자천가'('玉睡'의 뒷 표지)

오른쪽 옆으로 쓴 글은 윤봉길이 누구한테 보낸 편지로 보인다. 멀리 떨어져 있음이 초(楚)와 월(越) 같아 그동안 격조했음을 말하고 있다. 그러면서 찬바람에 건강에 유의할 것을 당부하는 글이다.⁴⁷⁾

그런데 왼편에 세로로 된 글은 그의 심사(心思)가 잘 드러나는 시로 주목된다. 다음과 같은 내용이다.

毛遂非如自薦 (毛遂가 만일 스스로 자신을 추천하지 않았다면)
 豈可穎脫 (어찌 재능을 드러낼 수 있었겠는가.)
 卞玉如非自售 (卞和가 만일 옥을 스스로 팔지 않았다면)
 竟止爲石 通鑑卷3 尹禹儀 (끝내 돌에 그쳤으리라. 통감권3 윤우의)

47) 오른쪽 글은 다음과 같다.

隔如楚越 (초와 월 같이 소식이 막히니)
 是何平日情素乎 (이 어찌 평소의 정이리오)
 仍伏詢朔風栗烈 尹奉吉 (찬바람이 매서운데 안부 여쭙니다. 윤봉길)

이 시 ‘모수자천가(毛遂自薦歌)’에서 작자는 고사성어인 모수자천(毛遂自薦)과 화씨지벽(和氏之璧)을 인용하여 자신의 결의를 나타낸 것으로 보인다. 작자는 ‘윤우의(尹禹儀)’라고 밝힌 것으로 보아 윤봉길이 틀림없다. 모수자천(毛遂自薦)이란 『사기(史記)』 평원군열전(平原君列傳)에 나오는 말로, 전국시대에 진(秦)이 조(趙)나라를 쳐들어왔을 때 모수(毛遂)란 조(趙)나라 사람이 자신을 스스로 사신으로 추천하여 초나라에 가서 조와 초의 합종을 성공시켰다는 고사이다.⁴⁸⁾

화씨지벽(和氏之璧)이란 『한비자(韓非子)』의 「화씨편(和氏篇)」에 나오는 말로 화씨의 구슬이란 뜻이다. 전국시대 초나라의 변화씨(卞和氏)가 형산(荊山)에서 옥의 원석을 발견하여 려왕(厲王)과 무왕(武王)한테 바쳤으나 평범한 돌이라고 하여 발뒤꿈치가 잘리는 월형(刑)에 처해졌다. 문왕 때에 비로소 명옥(名玉)임이 밝혀져 문왕은 그에게 상을 내리고 그 이름을 따서 화씨지벽(和氏之璧)이라 명명했다는 고사이다.⁴⁹⁾

윤봉길은 위 시에서 “모수가 스스로를 추천하지 않았다면 어찌 자신의 재능을 드러낼 수 있었겠는가”라면서 모수처럼 자신도 스스로 몸을 일으켜 나라를 위해 일할 뜻을 밝혔다. 이러한 정신으로 그는 상해로 망명길을 떠났으며, 김구를 찾아가 상해의 거를 자원했던 것이다. 그는 또한 “변화(卞和)가 만일 옥을 스스로 팔지 않았으면 끝내 돌에 그쳤으리”라고 하였다. 여기에서 그는 자신도 변화(卞和)와 같은 고초를 겪겠지만, 자신을 팔아 나라를 위해 몸을 바치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시로써 표현한 것임을 알 수 있겠다.

위 시의 끝 부분에 ‘『통감(通鑑)』 권3 윤우의(尹禹儀)’라고 쓴 것으로 보아 이 글은 그가 『통감』 권3을 읽다가 느낀 바가 있어 결연한 의지를 시로 읊은 것으로 보인다. 『통감』 권3(「진시황 하(秦始皇 下)」)에는 장양(張良)이 진시황을 박랑사에서 살해하려

48) 毛遂自薦이란 모수란 이가 스스로를 추천했다는 뜻이다. 秦이 趙의 수도 한단을 포위하자, 조왕은 평원군을 초나라에 보내 합종을 맺음으로써 이를 격퇴하려 하였다. 평원군은 문하에 출입하는 식객 중 20명을 뽑았는데, 毛遂는 스스로 자기를 추천하였다[毛遂自薦]. 평원군이 “현인이란 주머니 속의 송곳과 같아서[囊中之錐]가만히 있어도 드러나는 법인데, 3년 동안 나는 당신에 관한 말을 들은 적이 없다”라고 하자 모수는 “이제 주머니에 넣어 주십시오”라 하고 초나라로 함께 갔다. 초왕과의 회담에서 식객 19명이 성과를 내지 못했다. 평원군이 모수에게 방법을 묻자 모수는 칼을 빼어든 채 초왕한테 나아가 “당신은 수많은 군사를 거느리고 있지만 지금 당신의 목숨은 내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합종은 楚나라도 위한 것이지 趙나라만 위한 것은 아닙니다”라고 설득하여 마침내 합종을 성공시켰다(『史記』, 「平原君列傳」 『통감절요』 권1 참조).

49) 『韓非子』, 「和氏篇」. 『통감절요』 권1 참조.

한 고사가 있으며, 권2(「진시황 상(秦始皇 上)」)에는 형가가 진시황을 살해하려는 고사가 자세히 실려 있다. 그리고 모수자천(毛遂自薦)과 화씨지벽(和氏之璧)의 고사는 『통감절요』 권1에 있다. 이로부터 위 ‘모수자천가(毛遂自薦歌)’ 끝 부분에 ‘『통감』 권3 윤우의(尹禹儀)’라고 적은 것은 그가 『통감』 권2와 권3의 위 고사를 읽고 『통감』 권1에 나오는 모수자천(毛遂自薦)과 화씨지벽(和氏之璧)의 고사성어로 자신의 의지를 시로 읊은 것으로 보인다.⁵⁰⁾

윤봉길이 망명 후 모친께 보낸 편지에서 자신이 맹목적으로 ‘출가(出家)’하지 않았음을 밝혔다.⁵¹⁾ 그는 집에서 두 주먹으로 방바닥을 두드리며 ‘천사만려(千思萬慮)’하였으며, 부모형제와 처자의 사랑보다 더 굳센 ‘강의(剛毅)한 사랑’이 있음을 알았다고 하였다. 그리고 집과 강산과 부모를 버리고 길을 떠날 각오를 했다고 하였는데, 모수자천가(毛遂自薦歌)와 같은 글로 보아 그의 ‘장부출가생불환(丈夫出家生不還)’이라는 결심은 한학을 수학하던 이른 시기부터 키워왔던 것으로 보인다.

IV. 맺는말

윤봉길은 보통학교를 자퇴하고 서당에 들어가 한학을 수학하였다. 그의 스승으로는 최은구, 이광운, 최병대, 성주록 등이 거론된다. 그러나 그의 사상 형성에 큰 영향을 준 이는 성주록이다. 성주록은 성삼문의 절의정신을 가학으로 이어받은 한학자이다. 그의 학문 연원은 알 수 없으나, 예산과 흥성 일대의 척사론적 유학의 영향권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가 윤봉길을 흥성의 유교부식회에 데리고 가서 더 큰 공부를 하게 했음으로 보아 이를 짐작하게 한다. 유교부식회는 흥주의병장 김복한(金福漢)의 유지(遺志)로 설립한 단체로 충의심을 양양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윤봉길은 이 회

50) 『통감절요』 권2 「秦始皇 上」, 『통감절요』 권3 「秦始皇 下」 참조.

여기에서의 『통감』은 『통감절요』로 보인다. 당시 서당에서는 『통감절요』를 읽으면서 이를 『통감』이라고 함이 보통이었다. 『통감절요』 권3에 張良의 고사, 권2에는 형가의 고사가 있다. 毛遂自薦 고사는 『통감절요』 권1 周나라 난왕 32년조, 和氏之璧 고사는 같은 책 난왕 57년조에 설명되어 있다.

51) 윤봉길, 「사랑하시는 어머니에게 올림」(1930년 10월 18일), 『전집』 권1, 845-847쪽.

(會)에 참여하면서 홍주의병의 항일정신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그는 또한 《동아일보》나 《개벽》을 보면서 신학문에 대한 소양을 넓혔으며, 주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적국을 알기 위해서는 그들의 말을 배워야 한다면서 일본어도 독학하였다.

윤봉길은 서당에서 수학하면서 특히 한시에 재능을 보였다. 그가 남긴 것으로 알려진 한시집으로는 『한시집(漢詩集)』, 『임추(壬樞)』, 『명추(鳴樞)』, 『옥타(玉唾)』, 『염락(濂洛)』 등이 있다. 그런데 이미 지적된 바와 같이, 『염락(濂洛)』은 중국 송나라 유학자들의 시를 모아놓은 것이다. 나머지도 작자의 나이나 교유한 사람들로 보아 윤봉길의 창작시로 보기는 어렵다. 오히려 스승인 성주록(成周錄)이나 그 친구인 강치헌(姜致憲) 등의 시를 모아 놓은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그중에 『명추(鳴樞)』는 시어 중에 ‘수암산’, ‘수덕사’가 등장하고 친구인 김종윤을 ‘그대는 내 친구가 아니라 곧 스승 일세’라고 하였다. 뒷 부분에 집안의 재산 상태와 ‘윤봉길 인감증명원’이 있다. 또 다른 시집과 달리 용지가 「기사년일기」를 쓴 종이와 같은 것이며 글씨체 역시 같은 것으로 보아 『명추(鳴樞)』의 작자를 윤봉길로 상정함은 어떤가 한다.

윤봉길의 ‘장부출가생불환(丈夫出家生不還)’이란 출향가(出鄉歌)와 『옥타(玉唾)』 뒷 표지에 있는 모수자천가(毛遂自薦歌)는 그의 망명 동기와 상해의거의 정신이 압축적으로 잘 나타난다. 출향가(出鄉歌)는 형가(荊軻)가 읊은 「역수가(易水歌)」의 “장사일 거해불부환(壯士一去兮不復還)”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죽음을 무릅쓰고 거사를 감행하겠다는 결연한 의지가 잘 표현되었다. 모수자천가(毛遂自薦歌)는 이 글에서 처음으로 공개된 윤봉길의 한시이다. 여기에서 윤봉길은 조(趙)나라의 모수(毛遂)처럼 자신도 스스로 나라를 위해 몸을 일으킬 것이며, 변화(卞和)와 같은 고초를 겪겠지만, 나라를 위해 자신을 희생하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시로써 표현하였다. 모수자천가(毛遂自薦歌)와 같은 글로 보아 그의 ‘장부출가생불환(丈夫出家生不還)’이라는 결심은 이미 수학 시기부터 키워왔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정신으로 그는 상해로 망명길을 떠났으며, 김구를 찾아가 한민애국단에 가입하고 상해의거를 자원했다. 그의 거사는 형가와 달리 대성공이었다. 그러나 그 역시 형가처럼 살아서 돌아오지는 못했다.

제1주제 토론

매헌 윤봉길의 修學과정과 사상적 배경

김용달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 소장)

1. 연구의 의의

김상기 교수는 이 발표문의 주석에도 소개되어 있지만, 그동안 매헌 윤봉길 의사의 상해의거 그리고 생애와 사상에 대해 깊은 연구를 해온 학자이다. 이번 매헌윤봉길기념관 재개관 사업에도 매헌학술원 원장으로서 학술부문의 책임을 맡아 훌륭한 전시 기획과 내용으로 매헌윤봉길기념관이 한층 새롭고 알찬 기념관으로 거듭나게 하는데 크게 공헌하였다.

아시다시피 매헌의 일생은 크게 세 시기로 나눌 수 있다. 제1시기는 수학시기, 제2시기는 농촌계몽운동시기, 제3시기는 중국 망명시기이다. 물론 이들 시기는 주요한 역사적 사건이나 인물과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다.

예컨대 수학시기는 3.1운동과 성주록 선생, 농촌계몽운동시기는 광주학생독립운동, 그리고 중국 망명시기는 김구와 ‘1.28상해사변’이다. 이 가운데 농촌계몽운동가에서 의열투쟁가로 변신하는 중국 망명시기의 연결고리가 깊이 천착되어야 매헌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고 본다.

김상기 교수도 문제를 제기하였지만, ‘농촌계몽운동을 하다가 어떤 계기로, 왜 혁명운동가로 전환하였는지’가 밝혀져야 한다. 그래야 매헌의 웅대한 사상과 독립운동사는 물론 세계 반침략 평화운동으로 상해의거가 지닌 역사적 의의가 더욱 드러날 것으로 생각한다.

오늘, 김상기 교수의 발표문이 가진 연구의 의의도 바로 여기 있다. 농촌계몽운동가에서 의열투쟁가로 변신하는 연결고리를 이 연구가 더욱 튼튼하게 하였다는 점이다. 토론자는 이번 주제 발표에 대해 특별히 문제를 제기할 것은 없지만, 몇 가지 의견을 얘기하며 토론에 대신하고자 한다.

2. 몇 가지 논찬과 의문

첫째, 초기 수학과정에서 만난 최은구

매헌이 덕산공립보통학교를 자퇴하고 최은구 문하에서 수학하면서 그로부터 일제의 조선토지조사사업의 수탈성을 알게 되었고, 나아가 최은구가 김광의 ‘윤봉길전’에 나오는 이광운이 아닌가 했는데, 이는 매우 합리적인 추론으로 생각한다. 매헌이 상해 망명시기 최은구가 생존에 있었기에 실명을 말하지 않고, 가명을 사용한 것 아닌지 더 고민해야 할 문제이다. 한 걸음 더 들어가 보면 매헌이 농촌계몽운동에 힘쓴 배경 가운데 하나도 여기서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둘째, 성주록과 유교부식회

김 교수는 성주록이 성삼문의 후손이고 간재학과의 학문지상주의를 비판하며 지행합일의 실천적 사고를 갖고 흥주의병을 숭상하던 인물임을 밝히고, 그로부터 성삼문의 절의정신과 흥주의병의 민족정신을 배웠다고 했다. 더 나아가 흥주의병의 유지를 받드는 ‘유교부식회’에 추천하여 교류하게 하였다고 논급했다. 매헌의 이런 성주록과의 사제관계는 물론 유교부식회와의 교류관계는 김 교수가 실증적 자료를 처음 발굴 소개한 사실로, 상해의거의 사상적 배경과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단서의 발견이라고 생각한다.

셋째, 신학문 수학

매헌이 척사주의적 사고를 뛰어넘어 근대 민족주의자로 성장한 것은 근대학문의 자

습과정이 크게 작용했다고 본다. 물론 매헌은 전형적인 ‘생이이지자(生而知之者)’의 품성을 타고 났지만, ‘학이지지자(學而知之者)’의 품성을 타고 났지만, ‘學而知之者’ 모습이 더욱 강하다고도 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매헌이 ‘동아일보’나 ‘개벽’이나 ‘농민독본’을 통해 근대 사조와 지식을 습득하며 근대적 민족주의자로 성장하고, 자습한 일본어가 상해 의거 당시 매우 유용하게 이용된 사실을 설파한 것도 매우 돋보이는 점이다.

넷째, 한시집과 유묵

매헌의 한시집과 유묵으로 알려진 저작들을 폭 넓게 고찰하여 내용을 파악하고 저술 여부를 따져 ‘親作’ 여부를 밝힌 것은 큰 수확이다. 그동안 매헌의 저작들에 대해 친작 여부 논란이 많았지만, 이번 발표로 크게 해소될 것으로 생각한다. 이 점 또한 이번 연구의 큰 성과로 보인다. 특히 그 유명한 매헌의 출향가의 유래가 진시황을 처단하러 떠나면서 결연한 의지를 표현한 형가의 ‘역수가’에 있다고 본 견해, 그리고 매헌의 저작으로 ‘모수자천가’를 새로 발견하고, 이들을 상해의거와 관련하여 평가한 견해는 탁견이라고 생각한다.

오늘의 발표로 매헌의 상해의거가 한 때의 해프닝이나 백범의 권유로 이루어진 ‘종속변수’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오랜 동안 온축해온 매헌의 주체적 사상과 의지 그리고 정세 인식에 뿌리를 둔 ‘독립변수’로 결행된 의거라는 점이 다시 한 번 밝혀졌다.

마지막으로 토론자가 평소 가졌던 의문에 대해 발표자의 의견을 듣고 싶다. 매헌이 지행합일의 실천적 민족혁명가라는 점은 두말 할 나위도 없다. 그래서 매헌은 온축한 지식과 지성을 농촌계몽운동에 쏟아 부었다. 농촌 야학을 열고, 농민독본을 만들고, 월진회를 조직하고, 수암체육회 결성하는 등 농민의 의식개조와 농촌의 생활개선에 크게 힘썼다. 그런 매헌의 출향이 지금까지 논급해온 광주학생독립운동만으로 이해하기에는 너무 충동적이다. 더 큰 주체적 계기는 없는지 발표자의 고견을 듣고 싶다.

제 2주제 발표

윤봉길 의사 자작시의 민족사상

허경진

(연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I. 머리말

II. 기존의 연구사

III. 윤봉길의 문학 공부

1. 문학 공부 과정에 대한 기록
2. 집안에서의 교육
3. 전통적인 서당 교육
4. 서당에서 지은 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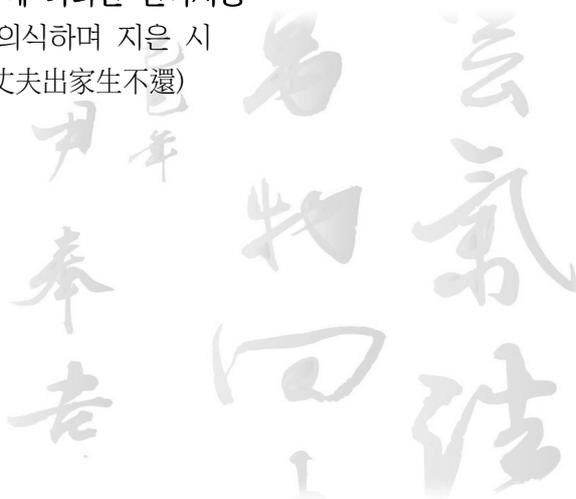
IV. 윤봉길 의사의 이름과 민족의 의미

1. 매헌(梅軒)이라는 호에 담긴 뜻
2. 윤봉길 의사 이전 시기의 민족이라는 용어

V. 자작으로 인정된 시에 나타난 민족사상

1. 1차적인 독자를 의식하며 지은 시
2. 장부출가생불환(丈夫出家生不還)
3. 피
4. 땅
5. 白凡先生

VI. 맺는말



I. 머리말

매헌윤봉길의사기념관에서 「윤봉길 의사 자작시의 민족사상」이라는 제목으로 발표를 부탁한 이유는 두 가지라고 생각된다. 하나는 윤봉길 의사와 민족사상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라는 점이고, 다른 하나는 윤봉길 의사의 시로 알려진 작품 가운데 일부는 윤봉길 의사가 직접 지은 것이 아니라 남의 시를 공부삼아 베꼈거나, 베끼지는 않았더라도 관심이 있어서 보관하여 읽었던 작품이라고 생각된다는 점이다.

이 경우에 보물 제568호로 지정된 한문 시문집 가운데 어디까지가 윤봉길 의사의 작품인지, 기존 연구성과가 확실치 않다. 그의 시문집을 번역했던 진영미도¹⁾ “윤봉길 의사가 직접 짓고 쓴 것으로 알려진, 그로 인해 보물 568호로 지정된 시문집 『옥타(玉唾)』·『한시집(漢詩集)』·『명추(鳴樵)』·『임추(壬樵)』·『염락(濂洛)』은 앞서 살펴본 여러 가지 정황으로 미루어 볼 때 윤의사의 시문집은 분명 아니다.”²⁾고 단언하였다. 그러면서도 “위의 시문집이 윤의사와 전혀 무관한 것은 아니다. 『임추』 속에 윤의사가 직접 지은 시가 한 수 들어 있을 뿐만 아니라 스승 매곡 성주록의 한시도 들어 있고, 나아가 스승의 벗인 혜정 강치헌의 한시 역시 여러 수 실려 있다.”고 그 중요성을 인정하였다. 아직도 확인해봐야 할 점이 많다는 뜻이다.

따라서 이번 발표에서는 보물 제568호로 지정된 한시문집 5종에 실린 340수³⁾ 가운데 윤봉길 의사의 자작시를 하나하나 검증하며 찾아내기보다는, 확실한 자작시를 중심으로 민족사상을 고찰해보기로 한다. 자작시의 범주는 한시뿐만 아니라 한글로 된 다양한 형식의 시를 모두 포함한다.

1) 진영미·김승일 역, 『시인 윤봉길과 지인의 서정시 340수』, 역사공간, 2004

2) 진영미, 「尹奉吉 시문집 재고」, 《漢文教育研究》제23호, 2004, 181쪽.

3) 340수는 진영미·김승일 번역 시문집의 제목에 나온 숫자인데, 여러 자료에서 한시와 한글시를 모두 합한 숫자이다.

II. 기존의 연구사

윤봉길(尹奉吉, 1908-1932)⁴⁾에 관한 논문은 백여 편, 단행본도 몇백 권이나 될 정도로 기존의 연구성과가 방대하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 사이트에서 ‘윤봉길’을 검색하면 학위논문이 15편, 국내학술지논문이 98편, 단행본이 770권, 연구보고서가 7건이나 검색된다. 이 가운데 대부분은 윤봉길을 단독으로 연구한 성과이며, 일부는 논문이나 단행본 가운데 부분적으로 윤봉길을 다룬 성과이어서 제목에는 ‘윤봉길’이 나타나지 않고 핵심어로만 나타나 있다.

이처럼 방대한 기존 연구성과 가운데 대부분은 독립운동과 민족정신에 집중되어 있다. 논문과 단행본을 통합하여 검색어를 ‘윤봉길 독립’으로 치면 434건, ‘윤봉길 민족’으로 치면 357건이 검색된다. 그러나 ‘윤봉길 문학’으로 치면 124건으로 줄어드는데, 관련 학위논문 1건과 학술지논문 8건이 모두 윤봉길의 문학을 다룬 것이 아니라 윤봉길에 관한 문학을 다룬 것이다. 즉 윤봉길의 문학에 관한 연구는 거의 없었던 셈이다.

다시 ‘윤봉길 한시’로 좁혀서 검색하면 ‘윤봉길과 한시’에 관한 학술지 논문 2편이 검색된다.⁵⁾ 그러나 이 두 편의 논문도 진영미의 논문은 보물 제568호로 지정된 윤봉길 관련 시문집이 모두 본인의 작품은 아니라는 내용이고, 박종훈의 논문은 상해 의거를 보고 민족정신을 느꼈던 지방 시인의 작품을 소개한 것이어서, 윤봉길 문학에 관한 논문은 아니었다.

매헌윤봉길의사기념관에서 「윤봉길 의사 자작시의 민족사상」이라는 제목으로 발표를 부탁한 이유는 결국 이번 학술대회에서 윤봉길을 ‘민족적인 시인’으로 평가해 달라는 뜻이라고 생각된다. 윤봉길은 그 동안 시인으로 인식되지 않았는데, 그가 서당에서 시를 배운 과정을 추적하고, 그가 지은 자작시를 찾아내어, 그의 민족정신을 되살펴보고자 한다.

4) 객관적으로 서술하기 위해, 본문에서는 ‘윤봉길 의사’를 ‘윤봉길’로 표기한다.

5) 진영미, 「尹奉吉 시문집 재고」, 《漢文教育研究》제23호, 2004

박종훈, 「반양시사(潘陽詩社)의 활동 양상과 작품 세계」, 《溫知論叢》41집, 2014.

III. 윤봉길의 문학 공부

1. 문학 공부 과정에 대한 기록

윤봉길의 전기는 여러 종류가 출판되었지만, 대부분 1차 사료를 바탕으로 하여 약간의 자료를 보완하고 재구성한 것들이다. 그의 문학 공부 과정을 살펴볼 수 있는 1차 사료는 두 가지이다.

첫째 사료는 윤봉길이 상해에서 거사하기 이틀 전인 1932년 4월 27일, 자신의 신상을 후세에 알리기 위해 자술한 「이력서(履歷書)」인데, 일종의 유서이다.

거사 장소인 흥구공원 현장을 사전에 답사하고 숙소인 동방여관으로 돌아왔을 때, 김구가 찾아와 “최후를 앞두고 경력과 감상 등을 써 달라”고 하자, 윤봉길은 즉석에서 평소 가지고 다니던 중국제의 작은 수첩에 비장하고 절절한 필치로 「자서약력」과 유족시 4편을 써서 김구에게 건네주었다.

본 친필이력서와 선서문은 국립중앙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다.⁶⁾

윤봉길 본인이 기록한 것이기에 자신의 생애에 관한 가장 정확한 자료라고 할 수 있지만, 거사(擧事)를 앞두고 긴장된 상황에서 짧은 시간에 기록했을 뿐만 아니라 ‘최후를 앞두고 경력과 감상 등을 써서 남기는’ 것에 목표를 두었기에 공부하는 과정이 완전하게 기록되지는 않았다. 학력과 경력을 완전하게 기록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매헌윤봉길전집 제1권 시문과 농민운동』의 편집자도 「윤봉길(尹奉吉) 이력(履歷)」의 주에서 “윤 의사는 상해 파견 일본군 헌병대에서 신문하는 헌병에게 「자서이력」 상의 년도와 날짜는 김구의 갑작스런 요구로 급히 써서 다소 틀릴 수 있다고 진술했다(1932년 10월 11일 청취서)”⁷⁾고 밝혔다.

둘째 사료는 윤봉길이 상해에서 거사하기 전에 1년 남짓 침식을 같이 하였던 친구 김광(金光, 1909-1944)이 거사 직후부터 집필하기 시작하여 1년 뒤인 1933년에 상해

6) 매헌윤봉길전집편찬위원회 편, 『매헌윤봉길전집 제1권 시문과 농민운동』, 매헌윤봉길의사기념사업회, 2012, 37쪽.

7) 같은 책, 39쪽.

프랑스 조계지 한광사(韓光社)에서 출판한 중국어판 전기 『윤봉길전(尹奉吉傳)』이다. 이 책의 한국어판 번역자 이민원은 「역자가 드리는 글」에서 저자 김광과 이 책의 성격에 대하여 이렇게 설명하였다.

이 책을 발간한 김광이란 분은 본 이름은 고영희(高永喜)로, 한국광복군 총사령부의 정훈처에서 활동한 인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김광 선생은 윤봉길의사를 매우 잘 아는 벗으로서, 윤의사가 상해에서 의거를 행하기 전에 1년 여 동안 침식을 같이 하였던 분입니다. 그는 윤봉길의사와 함께 거주하는 동안, 사소한 일부터 가슴속 깊은 생각까지 터놓고 이야기하였을 정도였습니다. 김광 선생은 윤의사의 거사 이후 윤의사의 일기 및 잡록 몇 권을 토대로 1년여 동안에 이 전기를 완성하였습니다.⁸⁾

저자 김광은 『윤봉길전』 서문에서 자신이 윤봉길의 전기를 짓게 된 동기를 다음과 같이 분명하게 기록하였다.

1932년 4월 29일 윤봉길 의사는 상해 홍구공원(虹口公園)에서 의거를 감행하여 상해사변 당시 흥포한 만행을 자행한 일본 제국주의의 군 수뇌들을 폭살하였다. 이 의거는 우리 한국 2천만 민족의 정신을 널리 현양했을 뿐만 아니라, 한·중 양국에게 절실했던 항일행동의 표현이었다. 윤의사의 이런 위대한 정신은 실로 세상 사람들이 흠모해 마지 않는 바다!

윤의사는 우리 중·한 양국 공동의 한일을 위해 선봉적 역할을 한 용사(勇士)이며, 그는 또한 우리 양국의 혁명지사를 대신하여 일본 제국주의의 잔혹한 무단통치 아래서 한 줄기의 밝은 길을 개척한 선구자이다. 우리는 한편으로는 윤의사의 이와 같은 열렬한 희생정신을 저버리지 않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는 위대한 사적을 반드시 천추만세까지도 찬양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또한 윤의사처럼 항일을 유일한 목표로 삼아야 할 것이다.

저자는 과거에 윤봉길의사를 매우 잘 아는 벗이었다. 윤의사는 상해에서 의거를 행하기 전에 1년 여 동안 나와 침식을 같이 하였다. 이렇게 함께 거주하는 기간 동안, 서로 간에 사소한 일로부터 가슴속의 깊은 뜻까지도 흥금을 터놓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므로 저자는 윤의사의 상세한 정황을 모두 잘 알고 있다. 윤의사의 거사 이후 윤의사의 일기 및 잡록 몇

8) 김광 저, 이민원·양수지 역주, 『나의 친구 윤봉길』, 도서출판 선인, 2017, 34쪽

권을 얻어 1년이 넘는 기간 소비해서야 비로소 이 책을 완성하게 되었다. 그 내용은 비록 일반 소설처럼 재미있지는 않지만, 정성을 다하여 상세한 내용들을 담고 있다.⁹⁾

김광은 한·중, 또는 중·한 두 나라를 강조했는데, 이 책을 출판하는 나라가 중국이고, 중국 독자를 상대로 썼기 때문에 계속 양국을 강조한 것이다. 그는 한국광복군 총사령부 정훈처 선전과장이자 기관지 『광복』의 주필이었기에 항일투쟁을 위한 한중 공동전선을 펼치기 위해 1차 독자를 중국인으로 상정하고, 서투른 중국어로 전기를 쓰느라 심혈을 기울였다. 그가 서문에서 “내용 중 문자와 문장 구조에 틀림없이 많은 착오와 모순점이 있음을 피할 수 없을 것”¹⁰⁾이라고 염려한 것처럼, 이 전기와 1차 번역문이 2012년에 발간된 『매헌윤봉길전집』 제6권에 함께 실렸지만, “본문 중에 중국식 문장과 한국식 한문 표현이 뒤섞여 있어 중국인이든 한국인이든 홀로는 정확하게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적지 않”¹¹⁾았기 때문에 2017년에 새로운 번역본이 간행되었다.

김광의 중국어판 『윤봉길전(尹奉吉傳)』은 상해 의거 이후 살벌해진 국내에서 출판할 수 없었던 책이었을 뿐만 아니라, 윤봉길의 다양한 학업과정과 그 배경까지 설명했다는 점에서 본인의 이력서가 기록하지 못했던 공백들을 메워준다.

따라서 이 두 가지 1차사료를 바탕으로 하고 다른 자료들을 보완하여 윤봉길의 문학 공부와 자작시에 나타난 민족의식을 찾아보고자 한다.

2. 집안에서의 교육

모든 교육은 가정에서 시작되는데, “윤의사의 천부적인 자질은 매우 총명하여, 세 살 때부터 할아버지로부터 글을 배웠는데, 그의 종알종알 책 읽는 소리가 매우 우렁차 사람들을 감동시켰다.”¹²⁾ 이 부분은 매월당 김시습이 말도 하기 전에 한자부터 가

9) 같은 책, 47-48쪽.

10) 같은 책, 48쪽.

11) 같은 책, 34쪽.

12) 같은 책, 74쪽.

르쳤던 이야기를 연상케 한다.

아버지 윤희(尹埴)은 평범한 농부였지만, 어머니 김원상(金元祥)은 친정에서 『천자문(千字文)』과 『소학(小學)』까지 배워 한문학적인 소양을 지녔다.

집안과 서당을 연결해주는 고리는 큰아버지와 어머니이다. “윤봉길은 6살부터 백부가 훈장으로 있던 서당에서 천자문을 수학하였다. 윤봉길은 어렸을 때 심한 말더듬이였다. 그의 어머니는 아들의 말더듬을 바로잡기 위하여 아들이 천자문을 배우고 오면 밤에 반복하여 발음 지도를 하였다.”¹³⁾

서당 훈장은 『천자문(千字文)』을 한번 읽어만 주고, 설명하지 않는다. 서당 훈장의 부정확한 발음과 무성의한 교육방법을 풍자한 속담, “나는 바담풍 해도 너는 바람풍해라”라는 속담이 전해지거니와, 다산 정약용이 『천자문(千字文)』의 문제점을 지적한 이유 가운데 하나도 발음 분별의 어려움이다.

어린아이들이 혼동을 일으켜 글자의 뜻을 분별하지 못한다. ‘김을(감을) 현(玄)’자를 감는다는 전(纏)자의 뜻으로 해석하며, ‘누를 황(黃)’자를 누른다는 압(壓)자로 해석한다.¹⁴⁾

어머니가 윤봉길과 함께 『천자문(千字文)』의 발음을 반복하여 지도한 것은 가장 효과적인 복습이었으며, 이러한 가정교육을 통해 윤봉길의 한문 능력이 나날이 나아졌다.

3. 전통적인 서당 교육

조선시대 사람들은 양반 상민 가리지 않고, 살림이 크게 어렵지 않으면 대부분 서당에 다니며 공부했다. 보통 5세에 입학하여, 능력에 따라 진도가 나아갔다. 대부분의 서당은 방 하나에 나이나 진도가 다른 학생들이 10여명 뒤섞여 있었기 때문에, 통일된 교재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학생의 재능과 복습, 연습하는 시간에 비례하여 진도가

13) 김상기, 『자유의 불꽃을 목숨으로 피운 윤봉길』, 역사공간, 2013, 15-16쪽.

14) 허경진, 『주해 천자문』, 알마, 2014, 20쪽 재인용.

달라졌다. 상민들은 『천자문(千字文)』을 마치면 상당수가 학업을 중단하였다. 이름이나 축문 정도 쓸 줄 알면 더 이상 배워야 할 학업 동기나 필요성이 없었던 것이다.

양반들은 일차적으로 과거시험 응시에 뜻을 두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수준에 오르면 과거시험 공부를 했다. 진사 1차시험이 시를 짓는 것인데, 절구나 율시가 아니라 36구 안팎의 과시(科詩)로 시험하였다. 서당에서 『천자문(千字文)』, 『소학(小學)』, 『명심보감(明心寶鑑)』 등을 떼면 대부분 『추구(推句)』를 가르쳤는데, 아동들이 이해하기 쉬운 글자로 이루어진 오언시(五言詩) 연구(聯句) 백여 수를 필사하여 외우고, 이를 본받아 간단한 시를 연습삼아 지어보게 하는 것이다.

따라서 시인이 되려는 청소년이 아니더라도 시를 배우고, 지었으며, 문학청년이 되었다. 시인이 아니어도 시를 지었던 셈이다. 윤봉길의 경우에도 시인이 되려는 생각은 없었지만 시를 배우고, 지었다. 문과(文科) 응시의 자격시험이라고 할 수 있는 진사시(進士試)와 생원시(生員試)를 준비하기 위해, 서당 공부가 기본적으로 문학(文學) 공부와 경학(經學) 공부 중심이었기 때문이다.

윤봉길이 시를 배우고 짓게 되는 과정은 그가 기록한 이력서(履歷書)에 대략 기록되어 있다.

七歲에 就學于私塾인데 八九同介中에 聰明하였슴으로 先生의게와 隣里父老들이 才童이라 呼名하였다. 其 反面에 또 하나의 別號는 「살가지 狸」 였다. 性質이 남달이 굳세고 조금하였슴으로 同輩들과 다툼에 敗한 적이 업섯스며 或은 接長한테 맞드라도 눈물 흘이고 울지 안니하고 되이려 辱說을 하였스며 書堂 規則違反으로 선생이 종아리 치라고 거더슬라 하면 두 눈을 크게 뜨고 말동말동 쳐다만 보았다.¹⁵⁾

서당에는 7세에 처음 들어갔는데, 훈장의 이름은 밝히지 않았다. 당나라 문장가 한유(韓愈)가 〈사설(師說)〉에서 “저 어린아이의 스승은 책을 가르치고 구두(句讀) 떼는 것이나 익히게 하는 자이지, 내가 말하는 ‘도를 전하고 의혹을 풀어주는 자’는 아니다[彼童子之師，授其書而習其句讀者也。非吾所謂傳其道，解其惑者也]”고 하였는데,

15) 매현윤봉길전집편찬위원회 편, 『매현윤봉길전집 제1권 시문과 농민운동』, 매현윤봉길의사기념사업회, 2012, 40쪽

윤봉길도 이 시기 서당의 훈장은 도를 전하는 스승이라기보다 구두 떼는 것이나 가르치는 스승이라고 생각하여 이름을 기록하지 않은 듯하다.

윤봉길도 11세가 되던 1918년부터 1년 남짓 덕산공립보통학교에 다녔지만, 동화교육이 목적이었던 신식 학교에서 한시 작법을 가르치지 않는었다. 따라서 그의 문학 공부는 서당교육과 독서에서 이루어졌다.

이 시기에 각 지방에 공립학교가 세워지면서 서당에 다니던 학생들이 상당수 공립학교로 전학하였는데, 김광은 “학교에서 아동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 완구 유희 등을 시설하여 학생들로 하여금 한학에 대한 관심을 없애지게 하여, 입학자의 흥미를 증가시켰고 ... 또 한쪽으로는 강제수단으로 입학 학령 전의 아동들을 조사하여 강제로 입교시켰다”¹⁶⁾고 설명하였다. 그러나 식민지교육에 반감을 사진 학부모들이 늘어나면서 서당으로 되돌아가는 학생들이 늘어났는데, 윤봉길도 1년 뒤에 서당으로 되돌아갔다. 삼일운동을 목격하고, 민족의식이 살아난 것이다.

윤의사는 일본 제국주의의 교육기관에서 떠난 후 다시 한학자 이광운(李光雲) 선생의 서당에 들어갔다. 이광운 선생은 한학에 조예가 깊을 뿐 아니라 고대 역사 및 정치, 철학 등에 조예가 깊었다. ... 이선생은 어린 시절부터 남다른 애국사상을 지니고 있었다. 그가 젊었을 때 정계에 투신하여 피 끓는 언설로 망국의 갈림길에서 방황하고 있던 민중들의 미몽(迷夢)을 항상 깨우쳐 주었다. ... 이선생은 한쪽으로는 당대의 인심에 적합한 한학을 민중에게 가르치고, 또 한쪽으로는 구미의 신학문을 수입하여 인민들에게 전해주었다. ... 이런 교육 아래에서 학생들의 학업이 날로 발전하였고, 동시에 애국심과 민족의식이 공고하게 되었다.¹⁷⁾

윤봉길의 「이력서」나 김광의 『윤봉길전』에는 이따금 정확한 연도를 밝히지 않아, 김광이 말하는 이광운이 이력서에서 말하는 오치서숙(烏峙書塾)의 성주록(成周錄)인지는 확실치 않다. 예산 지방에서 알려진 선비 성주록과 달리, 이광운에 관한 기록은 어디에도 없다.¹⁸⁾ 성주록의 가족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가 아닌가 생각하는 견해도 있

16) 같은 책, 77쪽.

17) 김광 저, 이민원·양수지 역주, 『나의 친구 윤봉길』, 도서출판 선인, 2017, 79-80쪽

18)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소장을 역임한 김상기는 『자유의 불꽃을 목숨으로 피운 윤봉길』(역사공간, 2013) 18쪽에 서 “보통학교를 자퇴한 윤봉길은 인근의 최은구가 설립한 서당에 들어가 그의 아들인 최병천, 이택경, 이민덕 등

는데¹⁹⁾, 이처럼 민족정신을 교육한 스승을 윤봉길이 이력서에서 밝히지 않은 것은 분명히 이상하다.

그러나 김광의 『윤봉길전』에서도 윤봉길이 13세 되던 해 가을에 이광운이 42세로 세상을 떠났다²⁰⁾고 하니, 성주록과 동일 인물이 아닌 것은 분명하다. 이광운에게 2년을 배웠는데, 성주록에게 4년을 배웠다고 하니, 13세 가을부터 시작하여 교사가 되던 17세 까지 4년 동안, 즉 이광운이 세상을 떠난 뒤부터 성주록에게 배우기 시작한 것이다.

김광은 이광운이 세상을 떠날 때에 윤봉길이 “사서(四書)를 다 읽었다”²¹⁾고 했는데, 과거시험이 없어진 상황에서 13세 소년이 사서를 다 배웠다면 진도가 빠른 편이다.

김상기의 조사에 의하면, 윤봉길이 서당을 옮기면서 스승이 바뀐 이유는 “총독부의 서당규칙령이 발표되면서 최은구 서당이 폐지”되었기 때문이다. 1908년에 제정되었던 사립학교령이 1911년에 사립학교규칙으로 바뀌면서 사립학교 폐쇄가 강요되자, 그 대안으로 기존의 서당이 가르치던 내용뿐 아니라 사립학교에서 하던 근대적 교육도 실시하는 개량 서당이 생겼다. 전국적으로 개량서당을 설치하자는 개량서당운동이 확산되며 공립학교 지원자가 줄어들자, 일제는 이를 탄압하기 위해 1918년 서당규칙을 만들어 개량서당 설립을 방해하였다.

필자가 소장하고 있는 1932년(昭和 7년)에 제출한 「서당개설인가신청서(書堂開設認可申請書)」의 개요는 아래와 같다.

서당개설 인가신청서

소화 7년 12월 16일 개설

목적 : 불취학아구제(不就學兒救濟)

과 함께 한학을 수학하였다”고 다른 사료를 바탕으로 서술하였다. “최은구는 총독부에서 강행한 토지조사사업에 측량보조원으로 따라다니다가 1918년 조사사업이 끝나자 시랑리에 서당을 개설하였다.”고 하였으니, 이광운이나 최은구가 모두 한학과 신학문을 겸비한 지식인인 것이 공통점이다. 『나의 친구 윤봉길』역자의 생각처럼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 가명을 썼다면, 이광운은 성주록의 가명이 아니라 최은구의 가명임이 확실하다. 최은구에서 성주록으로 넘어가는 연결고리가 있기 때문이다.

19) 김광 저, 이민원·양수지 역주, 『나의 친구 윤봉길』, 도서출판 선인, 2017, 79쪽.

20) 같은 책, 89쪽.

21) 같은 곳.

아동 정수 : 20명
교수사항 및 교수용 도서명 : 국어, 산술, 조선어, 천자문, 습자
10월 16일 신청
진도군 조도면 관매리 316번지
개설자 조양준(趙良俊)

서당 개설 희망자 조양준(趙良俊)은 자신의 이력서 외에 김호암(金虎岩)의 이력서까지 포함하여 개설 희망일자 2개월 전에 전라남도지사에게 제출하였다. 개설자는 조양준이고, 교사는 조양준·김호암인 셈인데, 이 신청서에서 중요한 점은 전통적인 서당의 교과목인 『천자문(千字文)』과 『습자(習字)』는 남아 있지만, 한국의 천자문처럼 중국의 인명 지명 역사지리만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의 역사까지 소개하던 동몽선습은 없어졌다는 점이다. 전통적인 서당이 대부분 교사가 1명이었던 점을 고려한다면 규모는 더 커진 셈인데, 일본어인 국어를 가르치기 위해 동몽선습은 제외했다는 것이 이 시기 서당의 특징이다. 이러한 서당 출신들은 당연히 한국 역사를 몰랐을 뿐만 아니라 한시를 짓는 방법도 배우지 못했을 것이다.

최은구의 서당은 이러한 규정을 지키지 못했기에 폐쇄되었을 것이다.

윤봉길은 14세 되던 1921년부터 옆 마을인 둔지미에 성주록 선생이 차린 오치서숙에 들어갔다. 성주록(成周錄, 1876-1963)의 호는 매곡(梅谷)이며, 1876년 충남 당진에서 태어나 덕산의 둔리 지산 마을에서 살았다. 그는 덕산향교의 직원을 지낸 유학자이다. 윤봉길은 그의 문하에서 사서삼경을 배우고 한시를 배웠다.²²⁾

4. 서당에서 지은 시

윤봉길은 1932년에 기록한 「이력서」에서 오치서숙에서 지은 한시를 소개하였다.

十五歲 되도록 篤工을 하얏슴으로 四律一首는 無難이 作成하였다. 이 아래 記載된 玉連環詩 一絶은 十五歲 卅 七月 罷接時 여러 賓客이 나의 才能을 보기 위하여 落韻成詩였다.

22) 김상기, 『자유의 불꽃을 목숨으로 피운 윤봉길』, 역사공간, 2013, 18-19쪽.

不朽聲名士氣明 士氣明明萬古晴
萬古晴心都在學 都在學行不朽聲²³⁾

옥련환(玉連環)은 잡체시 가운데 대표적인 형태이다. 필자가 소장한 『염휘(艷彙)』는 ‘아름다움을 모아놓은 책’이라는 뜻인데, 여기에 실린 잡체시의 형식은 무척 다양하고 읽는 방법이나 모양도 제각기 다르다. 편찬자는 이렇게 다양한 모양으로 시를 배열하고 독법(讀法)을 제시하여 보는 이로 하여금 도움을 얻어서 시를 읽을 수 있도록 하였다. 마치 수수께끼를 내고 풀어가는 과정과 같다고 할 수 있다.²⁴⁾

『염휘(艷彙)』에는 옥련환 형식으로 주종시(酒鍾詩)·금전지옥련환문(錦纏枝玉連環文)·쌍합문(雙合文)·육언선송체(六言禪頌體)·잡명시(雜名詩)·그 밖의 잡체시 등 여섯 종류가 소개되었는데, 윤봉길 의사가 지은 옥련환시(玉連環詩)는 이 가운데 「금전지옥련환문(錦纏枝玉連環文)」에 해당된다. 이러한 유형의 옥련환(玉連環)은 다시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뉘어지는데, 그 첫 번째 유형은 넷째 구의 첫 글자를 파자(破字)하여 각 구의 첫 자로 삼는 형식을 지닌 것이며, 두 번째 유형은 흔히 첩자시(疊字詩)라고 알려진 것이다.²⁵⁾

賞花歸去馬如飛 꽃구경 하러 가니 달리는 말이 날아가는 것 같고
去馬如飛酒力微 달리는 말이 나는 듯하니 술기운 희미하네.
酒力微醒時已暮 술기운 희미하니 깰 무렵 날은 이미 저물고
醒時已暮賞花歸 술이 깨자 날 이미 저무니 꽃구경하고 돌아가네.

『염휘(艷彙)』에 실린 위의 시는 두 번째 유형인 첩자시(疊字詩)에 해당되는데, 제1구의 마지막 4자가 제2구 첫머리에 다시 사용되고, 제2구의 마지막 3자가 제3구의 첫머리에 사용되었다. 제3구의 마지막 4자가 제4구의 첫머리에 사용되고, 제4구이 마지막 3자가 다시 제1구의 첫머리에 사용되어 순환을 이루기에, 이러한 첩자시(疊字詩)를 옥련환(玉

23) 매헌윤봉길전집편찬위원회 편, 『매헌윤봉길전집 제1권 시문과 농민운동』, 매헌윤봉길의사기념사업회, 2012, 41쪽.

24) 허경진·김성은, 「『염휘(艷彙)』에 수록된 잡체시에 대하여」, 《대동한문학》30집, 2009, 372쪽.

25) 같은 글, 372쪽.

連環)이라고도 한 것이다. 이 시에는 술을 마시고 꽃구경을 가는 화자의 모습이 순환적으로 그려져 있어서, 시 속의 화자(話者)는 언제나 술에 취했다 깨고, 꽃구경을 시작하면 다시 취하게 된다.

不朽聲名士氣明 썩지 않을 그 이름 선비의 기개 밝아
 士氣明明萬古晴 선비의 기개 밝고 밝으니 만고에 맑으리라.
 萬古晴心都在學 만고에 맑은 마음이 모두 학문에 있으니
 都在學行不朽聲 모든 것이 배워 행함에 있으면 그 이름 썩지 않으리라.

‘낙운성시(落韻成詩)’란 ‘운(韻)을 부르자마자 시를 완성했다’는 뜻이니, 자리에 있던 누군가가 ‘명(明)’이라고 운을 부르자 첫 구절을 곧바로 지었다는 뜻이기도 하다. 이날 처음부터 옥련환(玉連環)으로 지으라고 시킨 것인지, 아니면 윤봉길 자신이 평성(平聲)으로 경운(庚韻)인 ‘명(明)’이라는 운자(韻字)를 듣는 순간에 ‘옥련환(玉連環)으로 지어야겠다’고 결심한 것인지는 알 수 없지만, 윤봉길은 첫 구절 속에 이미 ‘명(明)’자와 같은 운으로 ‘성(聲)’이나 ‘명(名)’자를 넣어 놓았다. 평성인 경운(庚韻)에는 211자나 속해 있어서, 2구와 4구의 운자를 고르기가 비교적 쉬웠다. 두 번째 운을 받으면 다시 칠언시를 지으면서 3자 첩자시를 지을 것인지, 아니면 4자 첩자시를 지을 것인지 결심하려고 미리 준비해놓은 장치이다.

윤봉길이 15세에 이미 옥련환(玉連環)으로 ‘낙운성시(落韻成詩)’했다면 뛰어난 소년 시인이라고 할 수 있다. 서당에서 여름방학을 앞두고 학부형들이 모인 앞에서 ‘운(韻)을 부르자마자 시를 완성’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이 시는 제1구 마지막 3자인 ‘사기명(士氣明)’이 제2구의 첫머리에 오고, 제2구 마지막 3자인 ‘만고청(萬古晴)’이 제3구 첫머리에 오며, 제3구 마지막 3자인 ‘도재학(都在學)’이 제4구 첫머리에 온 다음, 제4구 마지막 3자인 ‘부후성(不朽聲)’이 제1구 첫머리에 다시 놓이면서 순환구조인 ‘옥련환(玉連環)’으로 성공했다. 그 자리에 모인 학부형들이 모두 감탄했을 것이다.

IV. 윤봉길 의사의 이름과 민족의 의미

1. 매헌(梅軒)이라는 호에 담긴 뜻

문학의 출발은 사물이나 개념에 관해 가장 정확한 이름을 부여하는 것이다. 이러한 명명(命名) 내지 정의(定義)를 통하여 사물이나 개념이 정확하게 독자에게 전달된다. 문인 학자들이 호(號)를 짓는 것도 마찬가지인데, 호에 담긴 몇 글자를 통해 ‘그렇게 살라’고 권면하기도 했고, ‘이렇게 살겠다’ 다짐하기도 했다.

그의 이름 윤봉길(尹奉吉)과 호 매헌(梅軒)은 둘 다 민족사상과 관련이 있다.

그의 본명은 우의(禹儀)인데, 그의 아우 이름이 남의(南儀)인 것에서 볼 수 있듯이 ‘의(儀)’자가 향렬을 나타내는 글자이다. 1930년 집을 떠나 3월 20일 여관에서 어머니에게 보낸 편지 말미에 “어이 참 同僂의게 便紙 一장도 못하니 내 就職하면 곧 하겠지” 하면서 아내 배용순에게 몇 마디 덧붙였는데, 마지막 줄에 “참 나의 성명(姓名)은 윤봉길(尹奉吉)이라고 하시오.”라고 하였다. 왜 이름을 바꿨는지 설명하지 않았지만, 애국지사들이 보안을 위해 별명을 사용하는 예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조선시대에 매헌(梅軒)이라는 호를 가진 문인이 여러 명 있는데, 문집까지 남긴 경우는 권우(權遇, 1363-1419)의 『매헌집(梅軒集)』과 금보(琴輔, 1521-1584)의 『매헌집(梅軒集)』 등 2종이다.

스승이나 선배가 호를 지어주면 대개 기(記)나 설(說)을 함께 지어주는데, 권우(權遇)가 자신의 서재에 매헌(梅軒)이라는 이름을 붙이고는 친구 변계량(卞季良, 1369-1430)에게 그 뜻을 글로 써 달라고 부탁하였다. 자신이 지은 이름에 대해 자신이 설명하지 않고도 친구에게 부탁한 것은 당시 문인들 사이에 ‘매헌(梅軒)’이라는 두 글자에 대해 공감대가 형성되었기 때문이다. 변계량은 「매헌기(梅軒記)」라는 글을 지어서, 이렇게 설명하였다.

옛날 내 나이 15세 무렵 성균관(成均館)의 학도로 있을 때, 생원(生員) 중려(中慮)라는 사람이 경서(經書)의 강론과 문장(文章)의 저술로 성균관에 이름이 났는데, 그 당시 선비들이

모두 그를 따라갈 수 없다고 하였다. 나 역시 그의 모습과 언론을 접해 보고 그의 사람됨을 알아 마음에 들었다. 그 때부터 그와 친하게 지냈는데, 지금 5, 6년이 되도록 그 우정이 변하지 않았다.

어느 날 중려가 나에게 말하기를, “내가 나의 서재 이름을 매헌(梅軒)으로 붙이고 여러 벗들에게 시가(詩歌)를 지어 달라고 요청하려고 한다. 그대는 나를 깊이 알고 나와 사귄 지도 오래되었으니, 나에게 「매헌기(梅軒記)」를 써 주어 시가를 짓는 단서로 삼게 하지 않겠나?” 하였다. 내가 그와 사귄 지 오래되었기 때문에 사양하지 못하고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매화는 꽃나무의 일종이다. 대체로 꽃나무는 봄철과 여름철에 무성했다가 추위가 닥치면 시드는데, 이는 자연의 이치상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다. 천지의 사이에 모든 만물은 철에 따라 피었다가 지고 무성했다가 시드는데, 매화만 봄추위를 이겨 내며 만물이 싹트기 전에 찬란하게 하얀 꽃망울을 터뜨리니, 이는 만물보다 먼저 천지의 생동(生動)하는 일양(一陽)의 기를 얻은 것으로서, 정말 못 나무와 비교할 바가 아니다. 그러므로 옛날 시인(詩人)이나 고사(高士)들 중에 매화를 사랑하는 사람이 많았던 것이다. 중려가 서재의 이름을 매화로 붙인 것도 이 점을 취한 것이 아니겠는가.

중려의 사람됨은 강개함이 남보다 뛰어나고 시를 잘 짓는데다가 그 마음은 한 점의 티도 없이 깨끗하니, 대체로 청백(淸白)한 중에 청백한 사람이다. 그러니 매헌의 편액(扁額)이 그와 서로 어울리지 않겠는가. 그리고 향긋한 바람이 솔솔 불고 달빛이 너울거릴 때 중려가 매헌에 앉아 손에 『주역(周易)』을 들고 복괘(復卦)의 과사(卦辭)를 음미하면 천성에서 발로하여 매화에서 터득한 마음의 느낌이 있을 것인데, 이것을 어찌 필설(筆舌)로 모두 묘사할 수 있겠는가. 후일 의정부(議政府)에 앉아 임금을 보필할 때 복괘의 과사에서 스스로 터득한 바를 미루어 실행할 것으로 여기는 바이니, 중려는 살펴보기 바란다.²⁶⁾

변계량은 이 글에서 매화의 성격으로 “만물보다 먼저 천지의 생동(生動)하는 일양(一陽)의 기를 얻은 것”을 들면서, 권우의 “강개함이 남보다 뛰어나고 시를 잘 짓는데다가 그 마음은 한 점의 티도 없이 깨끗하니” 매헌(梅軒)이라는 편액이 그와 서로 어울린다고 말하였다. 이름도 중요하지만, 사람과 어울려야 그 이름이나 호가 제대로 지어졌다고 할 수 있다.

그가 오치서숙을 떠날 때에 스승 성주록이 자신의 호 매곡(梅谷)에서 매(梅)자를 따고 성삼문의 호 매죽헌(梅竹軒)에서 헌(軒)자를 따서 윤봉길에게 매헌(梅軒)이라는 호

26) 변계량, 『춘정집(春亭集)』 권5, 「매헌기(梅軒記)」(고전번역원DB 인용)

를 지어주었다. 성주록의 호설(號說)이 따로 남아 있지 않아서 더 이상 깊은 뜻을 알 수 없지만, 죽(竹)이라는 글자에서 변치 않는 절개의 뜻까지 포함한다면 식민 지배에 굽히지 않는 민족정신을 지니라는 뜻으로도 받아들일 수 있다.

성주록은 서당을 떠나는 윤봉길의 학문적 성장을 위해 흥성의 유교부식회(儒敎扶植會)에 가입하게 하였다. 그는 이 유교부식회에서 흥주 의병장 김복한의 의병정신을 배울 수 있었으며, 척사이념에 입각한 민족자주사상을 깨우칠 수 있었다.²⁷⁾ 매헌이라는 호를 지어주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에 맞는 민족의식을 계속 일깨워 준 것이다.²⁸⁾

2. 윤봉길 의사 이전 시기의 민족이라는 용어

윤봉길의 민족사상에 관해서는 여러 학자들의 연구성과가 있는데, 예를 들면 김강녕은 「윤봉길의 민족사상과 정치적 함의」를 1) 실력배양론, 2) 항일독립사상, 3) 민족주의, 4) 평등사상의 네 가지로 정리하였다.²⁹⁾ 다른 학자들의 견해도 크게 다르지 않는데, 원래 우리나라 문헌에서는 ‘민족(民族)’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았다.

한국고전번역원에서 우리나라의 고문헌을 총망라하여 제공하는 한국고전종합DB ‘고전번역서’에서 ‘민족’을 검색하면 제목에서 37건, 본문에서 508건이 검색되지만, 우리 선조들이 ‘민족’이라는 개념을 사용한 것은 아니다. 제목에서 검색되는 37건은 모두 각주에서 현대 번역자들이 사용한 용례이며, 본문 첫 사례에서 검색된 “변방 이민족의 잡다한 종족”이라는 번역의 원문도 “변이잡종(邊夷雜種)”이니 ‘민족’이라는 용어는 역시 현대의 번역자가 임의로 집어넣은 용어이다. 그들에게 민족이라는 개념은 없었던 것이다. 조선왕조실록 번역문에서 처음 보이는 ‘민족’의 용례는 “섬에 있는 왜인은

27) 김상기, 「尹奉吉의 修學과정과 항일독립론」, 《한국근현대사연구》, 67집, 2013, 708쪽.

28) 한때 윤봉길의 시집으로 알려져 보물 제568호로 지정된 『옥타(玉唾)』에 김복한의 죽음을 애도하는 칠언율시 「만지산장(輓志山長)」과 「매죽헌선생 문집 중간 후서(梅竹軒先生文集重刊後序)」가 실려 있다. 이 책은 성주록의 시문집으로 판명되었는데, 스승의 시문집 필사본을 그가 소장하고 있던 이유는 스승이 그에게 공부삼아 필사하게 시켰기 때문이다. 성주록은 이런 필사과정을 통해서도 한시 교육을 시키고, 민족의식을 고무하였다.

필자가 충청도 문인 남대식(南大植)의 시문집 『석민유고(石民遺稿)』를 번역 출판한 적이 있는데, 그 대본은 청명(靑溟) 임창순(任昌淳)의 친필본이었다. 남대식이 서당에서 가르치던 소년 임창순에게 공부삼아 자기 시문집 초고를 필사하게 시킨 것인데, 후일에는 그 소년이 더 훌륭한 학자가 되었다.

29) 김강녕, 「윤봉길의 민족사상과 정치적 함의」, 《민족사상》2호, 2008, 80-97쪽.

우리 나라 민족과 종류가 다르오니”라는 구절인데, 이의 원문은 “도왜비아족(島倭非我族類)”이다. 이 역시 ‘족(族)’을 ‘민족’으로 임의 번역한 셈이다.

‘민족’의 용례를 가장 확실하게 검색할 수 있는 항목은 한국문집총간인데, 한글로 ‘민족’을 검색하면 121건이 나온다. 그러나 대부분 ‘민족(民足)’이라는 글자이며, ‘순국선열의 날’에 소개할 만한 ‘민족(民族)’의 용례는 하나도 없었다. 서당의 전통교육에서도 민족이라는 용어를 가르치지 않는 것 같다.

따라서 윤봉길의 자작시에서 ‘민족’이라는 개념은 편의상 ‘외부의 도전에 반응하는 민족 자신에 의한 자각’ 정도로 찾아보고자 하며, ‘민족’이라는 다소 추상적인 용어보다는 ‘피’나 ‘땅’ 같은 구체적인 용어로 대체하여 찾아보고자 한다.

V. 자작으로 인정된 시에 나타난 민족사상

매헌윤봉길의사기념관에서 필자에게 전달한 윤봉길의 자작시 목록은 아래와 같다.

- 1) 襁褓에 싸인 두 兵丁에게
- 2) 隨筆(청년제군에게)
- 3) 新公園에서 踏青하며
- 4) 白凡先生의게
- 5) 이향시(離鄉詩)
- 6) 流浪離鄉的人(고향을 떠나 유랑하는 사람)
- 7) 不朽聲名士氣明 (학행 學行)
- 8) 淋漓痛飲漢城月 (대만보에 보도된 윤의사의 시)
- 9) 壬戌六月晦日洗硯韻(임술 6월 그믐날 벼루를 씻으며)
- 10) 歷歷光陰何太忽 (무제, 1930년 망명 직전)
- 11) 聖那乙羅(낙운성시 落韻成詩)
- 12) 沐溪一曲水 (수심 修心)
- 13) 不死苟生今日下 (무제)

- 14) 天地機會新節序 (무제)
 15) 丈夫出家生不還(장부출가생불환)

이는 필자가 검토한 자작시와 크게 다르지 않기에, 이 자작시를 중심으로 이 시에 나타난 민족사상을 찾아보고자 한다.

1. 1차적인 독자를 의식하며 지은 시

문학사에서 거론하는 작품들 가운데 일부는 독자를 의식하지 않고 쓴 작품이며, 조선시대 문인들의 작품 가운데 상당수는 주변의 몇몇 친지들에게나 읽혀지다가 출판도 되지 못하고 사라졌다. 그 가운데 일부 작품이 어쩌다 나중에 발견되더라도, 아무도 읽지 않았던 작품을 가지고 그 시대를 논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그에 비하면 윤봉길은 직업적인 시인이 아니었지만 그는 1차적인 독자를 의식하고 시를 썼으며, 결국 많은 독자들이 그 시를 읽게 되었다. 그는 자신이 시를 쓰게 된 동기를 1932년 10월 11일 상해파견헌병대에서 육군사법경찰관 육군헌병군조 수등정 일랑(須藤貞一郎)의 신문에 아래와 같이 답변하였다.

[문] 당시의 상황을 상세히 말하라.

[답] 금년 4월 27일 오후 6시 반경 김구가 내 집으로 찾아와서 말하기를 “이것이 너의 최후이니 너의 경력과 감상을 써라”라고 하므로 나는 평상시 쓰고 있던 중국제 수첩에 연필로 쓰고, 다른 일을 적어 둔 것은 파기하고 그 수첩을 김구에게 넘겼다.

[문] 유서의 내용은 무엇인가.

[답] 나의 이력서와 내가 작성한 향리의 ‘시량리가’와 나의 자식에 한 유서 및 조선 청년에 대한 나의 감상을 수필로 썼다.

끝으로 내가 상해 흥구공원의 식당을 미리 조사하러 갔을 때 내가 밟은 잔디가 그대로 일어서지 못하는 것도 있고 또 다시 일어서는 것도 있었다. 그것을 보고 나는 인간도 또한 강한 자로부터 권리가 짓밟혔을 때 이 잔디와 전혀 다름이 없다고 생각하고 대단히 슬픈 감정이 샘솟아 났다. 그 감정을 유서로 썼다.

[문] 유서 중의 이력은 사실과 틀림없느냐.

[답] 김구로부터 갑자기 요구되어 쓴 것이므로 연차에 다소 틀린 것이 있다.

[문] 너의 유서는 김구가 세상에 발표한다고 말하지 않았느냐.

[답] 그것은 말하지 않았다. 만일 발표한다고 말한 것이라면 나는 충분히 생각해서 문구도 훌륭하게 썼을 것이다. 그러나 김구는 내가 갑작스러운 가운데서 쓰고 있는 것을 보고 “군은 참으로 소양이 있구나” 하고 말했다. 하나 빠진 것이 있는데 유서내용 속에 김구에 대한 유서도 동시에 썼다.

이 문법에 의하면, 윤봉길이 생각한 1차독자는 김구이다. 그가 “이것이 너의 최후이니 너의 경력과 감상을 써라”라고 요청했으며, 세상에 발표한다고 따로 말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는 작품마다 구체적인 독자를 상정하여 〈강보(襁褓)에 싸인 두 병정(兵丁)〉 라든가 〈백범선생(白凡先生)에게〉 라는 제목을 붙였으며, 첫 구절에서 “피 끄는 청년제군(靑年諸君)들”이라고 부르기도 하였다.

그는 홍구공원에서 밟힌 잔디 가운데 일어서는 것도 있고 일어서지 못하는 것도 있음을 보면서, “인간도 또한 강한 자로부터 권리가 짓밟혔을 때 이 잔디와 전혀 다름이 없다고 생각하고 대단히 슬픈 감정이 샘솟아 났다. 그 감정을 유서로 썼다.”고 하였다. 짓밟혔다가 일어서는 풀처럼 우리 민족도 일어서야 한다고 생각했기에 유서를 쓰고 시를 지었다. 그는 자신이 인식한 민족의식을 우리 민족 모두에게 전하고 싶어서 시를 지었던 것이다. 이것이 바로 문학의 출발이고 효용성이다.

2. 장부출가생불환(丈夫出家生不還)

윤봉길의 칠언시로 가장 널리 알려진 “장부출가생불환(丈夫出家生不還)”은 윤봉길 고유의 창작시는 아니다. 월성화상(月性和尚)의 〈제벽시(題壁詩)〉 “남아립지출향관(男兒立志出鄉關)。학약불성사불환(學若不成死不還)。매골하기분묘지(埋骨何期墳墓地)，인간도처유청산(人間到處有靑山)。”가 널리 알려져 자신의 입지(立志)를 다짐하는 구절로 많이 사용되자, 일본 메이지유신의 주역인 사이고 다카모리(西郷隆盛, 1828-1877)가 “남아립지출향관(男兒立志出鄉關)。학불성명사불환(學不成名死不還)。매골하수상재지(埋骨

何須桑梓地), 인생무처불청산(人生無處不青山)。”라고 두어 글자만 바뀌서 자신의 시처럼 발표했으며, 중국 공산당의 마오쩌둥(毛澤東, 1893-1976)도 신해혁명 직전인 1910년에 〈증부시(贈父詩)〉라는 제목의 시 “해아립지출향관(孩兒立志出鄉關)。학불성명서불환(學不成名誓不還)。매골하수상재지(埋骨何須桑梓地), 인생무처불청산(人生無處不青山)。”를 짓고 집을 나서서 혁명에 뛰어 들었다.

위 두 사람의 시는 자작시라기보다는 패러디를 넘어선 표절이다. 그러나 윤봉길의 “장부출가생불환(丈夫出家生不還)”은 표절과는 다르다. 안중근이 여순(旅順) 감옥 안에서 간수에게 써 준

하루라도 글을 읽지 않으면
입 안에 가시가 생긴다.
一日不讀書 口中生荊棘

라는 구절도 『진서(晉書) 은중감전(殷仲堪傳)』이나 『간독회수(簡讀會粹)』에 실린 문장이 두어 글자가 바뀌어 『추구(推句)』에 편입되면서, 안중근이 어린 시절에 외웠던 구절을 감옥 안에서 기억해내며 간수에게 써준 것이다. 월성화상의 〈제벽시(題壁詩)〉는 용어 하나하나가 불가적(佛家的)인 시인데, 사이고 다카모리나 마오쩌둥 같은 혁명가들이 “학(學)”이나 “청산(靑山)” 같은 시어들까지 그대로 사용하여 어색한 느낌이 있다.

그러나 윤봉길은 1930년에 23세 나이로 집을 나서면서 뒤의 구절들을 다 잘라버리고 “장부가 집을 나서니 살아서는 돌아오지 않으리라(丈夫出家生不還)”라는 일곱 글자만 남겼다. 사이고 다카모리나 마오쩌둥이 “학(學)”이라는 전통적 가치관을 넘어서지 못했는데, 윤봉길은 항일투쟁에 다른 목적이 없고 ‘죽음’만이 있다는 의식을 분명히 했다. 이 일곱 글자에서 윤봉길의 민족정신은 시작되고 마무리된다.

3. 피

민족을 의식할 때 가장 먼저 가족부터 시작하며, 이는 피로 이어진다. 윤봉길이

1932년 4월 27일 의거 장소인 홍구공원을 답사하고 돌아와 두 아들에게 남긴 시가 ‘피’로 시작된다.

너이도 万一피가 있고
뼈가 잇다면 반다시
朝鮮을 爲하야 勇敢한 鬪士 되여라
太極에 旗발을 놓피 드날니고
나의 빈 무덤 압헤 차져와 한 잔
술을 부어 노으라
그리고 너의들은 아비 업슴을
슬퍼하지 말어라

사랑하는 어머니가 잇스니
어머니의 教養으로
成功者를 東西洋 歷史上 보건대 (줄임)
바라건대 너희 어머니는
그의 어머니가 되고
너의들은 그 사람이 되여라

김구 주석의 부탁으로 즉석에서 지은 시 〈강보(襁褓)에 싸인 두 병정(兵丁)에게〉는 ‘피’로 시작되어 ‘그의 어머니’, ‘그 사람’으로 끝난다. 두 아들이 지닌 피와 뼈는 당연히 윤봉길과 그의 아내로부터 받은 육신의 피와 뼈이지만, 시인은 그 피와 뼈로 용감한 투사가 되어 조국을 되찾기 위해 투쟁하라고 유언하였다. 조국 선영(先塋)에 자신의 시신이 돌아오지 못할 것을 미리 알았기 때문에 ‘나의 빈 무덤’이라고 하였는데, 1년 전 청도에서 아들 종에게 보낸 편지에서 “부모는 자식의 소유주가 아니요, 자식은 부모의 소유물이 못 되는 것은 현대 자유계의 요구하는 바이다”라고 가르친 말을 다시 풀어쓴 것이기도 하다.

어머니의 교양으로 성공한 사람에 문학가 맹자, 혁명가 나폴레옹, 발명가 에디슨을 들었는데, “너희 어머니는 그의 어머니가 되고, 너희들은 그 사람이 되여라”는 다짐에

서 자신이 어머니에게서 받았던 교육을 상기시키고 있다. “태극기의 깃발을 높이 드 날리고, 나의 빈 무덤 앞에 찾아와 한 잔 술을 부어 놓아라.”라는 당부는 피와 뼈를 물려준 아버지가 아니라, 독립투쟁에 앞장 섰던 민족의 아버지가 ‘조국이 광복된 뒤에나 내 무덤을 찾아오라’고 민족의 아들들에게 당부한 것이다.

윤봉길은 같은 날 「청년제군에게」라는 시도 지었다. 제목 앞에 ‘수필(隨筆)’이라고 썼지만, 여기에 쓴 ‘수필’이라는 용어는 문학장르가 아니라 글자 그대로 ‘붓 가는대로 쓴 글’이라는 뜻이고, 「청년제군에게」는 3행 4연의 시이다.

피끝는 靑年諸君들은 아는가
無窮花 三千里 우리 강산에
倭놈이 왜 와서 왜 걸대나

피끝는 靑年諸君들은 모르는가
돼中國人놈 되 와서 되 가는데
왜놈은 와서 왜 안니 가나

피끝는 靑年諸君들은 잠 자는가
東天에 曙色은 漸漸 밝아오는데
從容한 아침이나 狂風이 일어날 듯

피끝는 靑年諸君들아 準備하세
軍服입고 총 메이고 칼 들며
軍樂 喇叭에 발맞추어 行進하세

이 시는 4연 모두 “피끝는 靑年諸君들”로 시작된다. 시는 독자를 생각하고 쓰는 법인데, 이 시의 1차 독자인 청년들은 자신의 두 아들을 포함한 한민족의 모든 청년들이다. 청년 앞에 “피 끝는”이라는 수식어를 붙인 것은 삼일만세운동 이후에 십년이 지나면서 소강상태에 들어간 국내의 민족의식을 고무하기 위해서는 ‘피’가 가장 효과적인 용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이 ‘피’가 민족의식과 관련되는 것은 그 뒤에 ‘땅’이 나오기 때문이다. 외부의 도전에 따라 민족이 민족임을 자각하게 되는데, “무궁화 삼천리(無窮花 三千里) 우리 강산에 / 왜(倭)놈이 왜 와서 왜 걸대나”라는 구절처럼 삼천리 우리 강산에 왜놈이 와서 걸대는 상황이 벌어지자 우리 강산의 주인이 바로 우리 민족이라는 자각을 하게 되었다. 우리 민족이 우리 땅을 찾으려면 총 들고 칼 들며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 민족의식을 먼저 깨우친 청년 윤봉길이 아직 잠자고 있는 민족의 청년들에게 “피가 끊어야 함”을 알려주기 위해 이 시를 지었다.

그는 김구에게 이 시를 주면서 “미리 말씀해 주셨다면 생각도 가다듬고 글씨도 손보고 해서 좀 나은 글을 썼을 것입니다.”고 겸손하게 말했지만, 꾸밈없이 터져나온 이 시야말로 그의 민족사상을 가장 잘 드러내 보여주는 시이다. 그 자신이 이틀 뒤에 행동으로 끊는 피를 보여주면서 군악 나팔에 발 맞추어 행진하였기 때문이다. 김구 앞에서 쓴 시가 이틀 뒤에 신문 기사가 되어 전국의 독자들에게 배부되었으니, 그의 거시야말로 가장 많은 독자들에게 전달된 민족의 시이다.

4. 땅

윤봉길의 할아버지 윤진영(尹振榮)은 ‘땅두더지’라는 별명을 들을 정도로 인근의 땅을 부지런히 개간하여 자수성가한 농민이었다. 논 18,200평, 밭 17,000평을 개간하고 임야도 13,000평이나 소유했으니, 이 집안에 땅은 재산 이상의 존재였다. 그러나 윤봉길이 태어나던 1908년에 국권은 이미 상실되어, 많은 사람들이 농사짓던 땅까지도 토지조사 과정에서 빼앗겼다.

윤봉길이 일본 헌병에게 신문을 받으면서, 조선에서 지은 시로는 유일하게 〈시랑리가〉를 소개하였다.

以下 記載는 柿梁洞歌이다. 곡조는 半月曲으로

一 造化神功의 伽倻山の 精氣를 맞고

絶勝景概 修德山の 精氣를 모아
 錦繡江山 三千里 無窮花園에
 기리기리 빛출내는 우리 柿梁里

二 伽倻山은 우리의 背景이 되고
 溫泉들은 우리의 舞臺場이라
 두 팔 짓고 두 발 벗고 출연하여서
 어서 밋비 自作自給 實現을 하자.

三 暗黑東天 啓明星이 도다 오나니
 弱肉強食 殘忍性을 내어 바리고
 相助相愛 너 자를 鐵案삼아서
 굿세이게 團結하자 우리 柿梁里

신문조서에는 〈시랑리가〉라고 하였는데, 최후진술인 〈이력서〉에는 〈시랑동가(柿梁洞歌)〉라고 하였다. 1절에 보이는 땅은 가야산의 정기를 받고 수덕산의 정기를 모은 시랑리이니, 누구나 지닌 고향의 땅이다. 2절에 가면 “어서 밋비 自作自給 實現을” 하려는 땅으로 바뀌더니, 3절에서 “弱肉強食 殘忍性을 내어 바리고 相助相愛 團結하는 우리 柿梁里”로 승화한다. 식민세력인 외세를 배격하고 相助相愛 團結하는 우리 민족의 柿梁里가 되기를 염원한 것이다. 19세부터 야학에서 가르칠 때에 월례회에서 半月曲 곡조로 불렀을텐데, 시랑리 사람들은 이 노래를 부르면서 민족의식을 키워나갔다.

윤봉길은 1930년 10월 18일 청도(靑島)에서 어머니에게 보낸 편지에서 자기 집 땅과 농사에 대하여 이렇게 말하였다.

어머니, 어머니 말삼대로 지금 집안 事情에 依하여 歸省하 제가 할 일이 무엇이겠습닛가. 아만 生覺하여 보아도 할 사업이 업슬 것 갓습. 저도 客地에 나와 多少 困難을 격은바, ‘이러저러’ 하는 農村에 많은 憧憬이 잇습니다. 그러나 우리 田庄 가지고 家丁 하나 두엇스면 아버지께서 넉넉히 하실 터인데 우리 집뿐만 아니라 經濟的 殺氣가 多角的으로 빚치는 우리 朝鮮人의 生活 安定을 누가 할가요.

어머니가 돌아오라고 달래자, 윤봉길이 ‘우리 집 농사는 아버지가 머슴 하나 데리고 하면 넉넉하니 나는 민족의 생활 안정을 위해 일하겠다’고 설득하였다. 자기 집의 땅이 시랑리 동네의 땅을 거쳐 민족의 땅으로 확대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는 이 편지 앞부분에서 자신이 집 떠나는 이유를 더 분명하게 말하였다.

萬物主가 되는 나도 理想의 꽃을 피고 目的의 열매가 맺기를 自信하였다. 그리고 우리 靑年時代는 父母의 사랑보다 兄弟의 사랑보다, 妻子의 사랑보다도 一層 더 剛毅한 사랑이 있는 것을 覺悟하였다. 나의 雨露와 나의 江山과 나의 부모를 버리고라도 이 길을 떠나야간다는 決心이었다.

그는 만물주, 즉 새로운 세상을 만드는 사람이다. 부모·형제·처자가 모두 피로 맺어진 가족인데, 그는 이들보다 더 단단한 사랑이 있기 때문에 나의 강산을 버리고 이 길을 떠난다고 하였다. 버리고 떠난다고 하였지만, 빼앗긴 강산을 버리고 민족의 땅을 되찾으러 떠난 것이다.³⁰⁾

5. 백범선생(白凡先生)

윤봉길은 1932년 4월 27일에 유서를 쓰며, 김구 주석에게도 시를 지어 주었다.

높고 높은 청산이여
만물을 품어 기르도다.
아득히 먼 푸른 소나무여
사시장철 변함이 없구나.
빛나는 봉새가 날아감이여
높이 천길이나 날아오르도다.
온 세상이 모두 흐림이여
선생만이 홀로 맑으심이여.

30) 윤봉길이 1930년 봄에 고향을 떠나면서 지었다는 <이향시(離鄉詩)>는 이상화의 시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와 박용철의 시 <떠나가는 배>를 연상케 할 정도로 호소력이 짙다. 그렇지만 1951년 출판본 이전의 1차 자료를 찾을 수 없어, 논하지 않는다.

늙을수록 더욱 강건해짐이여
 선생의 의기 뿐이로다.
 숲나무에 누워 쓸개를 맛봄이여
 선생의 붉은 정성이로다.
 巍巍青山兮여 載育萬物이로다
 杳杳蒼松兮여 不變四時로다
 濯濯鳳翔兮여 高飛千仞이로다
 舉世皆獨兮여 先生獨淸이로다
 老當益壯兮여 先生義氣로다
 臥薪嘗膽兮여 先生赤誠이로다

이 시는 기본적으로 진왕(秦王) 영(嬴)을 암살하러 떠나던 자객 형가(荊軻)가 동지들과 헤어지며 불렀던 〈역수가(易水歌)〉와 초나라 굴원(屈原)이 강가를 헤매이며 불렀던 〈어부사(漁父辭)〉의 비장함이 깔려 있다. 독야청청(獨也靑靑)하던 성삼문의 모습도 보인다. 김구 앞에서 책 한 권 없이 짧은 시간에 기록하며 많은 글자들을 이 두 편의 시에서 가져온 것은 그가 평소에 이들의 시를 외우고 있었기 때문이다.

윤봉길이 밝히지는 않았지만, 이 시를 짓게 된 배경에는 안중근(安重根)의 〈장부가(丈夫歌)〉가 있다. 안중근의 대표작인 〈장부가〉는 거사하기 사흘 전날 밤 김성백의 집에서 편지와 함께 쓴 것이다. 공판기록에 그의 창작 동기가 밝혀져 있다.

재 : 안에게 물졌는데, 이 언문의 노래와 한문시는 그대가 밤에 김성백의 집에서 쓴 것인가?
 안 : 그렇습니다.
 재 : 이것은 어떤 것을 느껴 쓴 것인가?
 안 : 그것은 나의 목적을 쓴 것입니다.
 재 : 그리고 사실 심리 때 물어보았다고 되어있는데, 그대가 신문사 앞으로 편지를 썼다고 하는데 그 편지가 이것인가?
 안 : 그렇습니다.

거사가 성공한 뒤에 일본 경찰이 다른 의도로 발표할까봐, 안중근은 중국에서도 조판하기 쉬운 한시를 지어 자신의 거사 동기를 미리 밝힌 것이다. 안중근과 윤봉길은

두 사람 다 거사를 앞두고 시를 지어 거사의 성공을 다짐하며, 주변 인물들에게 민족 의식을 고취시켰다.

장부가 세상에 처함이어!
그 뜻이 크도다.
때가 영웅을 지음이어!
영웅이 때를 지으리로다.
천하를 웅시함이어!
어느날에 업을 이룰고.
동풍이 점점 참이어!
장사의 의기가 뜨겁도다.
분개히 한 번 감이어!
반드시 목적을 이루리로다.
취도적 (이등박문)이어!
어찌 즐겨 목숨을 비길고.
어찌 이에 이를 줄을 알았으리오!
사세가 고연하도다.
동포 동포여!
속히 대업을 이룰지어다.
만세! 만세여!
대한 독립이로다.
만세! 만만세여!
대한 동포로다.
丈夫處世兮. 其志大矣.
時造英雄兮. 英雄造時.
雄視天下兮. 何日成業.
東風漸寒兮. 壯士義熱.
忿慨一去兮. 必成目的.
鼠竊○○兮. 豈肯比命.
豈度至此兮. 事勢固然.
同胞同胞兮. 速成大業.
萬歲萬歲兮. 大韓獨立.
萬歲萬萬歲. 大韓同胞.

그의 친필 시에는 쥐도적(鼠竊) 다음에 두 글자가 ○○로 가려져 있는데, 일본 경찰이 이토오(伊藤) 두 글자를 쓰지 못하게 한 것이다. 본인이 한시로 짓고, 국문으로 번역하였으니, 한문을 모르는 일반 독자들을 위한 것이다. 1차적인 독자는 블라디보스톡 일대의 「대동공보」 독자였겠지만, 대한 독립을 염원하는 모든 대한의 동포를 독자로 지은 시이다. 어려서부터 장부로 이름 남기기를 바랐던 그는 첫 구절부터 자신을 장부라고 표현하였다. 그 표현은 분에 넘치는 표현이 아니라, 말과 행실이 일치하는 정확한 표현이다.³¹⁾

안중근 시의 첫부분은 마지막 승부를 앞둔 초패왕 항우의 모습이자 그의 시 〈해하가〉의 말투이지만, 분개한 마음으로 한번 가서 목적을 이루겠다는 다짐에서는 연(燕) 나라를 지키기 위해 진왕(秦王)을 암살하러 떠나는 자객 형가(荊軻)의 모습이 나타난다. 연나라 태자 단(丹)과 지사들이 차가운 바람 쓸쓸하게 부는 역수(易水) 가에서 비분강개한 노래를 부르면서 자객 형가와 헤어지는 모습은 사마천의 『사기』 가운데 압권인데, 안중근은 우덕순과 헤어지는 자신의 모습을 형가에 비유한 것이다.³²⁾

안중근의 시에서는 자신이 영웅이지만, 윤봉길의 시에서는 김구가 영웅이다. 만물을 품어 기르는 청산, 사시장철 변함 없는 푸른 소나무, 천 길 드높게 날아오르는 봉황새, 흐린 세상에서 홀로 맑은 김구가 와신상담(臥薪嘗膽)하는 모습을 찬양한 이 시는 온갖 어려움을 극복하며 임시정부를 이끌고 있는 김구에게 민족의 이름으로 바치는 찬가이다.

VI. 맺음말

윤봉길은 직업 시인이 아니다. 그렇지만 그의 시는 조선시대에 오랫동안 시 공부

31) 허경진, 「독립운동가의 항일문학」, 『문화연구 하』, 중국 료녕민족출판사, 2006, 275쪽.

이 논문은 원래 2005년 7월 25일 평양 인민문화궁전에서 「안중근의 항일문학과 그 영향」이라는 제목으로 발표했는데, 1년 뒤 중국에서 출판되는 과정에서 제목이 바뀌었다.

32) 같은 곳.

를 하고 평생 시를 지으며 살았던 시인들 못지 않게 많은 독자들에게 널리 읽혔고, 감명을 주었다.

그는 거사를 이틀 앞둔 절체절명의 순간에, 김구로부터 부탁을 받고 유서와 함께 여러 편의 시를 지었다. 두 시간 남짓 짧은 시간에, 그가 수필(隨筆)이라고 명칭을 붙였던 것처럼 생각나는대로 썼지만, 그가 민족에게 하려던 말을 충분히 시에서 표현하였다.

그는 자신이 생각하는 민족의 개념을 장부출가생불환(丈夫出家生不還)·피·땅·백범선생 등이 용어로 독자들에게 전달하였다. 그는 김구에게 이 시를 주면서 “미리 말씀해 주셨다면 생각도 가다듬고 글씨도 손보고 해서 좀 나은 글을 썼을 것입니다.”고 겸손하게 말했지만, 꾸밈없이 터져나온 이 시야말로 그의 민족사상을 가장 잘 드러내 보여주는 시이다.

윤봉길이 거사에 성공하고 순국(殉國) 당하는 과정에서 국내외 여러 신문에 그의 시가 소개되었으며, 그 이후 현재까지 그를 추모하는 작품들이 한시, 국문시, 판소리, 영화 등의 다양한 형태로 만들어졌다. 투철한 민족의식을 투박한 언어로 표현했던 그의 시가 계속 확대 재생산된 것이다.

제2주제 토론

윤봉길 의사 자작시의 민족사상

구지현 (선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허경진 선생님의 발표는 매한 윤봉길의 문학, 특히 시 작품을 최초로 다룬 연구로서 매우 의의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윤봉길 의사는 독립투사로서의 이미지가 강하기 때문에 문학적인 활동을 하였다는 것 자체가 새삼스러운 사실로 다가옵니다. 또한 전통적인 한학을 공부한 인물로서, 자작시에도 이러한 바탕이 깔려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하게 풀어주셨기 때문에 크게 의문을 제기할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토론자의 소임을 해야 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려서 좀 더 자세히 들을 수 있는 기회로 삼을까 합니다.

첫째, 윤봉길 의사의 스승에 대해 설명하시면서 주석 18번에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 가명을 썼다면, 이광운은 성주록의 가명이 아니라 최은구의 가명임이 확실하다. 최은구에서 성주록으로 넘어가는 연결고리가 있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해 놓으셨습니다. 최은구와 성주록의 연결고리가 지역적인 근접성과 같은 정황상의 증거인지, 혹시 다른 구체적인 사실이 있는지, 당시의 상황과 함께 한 번 더 설명해 주셨으면 합니다.

둘째, “4.”에서 분석대상으로 하고 있는 자작시 목록 15개를 소개하셨습니다. 이것을 기념관 측으로부터 전달받으신 것이라고 하셨는데, 혹시 어떤 형태로 보존된 것인지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자작시라고 확인할 수 있는 근거는 어떤 것인지 별다른 설명이 없으셔서, 토론 시간을 통해 부연해 주시면 어떨까 합니다.

셋째, 4의 2)에서 “장부출가생불환(丈夫出家生不還)”에 대해 “뒤의 구절들을 다 잘라버리고 “장부가 집을 나서니 살아서는 돌아오지 않으리라(丈夫出家生不還)”라는 일곱 글자만 남겼다. 사이고 다카모리나 마오쩌둥이 “학(學)”이라는 전통적 가치관을 넘

어서지 못했는데, 윤봉길은 항일투쟁에 다른 목적이 없고 ‘죽음’만이 있다는 의식을 분명히 했다. 이 일곱 글자에서 윤봉길의 민족정신은 시작되고 마무리된다.“라고 설명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시가 이 구절만 있는 것인지, 월성화상의 시나 다른 사람들의 시처럼 7언절구로 되어 있는데 첫 구만 같은 것인지 문맥상 분명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시 전문이 어떤 지 소개해주시면 이해가 더 잘 될 것 같습니다.

넷째, 4의 3) 부분에서 “1년 전 청도에서 아들 종에게 보낸 편지에서 “부모는 자식의 소유주가 아니요, 자식은 부모의 소유물이 못 되는 것은 현대 자유계의 요구하는 바이다”라고 가르친 말을 다시 풀어쓴 것이기도 하다.“라고 한 설명이 보입니다. 어린 시절 전근대적인 교육을 받았고 민족사상의 기본에는 전통적인 절개 의식이 깔려 있 으리라 여겨집니다. 그런데 인용하신 편지 내용을 보면, 전통적인 가족 관계와는 다 른 현대적인 인식이 엿보입니다. 전반적으로 시에 나타나는 윤봉길 의사가 세계를 과 약하는 시각이나 민족을 바라보는 시각이 당시 시대적인 상황에 근거해서 전근대성 에서 얼마나 탈피했다고 보시는지요? 개인적인 의견이 어떠신지 설명을 해주시면 좋 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독립운동가의 시에 대해 문학적 성취도를 따지는 것이 어불성설이라고 생각됩니다만, 그렇더라도 어떤 미학적 특징이 있는지는 간단히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신지요?

윤봉길 의사의 시에 대한 첫 번째 연구인 점을 미루어, 자질구레하게 여러 질문을 하였습니다. 다시 한 번 자세히 설명해준다는 생각으로 대답을 해주시면 이해에 도움 이 크게 될 것 같습니다.

제 3주제 발표

윤봉길 의사의 산문에 대하여

심경호

(고려대학교 한문학과 교수)

1. 서문
2. 「이력서」 : 자서전의 계보
3. 『기사년 일기』 : 농촌계몽가의 생활일기
4. 6편의 국한문 편지 : 내면의 풍광
5. 맺는 말

윤봉길
의사
의
산문
에
대
하
여

1. 서 문

사람은 왜 사느냐 理想을 이루기 위하여 산다. 理想은 무엇이나 目的의 成功者이다. 보라, 풀은 꽃을 피고 나무는 열매를 맺는다. 萬物主가 되는 나도 이상의 꽃을 피고 目的의 열매가 맺기를 自信하였다. 그리고 우리 青年時代는 父母의 사랑보다 兄弟의 사랑보다, 妻子의 사랑보다도 一層 더 剛毅한 사랑이 있을 것을 覺悟하였다. 나는 雨露와 나의 江山과 나의 부모를 버리고라도 이 길을 떠나여간다는 결심이였다.

윤봉길(尹奉吉, 1908년 6월 21일-1932년 12월 19일)이 1930년 10월 18일 작성한 ‘사랑하시는 어머니에게 올림’ 편지(片紙)이다. 윤봉길은 편지를 ‘片紙’라고 표기했지, ‘便紙’라고 표기한 적이 없다. [중국어로 便紙는 뒷간의 화장지란 뜻이다.]

대의(大義)의 실천, 이상(理想)의 실현을 위해 우로(雨露), 강산(江山), 부모(父母)를 떠나야 했다는 결심을 명료하게 밝힌 대목으로, 삶의 가치를 생각하는 많은 이들의 마음을 크게 움직여 왔다.

윤봉길의 서한은 국한문 혼용, 띄어쓰기, 행갈이, 존대격, 장절단락의 표시 등 세세한 서사(書寫) 방식을 실험하였으며, 위문(慰問), 일기(日記), 간접 증언(贈言), 정세 보고(情勢報告), 투식(套式)을 한데 결합하여 놀랄만한 글쓰기를 하였다. 거의(舉義)의 이면에는 따스한 품성, 강의(剛毅)한 인격이 있었던 것이다.

이 글은 윤봉길의 산문이 지닌 특징을 살피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즉, 「이력서」, 「일기」, 「편지」 등을 다루고자 한다. 관련 자료는 다음 서적에서 인용하였다. 이하의 서술에서는 번다함을 피하여, 인용처를 일일이 밝히지 않기로 한다.

매헌윤봉길전집편찬위원회 편, 『매헌윤봉길전집』 제1권 ‘시문과 농민운동’, 매헌윤봉길의사기념사업회, 2012.6. (이하 언급 필요 때에는 ‘전집본’으로 약칭함.)

2. 「이력서」 : 자서전의 계보

윤봉길은 중국 상해에서 거사하기 이틀 전인 1932년 4월 27일, 신상을 후세에 알리기 위해 「이력서」를 작성하였다. 유족시(遺囑詩) 4편을 지었다. 홍구공원 현장을 사전에 답사하고 동방여관으로 돌아왔을 때, 김구가 찾아와 “최후를 앞두고 경력과 감상 등을 써 달라”고 하자, 윤봉길은 즉석에서 평소 가지고 다니던 ‘School Exercise Book’이라 표제된 중국제(合記教育用品社製) 노트에 이 글을 썼다. 표지에는 ‘윤봉길 이력’이라 한자로 쓰고 노트 첫 면에는 ‘이력서’라고 한자로 적었다. 전체 표기는 국한문 혼용이다.

‘이력서’라고 하였지만 이 글은 현대의 ‘약력’과는 달리 일생을 되돌아보는 자서전의 양식이다. 곧, 자전(自傳)·자서(自叙)의 전통을 이었다. 죽음을 앞두고 일생을 정리하면서 삶의 의미를 되묻고 한 순간의 결심을 토로한 점에서 자찬묘비(自撰墓碑)·자찬묘지(自撰墓誌)라고도 할 수 있다.¹⁾ 가계와 성장기는 간단히 적고, 20세 이후 ‘공적’ 활동을 중심으로 기록한 점이 특이하다.

「이력서」에서 윤봉길은 본적(충남 예산군 덕산면 시랑리 139번지)과 본관(파평)과 부모(부 尹璜, 모 金元祥)의 성명을 쓰고 소속은 ‘애국단원’이라 밝혔다. ‘무신년 5월 22일생’(서력 1901년)이라 적었는데 1901은 1908의 잘못이다.

이름은 ‘봉길(奉吉)’이라고 적었다. 본래 이름은 우의(禹儀)였지만 1930년 상해로 가기 위해 정주에 묵을 때 스스로 이름을 바꾸고, 그 사실을 3월 20일 어머니께 보내는 제1신에서 밝혔다. 윤봉길의 아우가 남의(南儀, 1915년 12월 28일 ~ 2003년 1월 15일)이므로, ‘儀’가 향렬자이다. 윤남의의 또다른 이름은 영석(永錫)이다. 「이력서」에서 윤봉길은 자신의 자(字)를 밝히지 않았다.

윤봉길은 7세부터 15세까지 사숙에서 공부하였는데,²⁾ ‘八九同厓’ 중에 총명하였고

1) 한국 근대 이전의 자서전과 자찬 비지의 전통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고하십시오. 심경호, 『나는 어떤 사람인가 - 선인들의 자서전』, 이가서, 2010.4 ; 심경호, 『내면기행 - 옛사람이 스스로 쓴 58편의 묘비명 읽기』, 민음사, 2018.3.

2) 윤봉길은 큰 아버지 윤경(尹炯) 밑에서 천자문을 뗐다고 한다. 11세 되던 1918년, 보통학교에 들어갔으나 2학년에 그만두고 최병대(崔秉大) 문하에서 동생 윤성의(尹聖儀)와 한학을 공부하였으며, 1921년에는 오치서숙(烏峙書塾)에서 매곡(梅谷) 성주록(成周錄)에게 수학하였다고 한다.

‘동모(同侗)’와 다름에 패한 적이 없었다. [전집본은 ‘同刀’를 ‘同介’로, ‘同侗’를 ‘同輩’로 잘못 표기하였다.] 실하게 공부하여 사율일수(四律一首)는 무난히 작성하게 되었다고 했다. 평측과 압운을 맞춰 율시를 짓게 되었다는 말이다. 다만 15세 되던 해 7월 과접(罷接) 때 낙운성시(落韻成詩)한 것은 잡체시의 일종인 옥연환시(玉連環詩)이다.

不朽聲名士氣明, 士氣明明萬古晴.

萬古晴心都在學, 都在學行不朽聲.

하평성(下平聲) 제8 경(庚) 운을 사용하고 초구에도 입운하여, 명(明), 청(晴), 성(聲) 세 글자를 운자로 놓았다. 빈객들이 그 세 글자를 운자로 차례로 부르자, 윤봉길이 즉흥적으로 연환체로 지었을 것이다.

16세 되던 해에 윤봉길은 선생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일본어를 속성으로 배울 수 있다는 독본을 사다가 1년간을 쉬지 않고 매달려 자습한 끝에 회화를 능숙하게 할 정도가 되었다. 17세부터는 부형의 권고, 마을 선생들의 권유, 스스로의 성찰 결과 18세 때까지 2년여 간 7~8명의 아동들을 모아 가르쳤다. 19세가 되면서 집에 야학을 개설하여 아동들을 가르치다가 학생 수가 늘어나자 두 반으로 편성하는 한편, 수업용 강당을 신축하고 학예회를 개최하였다. 또한 월진회(月進會)를 조직해서 월 1회 월례회를 개최하여 고담과 신사조를 강연하였다. 이때 월진회가의 회가로 「시량동가(柿梁洞歌)」를 자작하여, ‘반월곡(半月曲)’의 곡조에 얹어 불렀다. 자작자급(自作自給)과 상호상애(相助相愛)를 강조한 내용이다. 하지만 윤봉길은 날이 가고 해가 갈수록 ‘압박과 고통’이 증가하자, 철권으로 적을 즉각 부수기로 결심하여 중국 상해의 대한민국임시정부를 목표로 집을 나섰다. 하지만 지참하였던 월진회비를 다 쓰고 ‘금전의 고통’은 더욱 심해져서 일본인(中原兼次郎)이 경영하는 세탁소에 취직하여 1년을 일하였다. 24세 되던 1931년 5월 8일 상해에 도착한 후에도 중국 종품공사(鬃品公司)의 직공으로 일했다. 이때 17명의 한인 직공을 규합하여 공우회(工友會)를 조직하고 회장으로 활동하였다. 창주(廠主) 박진(朴震)과 사소한 감정 때문에 해고를 당하고, 계춘건(桂春健)과 홍구(虹口)에 소채장(小菜場)을 개점하였다. 매창은 “그리고 그 후(后)는 여러 선생임(先生任)들이 아실 것어다.”라고 글을 맺었다. 매우 짧지만, 당시까지의 일생 사

적을 때 계기마다 명확하게 단락을 나누어 기술한 뛰어난 자서전이다.

「이력서」의 끝에는 가족의 이름을 적되, ‘유족(遺族)’으로 표기하였다.

부 윤황(尹墮) 신묘년(1891년) 11월 5일 생[*1950년 작고]

모 김원상(金元祥) 경주(慶州), 기축년(1889) 12월 16일 생[*1952년 작고]

처 배용순(裵用順) 성주(星州), 정미년(1907) 8월 15일 생[*1988년 작고]

장자 모순(模淳)[*종(淙)] 정묘년(1927) 9월 11일 생[*1984년 작고]

2자 담(淡), 나 객지 나온 뒤에 출생, 경오년(1930) 5월 19일생[2세 때 사망]

이어 4편의 한글 유족시를 수록하였다. 「襁褓에 싸인 두 兵丁에게」는 두 아들 모순(模淳)과 담(淡)에게 보내는 서간시이다. 「수필(隨筆)」은 ‘피 끊는 청년 제군들’에게 ‘군복(軍服) 입고 총 메이고 칼 들며, 군악(軍樂) 나팔(喇叭)에 발 맞추어 행진(行進) 하세’라고 촉구하였다. 1932년 4월 27일에는 「新公園(홍구공원)에서 답청(踏青)하며」를 지어, “다정한 방초(芳草)여, 금년(今年) 사월이십구일(四月二十九日)에, 방포일성(放砲一聲)으로 맹서(盟誓)하세”라며 거사를 재차 다짐하였다. 「백범선생(白凡先生)의 계」는 김구의 ‘붉은 정성’을 예찬한 헌시이다. 노트의 마지막 장에는 이동녕의 초상화를 그려두었다.

이 「이력서」와는 별도로, 거사 사흘 전 1932년 4월 26일에 윤봉길은 한인애국단 앞으로 보낸 결의문을 보내어, “조국의 독립과 자유를 회복하기 위해”, “중국을 침략하는 적의 장교를 도륙”하겠다고 맹서하였다.

3. 『기사년 일기』 : 농촌계몽가의 생활일기

윤봉길은 기사년(양력 1929년 2월10일-1930년 1월29일)의 주요 일들을 기록해 『日記』로 묶었다. 표지 오른쪽에는 “己巳年 陰一月一日/檀君四式六式年”이라고 적었다. 내 표지에는 동서양의 온갖 연호(年號)를 병기해 두었다. 종서의 서사법에 따라 위 아래

돌씩 짝을 지운 것이다. 횡서로 바꾸어 표시하면 다음과 같다. (전집본은 뒤집어 표기해 두었는데, 바로잡아야 한다.)

檀君 四二六二	日紀 二五八九
孔子 二四八〇	佛紀 二九五七
西曆 一九二九	己巳年一月
開國 五三八	本人滿二一

첫장에는 「己巳年日記帳序言」이 있어, “자전을 마치고 사정없이 핑핑 돌아가는 지구가 어느덧 3만 6천의 자전을 마치는”단축(短促)한 순간이 바로 사람의 일생이며 그 단축한 순간 속에서 “人間은 눈물노 되어구나”라고, 억제할 수 없는 심회를 토로하였다.

가도 挽留치 못하는 것은 歲月이다. 보라, 六十抄가 一分, 六十分으로 一時間, 二十四時間이 一晝夜. 自轉을 맞치고 私情읍시 핑핑 돌아가는 地球가 어니쫓 三萬 六千의 自轉을 맞친다. 이것이 한 사람의 一生이다. 아...그러면 無情한 저 光陰이 人生을 얼마나 희생하얏는고. 生覺이 여기에 到達하여야는 한 즐기 同情하는 눈물을 금치 못하얏도다.

문노니 이러한 短促한 其間에 격거 보너는 것이 무엇인가!!

참, 붓으로 記錄할 수 읍는 고통... 번민... 로력... 百渡忙時一渡閒으로 喜樂 그것으로 一生을 보너는 이 人生이다. 由此論之컨딘 이 人間은 눈물노 되어구나. 눈물노 된 인간이여, 아 ... 나의 心懷 抑制할 수 읍고나!!

前題 人生論은 青天 一張紙을 得이라도 未可盡記이다. 今年의 行事나 記錄하여 보자.

위의 글에서 ‘百渡忙時一渡閒’은 ‘百度忙時一度閒(閑)’의 이표기인 듯하다.

기사년 정월 초하루(양력 2월10일), 윤봉길은 동네 어른들에게 세배를 마친 후 윤세희(尹世熙) 집을 심방하여 토정비결을 보았는데 853괘(卦)의 “입산금호 사생난변(入山擒虎, 死生難辨)”이 나왔다. “호랑이를 사로잡기 위하여 산으로 들어가니 죽을지 살지 알 수 없다.”이다. [전집본은 “入山擒虎, 死生難輯”이라고 잘못 독해하고 “호랑이를 사로잡기 위하여 산으로 들어가니 죽고 삶이 어렵고 어렵구나”로 잘못 풀이하였다.] 『토정비결』의 괘 가운데 소극적인 괘에 속한다. 윤봉길의 시대에는 『토정비결』이 유

행하였고, 여러 가지 생활지식이 행동양식에 영향을 주던 시기이다. 윤봉길 오랫동안 서숙에서 한학을 공부하였으나, 유학의 엄격주의를 신봉하지는 않은 듯하다.

이날 윤봉길은 이웃 친구들과 척사(擲杞)를 하여, 흥이 깊어 새벽 닭이 울 때까지 놀았다. 윤봉길의 『일기』에는 척사 놀이를 한 기록이 여럿 나온다. 또한 윤봉길은 인근 학교의 학예회에 참가하고, 야학에서도 학예회를 열었다. 농촌의 삶이 궁핍하고 고단하였으므로 여흥은 상당히 제한적이었음을 알 수 있다.

정월 초이틀(정해)의 일기를 보면 군청 사회주사(社會主事) 이홍로(李弘魯)가 이 날의 강연에서, 1927년도 2천만 조선 동포의 채무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개인 당 평균 150원(員=圓)에 달한다고 지적하였다. 윤봉길은 이를 계기로 조선인이 빈궁에 빠져 고통이라는 선망(線網)을 벗어나지 못하는 사실을 깊이 우려하게 되었다. 그리고 조선인이 빈궁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이유로 흔히 나태(懶怠)를 들기는 하지만, 아무리 근검하기로서니 “우리 가족(家屬) 10인의 채무 1천 5백 원은 어느 때 환상(還償)할는지” 라고 우려하였다. 이후 『일기』나 남아 있는 서찰들을 보면 윤봉길은 개인의 삶에서 경제(經濟)의 문제를 심각하게 걱정할 뿐 아니라, 빈궁을 조선동포의 보편적 상황으로 인식하게 된다. 이후 1930년에 중국 청도에 있을 때 아들에게 부친 서한 「모순(模淳)의계」에서 윤봉길은 “사회·경제·정치(社會·經濟·政治) 이것은 발생학적(發生學的) 순서(順序)이다. 그러나 현실적 통제(現實的 統制) 관계(關係)에 잇서서 이 순서(順序)는 전도(轉到)되었다. 경제(經濟)는 사회(社會)에서 나서 사회(社會)에 떠나 사회(社會) 위에서 사회(社會)를 지배(支配)하고, 정치(政治)는 경제(經濟)에 나서 경제(經濟)를 떠나 경제(經濟) 위에서 경제(經濟)를 지배(支配)하고 있다.”라고 말하게 된다. 사회역사의 발전에서 정치를 경제보다 더 중요한 결정인자로 보게 되는 것은 중국에 건너가 일본과 중국의 대립 등 국제정세를 보면서 갖게 된 변환일 것이다.

『매헌윤봉길전집』 제1권 음1월2일/양2월11일	필자 판독
<p>省墓之禮는 子孫이 不忘之本이라. 省行于先塋하야다. 是夜에 大風이 起하야 人心이 悚懼러라.</p> <p>又是夕所感은 本郡에서 社會主事人 李弘魯氏가 來臨하사 吾人의 生活上 經濟改善과 民風的 助長을 講演함에 對하야 나의 귀를 놀내이는 것은 陰 再昨年度 二千萬 同胞의 債務를 調査한 結果 男女老少를 勿論하고 每人當 平均이 一五〇袁이라는 것을 들을 때에 나의 感覺이 엇떠해실가?</p> <p>아, 万物을 創造하신 造化翁이 東西洋에 對하야 善以 惡의 等分이 업겟는대. 엇지하야 우리는 貧窮에 빠지여 苦痛이라는 線網을 벗지 못하는고? 其切를 可歎케라. 懶怠라는 그것이올시다. “勤爲無價之寶”로 부지런하면 되겠지. 然이나 한 가지 疑問인 것은 勤儉하기로소니 우리 家屬 十人의 債務 一五〇〇袁을 何時에 還償할넌지.</p>	<p>省墓之禮는 子孫이 不忘之本이라 省行于先塋하야다 是夜에 大風이 起하야 人心이悚懼러라</p> <p>又是夕所感은 本郡에서 社會主事人 李弘魯氏가 來臨하사 吾人의 生活上 經濟改善과 民風的 助長을 講演함에 對하야 나의 귀를 놀내이는 것은 陰 再昨年度 二千萬同胞의 債務를 調査한 結果 男女老少를 勿論하고 每人當平均이 一五〇員이라는 것을 들을썬에 나의 感覺이 엇떠히실가?</p> <p>아 万物을 創造하신 造化翁이 東西洋에 對하야 善과惡의 等分이 업겟는디.. 엇지하야 우리는 貧窮에빠지여 苦痛이라는 線網을 버지못하는고? 其故를 可知케라 懶怠라는 그것이올시다 勤爲無價之寶로부지런하면 되겠지 然이나 한 가지 疑問인 것은 勤儉하기로소니 우리 家屬 十人의 債務 一五〇〇員을 何時에還償할넌지</p>

윤봉길은 이 「일기」에서 아들의 병 치료, 송사(訟事), 벼농사, 보리농사, 담배종사, 윗놀이, 유람, 목욕의 사실 등에서부터 야학당에서의 아동 교육, 향리 농민을 대상으로 한 계몽운동에 관한 내용을 상세하게 적었다.

음1월17일(양2월26일)에는 집을 수암전록(壽岩前麓)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강학기(姜學期)에게서 인감(印鑑)을 청하였고, 음1월20일(양3월1일)에는 인감 때문에 삽교(插橋) 서면(西面)에 갔다 왔으며, 음1월24일(양3월5일)에는 재판 사건 때문에 上京하여 종로 3가 103번 안재선(安在璿) 방(方)에 묵었다.[전집본은 ‘方’을 ‘前’으로 해독했으나 잘못이다. ‘方’은 ‘가타’라는 일본어식 표현이다.] 음1월27일(양3월8일) 주인에게 작별하고 경부선을 타고 예산(禮山) 역에 와서 읍내 이기영(李起榮) 방(方)에 하숙하였고 이 날 밤 황하석(黃何碩) 가를 심방(尋訪)하였다. [전집본은 ‘下宿於邑內’를 ‘下宿前宅內’로 오독하고, ‘家’를 ‘內方’으로 오독하였다.] 음2월5일(양3월15일)에는 부친이 삽교 금융조합에 가서 돈 四拾 圓[전집본은 四萬으로 오독]을 빌려 와서, 음2월6일(양3월16일)에는 世熙편에 돈 拾九圓[전집본은 萬九로 오독]을 보내어 李範柱에게 수암전록 등기세를 제출하였다.

음4월9일(양5월17일)에는 연초조합상여금(烟草組合賞與金) 拾員十分을 받고, ‘星票고무신’을 샀다.

음5월6일(양6월12일)에는 노곡(蘆谷)의 논에 이양하고, 수암산에 기우제대에서 각 동리 사람들이 모여 송장(送葬)를 파낸 사실을 다음과 같이 적었다.

蘆谷畚移秧、是日壽岩山祈雨祭臺에 各洞里人이 會集하여 送葬을 掘出

[전집본은 “芟爲畚移秧. 是日壽岩山祈雨祭, 臺에 各洞里人이 會集하여 送葬을 掘出”이라고 오독.]

한편 음1월10일(양2월19일)에는 아동들을 대상으로 하는 야학당을 세워 교사사 되고, 음1월13일(양2월22일)에는 자작자금을 위해 솔선하여 위친계(爲親契)를 설립, 서기의 책임을 맡아 문부(文簿)를 정리하였다. 위친계와 관련하여 「위친계 취지서」가 현재 남아 있다. 그것을 보면, 윤봉길을 비롯하여 정종갑(鄭鍾甲)·윤순의(尹舜儀)·이태경(李泰敬)·황복성(黃卜成)·이산옥(李山玉) 등이 발기인이었으며, 그들은 각자 5원을 출자하였고 계획 때마다 각자의 인장(印章)을 지참하여야 하였다.

음2월1일(양3월11일)에는 동회(洞會)를 개최하여 이사(理事)를 맡았다. 음2월18일(양3월28일)에는 야학 아동 학예회를 열었으며, 음2월24일(양4월3일)에는 야학 아동들과 함께 ‘쑈쑈라’6천본을 심었다. 음3월14일(양4월23일)에는 동중(洞中)의 三人[전집본은 ‘三七’로 오독]과 더불어 월진회를 조직하고 회장의 책임을 졌다. 현재 남아 있는 「월진회 회칙」을 보면, ‘준칙(準則)’과 ‘심득(心得)’, ‘역원(役員)’, ‘문부(文簿)’, ‘사업경영’, ‘보충’의 총 6개 장(章), 36개조로 이루어져 있다. 월진회의 소재지는 시량리 부흥원이었고 “상조상애(相助相愛)를 지(旨)로 하고, 근검절약을 여행(勵行)하여 생활의 안정을 도(圖)하고 공히 양풍미속을 함양”하는 것을 회원의 의무이자 목적이라고 규정하였다. 회칙의 끝에 「회원명부」가 첨부되어 있는데, 회장 1인(윤봉길)과 이사 2인(정종갑, 정종호), 고문 3인(윤순의, 김흥기, 이성래), 간사 1인(이태경) 외에 동생인 윤남의 등 30명이 회원으로 등록되어 있다.

윤봉길은 월진회의 임원들과 자주 모임을 가졌다. 『일기』에 보면, 음6월19일(양7월

25일) 이태경(李泰敬)과 함께 전천(前川)에서 목욕(沐浴)을 하였다. 음7월19일(양8월23일)에는 연정계상(蓮汀溪上)에서 월진회의 여러 사람들과 천렵(川獵)을 하였다.

한편, 윤봉길은 『일기』에 당시 자신이 읽은 서적의 내용도 옮겨 적었다. 음4월15일(양5월23일)에는 ‘이충무공 일생사(李忠武公 一生事)’라는 제목의 기사를 전재하였다. 음8월12일(양9월14일)까지 이순신과 임진왜란 이후 일본 역사에 관해 읽은 듯하다. 이순신에 대해서는 1908년 5월 2일부터 8월 18일까지 『대한매일신보』에 「이순신전」을 연재한 일이 있고, 이후 1927년 회동서관(匯東書館)에서 고유상(高裕相) 명의로 『이순신전』이 활자본으로 발행된 것이 전한다. 아마도 윤봉길은 회동서관본을 읽었을 가능성이 있다.

음6월23일(양7월29일)에는 수암(壽岩)의 논을 두 번째로 김맨 사실을 적고, 다음 사항을 덧붙였다.

나이야가라瀑布米國의在한것은높이가一六二呎넓이가一四〇〇呎, 카나다高一五五呎廣二六〇呎
 [전집본은 “나이야가라 瀑布 半徑의 在하 깊은 높이가 一六二呎넓이가 一四〇〇呎, 카나다 高一五五呎廣二二一〇〇呎”으로 해독하였다.]

음7월26일(양8월30일)에는 『흑진주(黑眞珠)』 소설을 읽었다고 하였다. 이 소설은 누구의 작품인지 알 수가 없다.

음10월3일(양11월3일)에는 가배절(嘉俳節)에 관한 사항을 비교적 길게 전재하였다.

음10월5일(양11월5일)에는 신안 주씨(新安朱氏)의 시조라는 주계(朱溪)에 관한 기록을 전재하였다.

『매헌윤봉길전집』 제1권 음10월5일/양11월5일	필자 판독
朱淸說來, □□名潛, 與門人으로 誦福悟敬 居九弟章다가 忽覺 河外者□는 禮承之□, 紫只備趙昶, 陳祖舜, 周在般, 劉應憲, 陶成何 六人으로 廢左衽之恥, 隱寂州. 又漬在龍潭仁夫里, 其에 迭墟를 只今까지 朱學生所在備.	朱溪、朱子曾孫、名潛、與門人으로 誦論語欲居九夷章다가 忽覺 海外青邱는 禮義之邦、葉公濟趙昶陳祖舜周世顯劉應奎憲陶成何六人으로 廢左衽之方、隱羅州、又隱在龍潭仁夫里、其에 遺墟를只今까지 朱學生所居稱

현재 전라도 화순군 능주면 천덕리에 주자묘가 있다. 주자의 증손 주잠(1194-1260)이 고려 때 우리나라에 와서 신안주씨의 시조가 되었는데 이때부터 주자를 모시는 사당이 건립되었다고 한다. 주잠은 중국 하남성 낙양시 신안현에서 태어나, 남송 때 과거에 급제한 이후 한림학사와 태학사를 거쳐 비서각 직학사(秘書閣直學士)에 이르렀다. 그런데 남송이 원의 침공을 받아 멸망하게 되자 1212년(강종 1) 가족과 문인 7명의 학사를 이끌고 고려로 피신하였다. 처음에는 전라도 금성(錦城)[현 나주시]에 거주하였다가, 원나라의 세조가 고려로 피신한 송의 구신(舊臣)들을 압송해 가려고 하자 다시 전라도 능성(綾城)[현 화순군]으로 옮기면서 이름을 적덕(積德)으로 바꾸었다. 이후 다시 무주 무풍면(茂豊面)을 거쳐 진안군 주천면 신안촌에 은거하다가 1260년(고려 원종 1) 사망하였다고 한다.

윤봉길은 신문을 통해서 타 지역의 여러 정보를 얻기도 하였다.

음8월18일(양9월29)에는 대관(大阪) 조선청년 보군자가 인천항으로 도래 하여, 호열자(虎熱刺, 즉 호열랄)가 유행하게 되어 다수 인명이 죽었으며, 보군자는 잠적(岑寂)[岑寂이 바른 표기]했다고 적었다. 음8월22일(양9월24일)에는 호열자(호열랄)가 경성에 이르러 박람회 관람객은 모두 경성역에 도달하기 전에 예방주사를 맞는다는 사실을 기록해 두었다.

윤봉길은 『일기』에 광주학생운동과 서울 보성학교의 만세 항쟁을 적어 두었다. 음11월5일(양12월5일)에 “광주고보민족지충돌(光州高普民族之衝突)’을 적은 후, 음11월7일(양12월7일)에 ‘보성학교만세삼창(普成學校萬歲三唱)’을 기록하고, “일(一)、일본제국타파 만세(日本帝國打破 萬歲). 이(二)、약소민족해방 만세(弱小民族解放 萬歲). 삼(三)、타도노위교육 만세(打倒奴僞教育 萬歲).”가 삼창의 내용임을 밝혔다. 음11월12일(양12월12일)에는 서울에서 공부하던 종제 윤신득(尹申得)이 ‘광주고보사건(光州高普事件)’으로 휴업하고 왔다는 사실을 적었다.

음11월16일(양12월16일)에는 “함흥수리조합일본자(咸興水利組合日本者)가 선인삼명타살(鮮人三名打殺). 아!가없서라, 이압박(壓迫)어니날값흔는지”라고 하여 민족의 압박에 통분해하고 적개심을 불태웠다. 음12월20일(양1930년 1월19일)에는 “경성학생계(京城學生界)에서 전조건(前條件)에 의(依)하여 분란운(紛亂云)”이라 적었다.

4. 6편의 국한문 편지 : 내면의 풍광

윤봉길은 1930년 봄 고향을 떠난 직후 1932년 양력 4월 29일의 거사 전까지 가족들에게 6통의 서찰[片紙]를 남겼다.

윤봉길은 1930년 양력 3월 20일 평안북도 정주의 한 여관에서 「子息사랑하시는 어머니-에게」를 작성하였다. 윤봉길은 아버지에게 매부(妹夫)될 사람을 간선(看選)하여 오겠다고 하면서 집을 나왔는데, 월진회의 기금 약간을 손에 쥐고 있을 뿐이었다. 1930년 양력 3월 6일(음력 2월 7일) 삼교역을 출발하여 경남선을 타고 서울에 도착하고, 다시 경의선으로 갈아타고 3월 8일(음력 2월 9일) 오전 9시에 평북 선천역에 도착했다. 그리고 정주의 여관에서 만난 김태식(金泰植)은 윤봉길의 계획을 만류하였고 선우옥(鮮于鈺)은 그에게 신의주부 산업조합 서기로 가라면서 자꾸 권하였다. 윤봉길은 어머니에게 조합서기 취업을 위해서는 보증이 필요하니 아버지의 승낙서와 호적 사본, 토지대장 등본을 발급하여 보내달라고 요청하였다. 그러면서 앞으로는 자신의 이름을 우의(禹儀)가 아닌 봉길(奉吉)로 불러달라는 말로 편지를 끝내고 있다.

이 서찰에서 윤봉길은 자신의 확고한 뜻을 어머니에게 널리 알리기 위하여 여러 다른 문체를 혼합 활용하였다. B는 특히 완전히 독백체이다.

- A. 문안 인사와 용서 간구[‘猥濫이판思想을가지고집떠난’ 의지 표명]
- B. 일기[집 떠나던 날부터 기차로 선천에 이르러 정주에 정지하기까지의 신고(辛苦)]
 - 일기 속에 또 지인에게 보내는 편지 삽입으로 자신의 의지 표명
- C. 정주에서 만난이들과 환가(還家) 권유 - 일기에 정주에서 만난 사람들의 환가 권유를 두 번이나 반복하여 적음으로써 내적 고투를 드러냄.
- D. 일단 서기로 취직하기로 하였다고 안심시켜 드리고 부친의 보증 승낙서와 민적 초본, 재산확인서 송부 건을 부탁
- E. 타인의 도움으로 양북도 얻어 있고 잘 지내고 있음을 말하여 안심시켜 드림
- F. 답서 작성 요령
- G. 동모에게의 탁언(託言)을 통해 현재의 생활조건을 간접적으로 밝혀 안심시킴
- H. 마감의 말(스스로에게 하는 말처럼 하여 草草하게 작성한 것에 대해 용서를 청함)
- I. 개명 사실의 보고

각 장절과 단락에 대해서 개혁(改行)을 하거나 마침표(고리점)를 찍거나 문장마침 빈칸을 두고 간간이 두점(短點)을 찍어 어머니가 읽기 쉽도록 하고, 중간중간에 스스로의 독백을 집어넣어 해학스러운 면을 드러내어 어머니를 안도하게 하였다. 그러면서도 남과의 대화에서 남으로 하여금 자신의 목표가 ‘희생적생활(犧牲的生活)’을 발설하게 하여 어머니에게 속내를 털어놓는 방식을 택하였다. 동시에 그 남으로 하여금 “남의장자(長子)로서 그런희생적생활(犧牲的生活)을 할 수 있는가”라고 묻게 하여, 스스로의 내적 갈등을 드러내고 부모에게 대한 미안한 감정을 가만히 드러내었다. 환가(還家)를 권유하고 취직을 알선해 주려는 사람에게 ‘나의 소원(所願)’이 그것이지 아니라고 반박하는 말을 일기에 그대로 실음으로써, 어머니에게 다시 ‘나의 소원(所願)’이 무엇인지 파악하게 하고 이해하게 하려고 한다. 하지만 잠정적으로 취직을 알선해 주려는 이의 뜻을 따르기로 했음을 간접적으로 말하여 어머니를 위로하였다.

필자의 해독문을 아래에 소개한다.

단 락	내용
돈호	子息 사랑하시는 어머니에게
A-1	어머니!! 부르기는하였으나 罪悚하와, 무엇이라고 옛주올 말삼이 갑자기 나오지를 아니합니다 「갈미」 安寧이 단너오셨세요. 그야말로 妹弟看善하라 멀니왔으나 妹弟는고를수업습니다 하……어머니이소래드르시면 엇쳐구니가 업서 우슴반, 우름반, 가삼이 답답하실것이 올시다 猥濫이 판思想을 가지고 집떠난이 子息은 故郷을 그리워멀니 蒼蒼한 南天을 바라보고 저의가는길(目的地)를 中止하얏습니다
A-2	男兒의 理智로 目的地를 當到치 못흐오니 얼굴빨가져서 쓰난 연필 바르르 떨니어노아습니다 저의 집떠나던날부터 日記올시다
B	七日날 插橋驛前 일르러 몸을 京南線에 던지고 京城까지 왔사 그것은 나의 사정을 從弟인 申得이 보고 付託하랴고 그릿[글자탈락]뜻과 갖지 못하야 申得이는 어대를 가고업졌다 하로가 맞분 나는 몸을 京義線에 실니었다 밤새도록 汽車는 쉬지 안니하고 全速力을 다하야 九日午前 九時許에 平北宣川驛에 當到하였다 그새 나는 맞침 黃卜成씨의게 片紙 一章을 쓰는데 [그]가 온데 니르러 이런말을 하였다 現下青年의 行業은이것이겠지요 그럼으로 弟는 넓고넓은 滿洲 別판에 自由슬업게 썩여놀하노라, 썩나기전에 汽車안에서 車票檢査를 한다 調査員은 나의 車票를 보고 나의 얼굴 물글업이 쳐다본다 그뒤에 新義州에 뵈할려가느냐 한다 나는 어름어름 親戚의 집에 간다 하였다 친척의姓名이 무엇이 어느 洞에 있씨, 무는다 나는 거죽말노 姓名은 尹天儀, 居住는 新義府라고 하였다. 新義府며는 무슨 町이나 하였다 이말에 이를러 처음오는 此人으로서는町을 알수있나 얼음얼음 할즈에 몸수색을 한다 그 片紙가 튀여났다 刑事는 急히 달려들어 싸귀를 붓친다 住所職業을 記錄한다 나는 反抗을 아니할 수없다, 따리기는 왜따리느냐 調査도確實이 안니하고 사람을 왜따리야 이게 무슨 無理한 警官의 行動이야 刑事는 또따귀돌근는다 구만 하겟습니다 그리고 그뒤로 安東가다가 또 取調를한다 이별놈덜 머리 까끈걸다말한다 支離하야구만꼐

단 락	내용
C-1	그리고 定州旅館에 留宿하고 申得에게 片紙하고 回答을 기달였다 그새에 자연 旅館에 있는 金泰植氏와 人事를하야 情이 들게되였다 氏大學卒業生이다 나와갓치 支那로 가는길이다 그사람과 家庭의 通事情을 하게되였다.나의 形便을 듯던니 氏는 놀낸다 남의 長子로서 그런 犧牲의生活을 할수있는가 誤解라고 말올한다 그딴의 마음이야 勿論 現下青年의 當然한일이지만은 人子의 道理를 生覺하라고한다 그는 次子라고한다 支那에 對한 內容과 ○○團의 內幕을 ——이말하며 君은 不可하다고 만유한다 이야기도 支離하여 구만두겠다.
C-2	同留宿에있는 鮮于鈺氏는 四十歲이다 氏는 富家者이며 氏의 同族은 百餘戶라한다 그 이는 또한 나의온 目的을 못는다 目的이 없는 此人는 強仍이 그말을 하였다 처음에는 贊成을 한다 그뒤에는 나의 家庭形便을 못는다 듣더니 또 놀린다 그리고 앓가 金泰植氏와 갓치말이 나온다 그리고 작고 還家하라고 말한다 나는 여기에는 呪咀[*躊躇]하였다 열 번씩어 안니너머가는 나무업다고 도로여 家庭을 그리워졌다
C-3	氏富豪者임으로 자기에 집으로 가자한다 갈수업는 形便을 말한닛가 自己가 求職을 하엿쫘게 잇쓰랴노 못는다 나는 나의 所願이 이계안니라고 말하엿다 氏작구 권한다 本府産業組合에 書記로 가라고 한다 나는 또 所願이 안니라고 말하엿쓰나 작고 人子之道理를 말하며권한다
C-4	마지못하야 承諾 하엿다 이것도 支離하야 다記錄지 못하겠셔요
D-1	組合에서 保證을 세라하니 아버지의 承諾書와 저의 民籍抄本과 또는 財産이 얼마 잇나 面所에가서 土地臺帳閱覽書를 請합니다 信用이잇스라면 土地가 만흔게쫘습니다 伯父名義로 하야도쫘습니다 土地臺帳謄本에 關하야 別로 疑心이 업슬 것 가사 오니 十分 下諒하사 速히 付送하시압
D-2	무엇 學校出身이 안닛까 重大한 書記는 못될터이지아즉 月給도 作定치 못하엿습니다 陽四月一日부터쓰겠다고 그럼으읍니다
E	衣服은 金泰植씨가 한 벌 주어서 입읍습니다 氏는 그만흔사람에게 다분의 同情을 잘 합니다
F-1	나의 信用 타落될가 뒤셔위父母물내나왔다고 아니하엿스니가 片紙回答에 別로 걱정말고 客地에 몸이 편니잇다 하니 반갑다고 回答하시압
F-2	이편지를 남몰너 쓰느라고 말도 아니되고 글시도 우셔워 善理解하야보시압
G	어이참 同俸의게 片紙一章도 못하니 내就職하면 못하겠지 아즉은 덤허두지 나의目的地를 當到치 못한사람이나무구러워 말할것이 잇쓰야지 月給은 假令컨디本與도 最上 四拾員 最下가二拾員잇가 □居其中할터이지
H	쓰고 보니 참우섯군 이게 무엇이야 잘점못쓰고 이것지저분하니 볼수잇나
I	후번에 잘 하지요 참 나의 姓名은 尹奉吉이라고 하시오.
記日, 署名	三月 二十日 子 上書

어머니에게 제1신을 보낸 지 7개월 만인 10월 18일에 윤봉길은 중국 청도에서 두 번째로 「사랑하시는어머니에게-올림」을 보냈다. 이 무렵에는 부모님도 윤봉길이 길

떠난 이유를 잘 알고 있었을 것이며, 그렇기에 속히 집으로 돌아오기를 바란다는 뜻을 서찰로 보냈을 것이다. 윤봉길은 이에, “어머니의 하서(下書)를 봉독하는데 구구절절(句句節節)에 훈계(訓戒)하신 말씀 전신(全身)에 소름이 끼트리고 뺨끝까지 아르르하여지며 인정(人情)읍는 이놈의 눈에서도 때 안인 락슈물이 똑똑똑똑 그러고는 잠잠히 안져 경과사(經過事)를 뒤풀이하여 봅니다.”라고 답장을 올렸다. 그리고 자신이 집을 떠난 것은 결코 ‘해제지동(孩提之童)이 비틀거름 치듯이 덜꿩질꿩 되는 대로 부구자(不具者)의 소행(所行)’으로 떠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입증하려고 하였다. 심정 토로에 논리적으로 조목을 들어 서술한다는 것이 어울리지 않지만, 이렇게 해서라도 자신의 미안한 마음을 알리고 싶었을 것이다. 그 입증한다는 것이, 야학의 학예회를 연기한 사실, 어머니께서 「갈미」 가실 때 약소의 과자를 외상으로 사드린 사실, 7일 아침 방에서 나올 때 아들 모순이를 꼭 안아 준 사실, 안방에서 가서 작은누이동생 쌍봉을 다시 본 사실, 부엌에 가서 물 한 그릇 청하여 받아 마신 사실, 사랑방에 계신 아버지께서 매제 간선(看選)의 요점을 말씀하실 때 “네 네 대답을 하고 문밖을 나와 집 주위를 휘 둘러보며 잘 잊거라는 意味로 짐짓 微笑를 하였다”는 사실을 들었다. 이러한 6개 항목이 자신이 집 떠나는 이유를 제대로 밝힌 것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그러나 윤봉길은 말한다. “이만하면 나의 出門 當時에 盲目的이 아니었슴이 承認할 것이다.”라고. 하지만 다시 스스로 자신의 말을 뒤집는다. “千思萬慮하여 보았스나, 時代 經濟 苦痛은 점점 커가는 反面에 우리 家事는 점점 작어진다. 이것이 어느 놈의 행동인가 나는 이것이 逆境을 採用키로 決心에 嚆矢였다”라고 하여 의지를 천명하였다.

「모순(模淳)에게」에서 윤봉길은 부모가 자식의 소유주일 수가 없고 자식은 부모의 소유물일 수 없다는 관점을 분명히 하고, 아들이 자주적 인간으로 성장하기를 기원하였다.

1931년 8월 15일에 작성한 「사랑이 넘치는 永錫에게」(1931. 8. 15)와 같은 해 9월 9일 작성한 「사랑스런 남의(南儀)」는 수신자가 모두 아우 윤남의이다.

앞의 서찰은 7월 13일이 조고(祖考)의 기일(忌日)에 장손인 자기 대신 동생에게 배곡(拜哭)을 해달라고 부탁한 내용이다. 그런데 본론을 말하기에 앞서 윤봉길은 만보산

(萬堡山) 사건과 삼성보(三姓堡)에 대해 언급하여, 조선인들이 삼천리 강산에서 생활의 고통과 경제의 구축으로 밀려나오게 된 것, 일제의 침략으로 조선과 중국에 만연한 민족차별의 관념 때문이라고 지적하였다. 윤봉길은 국제적인 감각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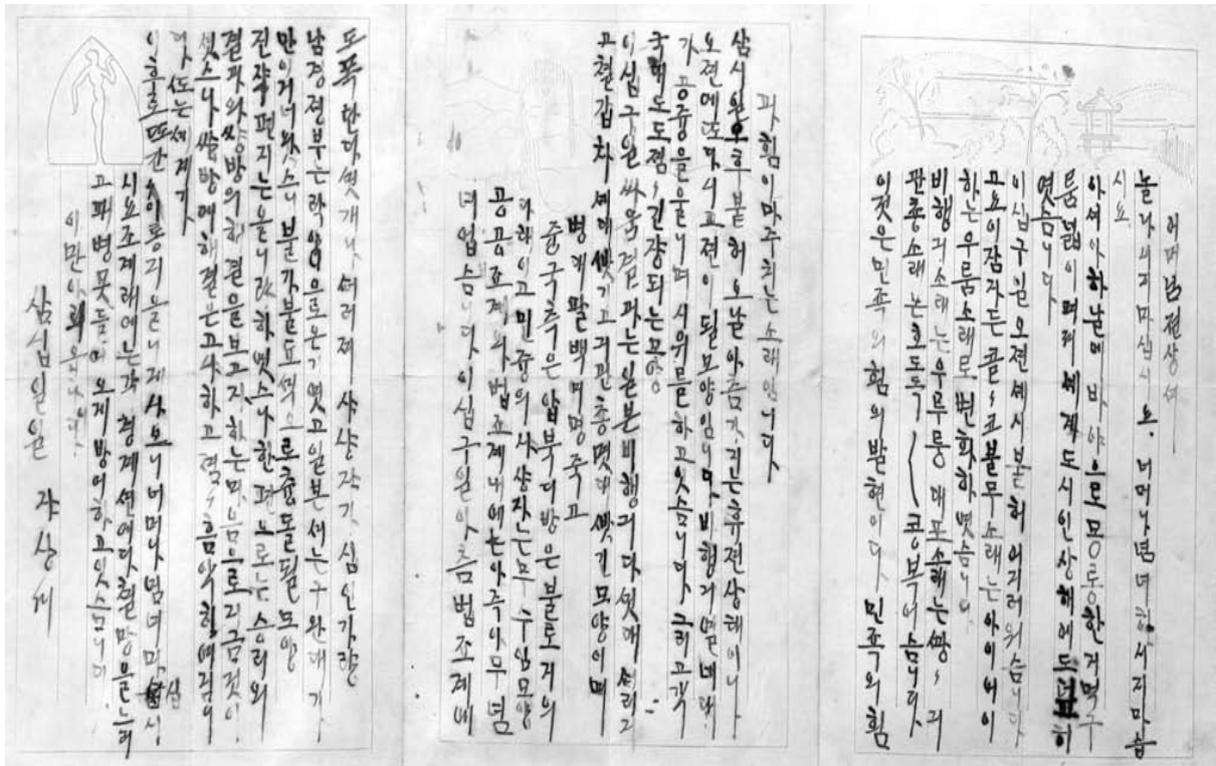
그리고 이 서찰에는 “申得君과 正得君은 只今 逗遛京城 하는가 / 黃卜成氏は 京師範에 合格 하였는가” 묻고 “모다 住所를 未詳 ○汝”라고 덧붙였다. 이것은 원래 서찰의 맨 뒤에 덧붙인 것인데, 한국에서 서찰을 적을 때 맨 마지막 줄까지 갔다가 위나 앞의 여백으로 다시 가서 쓰는 관행 때문에, 여기서는 맨 앞에다 추가한 것이다. 전집본은 이 두 줄을 ‘사랑이 넘치는 永錫에게’ 다음 줄에 적었는데, 다음과 같이 바로잡아야 할 것이다. 또 여러 글자의 판독이 잘못 되어 있으므로 필자가 아래와 같이 정정한다.

단락	내용
돈호	사랑이 넘치는 永錫에게
허두	漂流 二年에 고달핀 이 몸 回想컨대 步月立霄는 몇 번이며 看雲成日은 몇 번이었던고? 感舊의 萬重之懷는 口難說이요 筆難記이다.
전언: 국제정세 1	大勢의 風潮와 渡世의 環境이 千變万化로 變遷됨을 測量키 不能한 此際에 微微한 우리 人生은 糊口에 策을 圖謀키 難하여 生活의 良途를 研究하며 生活의 良方을 尋得키 爲하여 匍匐蕭牆하며 散流海外하는 人生이여 果然 그 前途가 幸일가 不幸일가
전언: 국제정세 2	보라 今番 萬寶山과 三姓堡의 事件을 보라 其 原因이 어디로 비롯하였는고 第一은 穢穢마른 三千里 江山에서 生活의 苦痛과 經濟의 驅逐으로 밀리어 나오게 된 것 第二는 이 廣大한 天地間一抔의 地球上에 生存하는 그 者들이 自我를 高唱하는 反面에 民族 差別의 觀念이다. xxxx의 內容은 ……
본론 : 근황을 알리고, 조고 제3주기에 대신 배곡 부탁	轉轉이 浮萍風浪을 따라 이 곳으로 저 곳으로 向無所定하여 其間의 候書도 닥지 못하였다. 只今 있는 곳은 望志路 北永吉里 18号런가. 그날 그날의 生活은 足하오나 將來 一生을 暗料하면 波濤의 水泡에 不過할 것 같다. 夢談과 浪說 이다마는 七月 十三日은 祖考丈의 第三週年忌日이구나. 베리 紀字 생각 念字 紀念으로 望拜을할까. 옷셔를 볼까 울어를 볼까. 안니 永錫에게 付託하여 나의 代身으로 拜哭을 하라가. 아니 모두 虛言이다. 나의 眞心으로 오오 今日은 祖考의 忌日이라는 印想으로 이른 야참 雨露를 履之하고 悽之惕之하며 追遠感時 不勝永慕할 것이다 그러면 바람에 날리어 온 一粒種의 誠意가 될까 하노라
마지막 인사	곳으로 祝 大小諸節 勻寧
記日, 署名	八月 十五日 候書
추기첨언	申得君과 正得君은 只今 逗遛京城 하는가 黃卜成氏は 京師範에 合格 하였는가 모다 住所를 未詳 ○汝

위에서 “步月立霄는몇번이며看雲成日是몇번이었던고”라는 표현은, 고향 생각이 간절하여 낮에는 구름을 보며 서성이고 밤이면 달빛 아래 어슬렁거린다는 뜻의 ‘보월간운(步月看雲)’ 혹은 ‘간운보월(看雲步月)’과 관련이 있다. 두보(杜甫)의 「한별(恨別)」 시에서 “고향집 생각하며 달빛 아래 거닐다가 고요한 밤에 잠 못 들고, 아우 그리워하며 구름 보다가 한낮에 조네.[思家步月清宵立, 憶弟看雲白日眠.]”라고 하였다. 윤봉길은 두보의 이 시에 공감한 듯하다. 그의 시집으로 추정되는 『옥타』에도 베껴져 있다.

9월 9일 작성한 「사랑스런 南儀에게」는 아우에게 부모, 할머니, 백부 다행의 안부를 묻는 내용이다. 장남 장손으로서의 부담감이 잘 드러난다.

1932년 정월 31일의 「어머님 전 상서」는 “놀라지 마십시오. 너머나 녀녀하시지 마십시오”라고 시작한다. 일본군이 상해를 침공하여 전투가 벌어지는 상황을 자세히 묘사하고, 중국이 승리하기를 바라는 마음을 토로하였다.



5. 맺는 말

매헌과 관련된 한시 한문 문집으로 『한시집(漢詩集)』, 『임추(壬椎)』, 『명추(鳴椎)』, 『옥타(玉唾)』, 『염락(濂洛)』 등 다섯 종류가 있다. 「염락」은 『염락풍아(濂洛風雅)』를 발췌한 것으로, 윤봉길의 창작이 아니다.³⁾ 『임추』는 칠언율시가 45편, 오언율시가 13편 등 모두 58편의 한시를 실었고, 『명추』는 칠언율시 17편, 칠언절구 3편을 실었다. 이 둘은 윤봉길의 시를 상당수 실어 둔 듯하다.⁴⁾ 한편 『옥타』의 중간 이하에도 윤봉길의 시로 알려진 37편의 칠언율시가 시려 있다.⁵⁾ 『한시집』은 칠언율시(200여 편), 칠언절구(6편), 오언절구(2편) 등 적지 않은 수의 시를 수록하고 있는데, 원작자를 알 수 없는 시문들이 많이 섞여 있다. 특히 친일 단체 발기를 축하하는 시에 차운한 시가 들어 있어 결코 윤봉길의 시로 볼 수 없는 것도 있다.⁶⁾ 그런데 이 속에 「의령남병희관례서(宜寧南秉熙冠禮書)」·「증조창행과간서(贈趙昌行加冠序)」·「증이우미석(贈李友岬石)」·「몽산별업(蒙山別業)」 등 4편의 고문 산문이 들어 있다. 필자가 보기에 이것들을 모두 윤봉길의 글로 단정할 수가 없다.

「의령남병희관례서」는 원작가가 남병희의 18세 관례 때 지어준 글이다. 윤봉길이 23세 때 덕산을 떠나기 이전에 남병희에게 가관(加冠)했다고는 보기 어렵다. 「증조창행과간서」는 원작자가 벗 조연봉(趙蓮峯)의 둘째 아들 조창행의 관례 때 지어준 글이다. 조연봉은 당시 32세 이상이었을 것이니, 윤봉길이 25세(만 24세)에 거의한 것을 감안하면, 두 사람이 교류했다고는 볼 수가 없다. 「증이우미석」은 원작자가 이두하(李斗夏)에게 준 글인데, 이두하는 “서울로 나서 늦게나마 벼슬자리 하나를 얻었으나 때

3) 진영미 교수와 김승일 교수는 2003년에 시문집 중 『명추』, 『임추』, 『옥타』를 번역하여 간행하고, 이듬해 『한시집』까지 번역, 앞서의 번역을 한데 묶어 간행하였다. 『매헌윤봉길전집』 제1권 「시문과 농민운동」에는 두 교수가 작업한 번역문을 그대로 수록하되, 일부 시는 차주환 선생과 권오돈 선생 등이 번역한 것을 실었다고 한다.

4) 특히 「명추」의 끝 부분에 윤봉길의 친필로 ‘재산현황’ 및 ‘재산세’, ‘가족현황’과 함께 「해명법(解名法)」, 「혼인계(婚姻屆)」 및 「인감증명원」 양식이 소개되어 있다.

5) 전반부에는 행초로 쓰여진 9편의 시와 서문이 실려 있는데, 시는 혜정(蕙亭) 강치헌(姜致憲)의 시 4편, 매곡(梅谷) 성주록(成周錄)과 아산둔포인(牙山屯浦人)의 시가 각각 1편씩이고, 당나라 두보(杜甫)의 「한별(恨別)」 시 1편, 이 외에 지은이를 알 수 없는 2편의 시가 실려 있다. 서(序)로는 간재(良齋)전우(田愚)가 쓴 「매죽헌선생문집중간후서(梅竹軒先生文集重刊後序)」가 실려 있다.

6) 진영미, 「윤봉길 시문집 재고」, 《한문교육연구》23권 0호, 한국한문교육학회, 2004.12, 171-185쪽.

마침 부모상을 당하였고 상례를 마칠 때까지 시묘살이를 하였다.” 이두하는 이 글을 받았을 때 적어도 40여 세 이상이었을 터인데, 원작자는 그를 ‘이두하 군’으로 부르고 있으므로, 윤봉길이 이 글을 썼다고는 보기 어렵다. 「몽산별업(蒙山別業)」의 끝에는 ‘경술대여상한강치헌서(庚戌大呂上澣姜致憲序)’라고 필서되어 있어서, 강치헌이 1910년 12월 상순에 작성했을 가능성이 높다.

『매헌윤봉길전집』 제1권 「시문과 농민운동」편은 윤봉길이 1930년 3월 중국 상해로 떠나기 전에 국내에서 활동하면서 작성한 것을 중심으로 수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상해 망명 후에 작성된 것일지라도 망명하기 전에 국내에서 활동하던 내용과 관계되는 것도 선별하여 수록하였다.

이 책에 대한 해제에서 이현주 님(2012년 출판 당시 국가보훈처 연구관)은 그 발간의 의의를 다음과 같이 밝힌 바 있다.

『매헌윤봉길전집』 제1권에 수록된 문서와 자료를 통해 윤봉길이 20세기 제국주의의 시대에 동아시아의 피압박 민중을 격동케 하고 일제의 간담을 서늘하게 했던 혁명가이기 이전에 식민지 조선의 농촌과 농민을 한없이 사랑했던 낭만에 넘친 시인이며, 농촌개혁가·농민계몽운동가였다는 역사적 사실의 전모가 생생하게 드러날 수 있을 것이다.

정말로 이 책에 수록된 문서와 자료는 윤봉길이 낭만에 넘친 시인이며, 농촌개혁가이자 농민계몽운동가였다는 전모를 생생하게 드러낸다. 원 자료를 영인 수록하였으므로 일반인들도 윤봉길의 서사(書寫) 방식을 금방 이해할 수가 있다.

다만, 이 『매헌윤봉길전집』 제1권은 한시 번역이 탁월하지만 앞으로 원작자를 고증하고 시에서 언급된 인물들에 관하여 면밀하게 조사해야만 한다. 일기와 서한의 경우는 전사(轉寫)에 오류가 많다. 行草를 해서로 바꾼 부분은 특히 오자가 많아, 전문가도 이해하기 어렵다. 이 글에서는 몇몇 산문 자료를 다루면서 새로 옮겨 보았다.

기념사업회로서는 매헌 윤봉길의 정신세계를 일반인들이 더 명확하게 이해할 있도록 하기 위해 『매헌윤봉길전집』 제1권을 시급히 수정해야 할 것이다.

제3주제 토론

윤봉길 의사의 산문에 대하여

이현일 (성균관대학교 한문교육과 교수)

매헌 윤봉길 의사의 의거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모르는 이가 없겠지만, 한번이라도 직접 당신의 속마음을 털어 놓으신 글을 읽어 본 적이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이렇게 토론자의 소임을 맡게 된 덕분에 심경호 선생님의 옥고를 통해서 매헌 선생의 생생한 목소리를 조금이라도 들어 볼 기회를 가지게 되어 개인적으로 큰 행운이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다만, 평소에 윤봉길 의사의 유고를 깊이 있게 읽어 볼 기회가 부족했기 때문에 특별히 도움이 될 만한 질의를 준비할 자신은 없고, 다만 이 논문의 의의와 매헌 문학 연구의 기초 작업에 대한 자그마한 건의를 드리는 것으로서 질의자의 책임을 매우려고 합니다.

이 글의 첫 번째 미덕은 윤봉길 전집의 산문편을 정독하고 그 주제와 의의를 이력서, 일기, 편지를 중심으로 일목요연하게 맥을 짚어 주신 것에서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농촌 계몽운동가로서의 매헌 선생의 소박하고 근실한 면모와 가족들을 향한 살갑고 섬세한 사랑을 역력히 살펴볼 수 있었고, 이를 통해 우리는 가족에 대한 사랑을 돌아보지 않고 대의를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린 매헌 선생의 의거를 더욱 선명하게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미덕은 논의를 전개하시면서도 다른 한 편으로 꼼꼼히 영인된 원문을 검토하여 기존 정리본의 크고 작은 착오들을 꼼꼼히 바로잡아 주신 것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시기 기록들의 특징이 아무리 국한 혼용이라 할지라도 한문을 배우지 않은 사람은 읽기 어렵고, 또 단순히 전통적인 한문 지식만 가지고는 이해하기 어려운 어휘들이 많이 있어서 오독하기 쉬운데, 심경호 선생님께서는 『매헌 윤봉길 전집』 1에

실린 산문들을 대상으로 일종의 교감 작업을 진행하셨기 때문에 앞으로 후속 연구를 진행하는 연구자들이 많은 도움을 받을 것이라 기대됩니다.

지금 보급된 『매헌 윤봉길 전집』 1(매헌윤봉길기념사업회 간행)은 2012년에 간행된 책이라 당분간 수정판이 나오기는 어려울 듯합니다. 그렇다면, 이에 대한 일종의 『교감기(校勘記)』를 논문이나 책의 형태로 정리하는 작업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수정판이 나오기 전까지 요긴하게 이용할 수 있고, 또 나중에 수정판을 내는 데 중요한 기초 작업이 되리라 기대되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서 고견이 있으면, 간략히 정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 4주제 발표

현대시의 눈으로 본 윤봉길 시의 성격

- 구한말의 지성사를 생각하며 -

함돈균
(문학평론가)

名物回
云氣結
己巳年
尹奉吉

1. '개화'의 한 방향

고종이 일본의 압력에 의해 1876년 부산, 원산, 인천의 세 항구를 외국인이 출입할 수 있도록 허용한 이후의 한국사는 식민지로 몰락해 가는 급격한 예측의 과정이었다. 세계사의 흐름을 감지할 능력도 자기 사회 내부를 혁신할 능력과 의지도 잃어버린 한 사회가, 강력한 자기 확장과 타자에 대한 지배 의지를 물질적 토대를 총동원 하여 전진하고 있는 또 다른 사회체계로 편입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비극이었다. 이 과정에서 놀라운 것은 자기 사회를 강압적으로 억누르고 지배하려는 다른 나라에 대해 한 나라의 정부와 관료들이 진정한 차원의 조직적 저항 의지를 거의 보여주지 못했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무기력의 중요 원인 중에는 '문명' '개화' '사회 진화'에 대한 전망과 인식에 있어, 당시 한국 지식 사회가 지녔던 사회구조 인식의 파편성도 있었다고 해야 할 것이다. 예컨대 조선이 본격적으로 세계 정세와 맞닿아 자기 사회의 진로를 모색해야 했던 이 시기, 새로운 사회 비전을 탐색했던 이른바 '개화당(개화파)'의 경우가 하나의 실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1876년 김옥균을 중심으로 모이게 된 이 모임이 한국사의 중요 이슈로 등장했던 계기는 1884년 갑신년 정변이었다. 당시 서른 네 살이었던 김옥균을 비롯하여 홍영식, 서광범, 박영효, 서재필 등은 일본에 호의적이지 않았던 고종의 정부 대신 여섯 명과 내시 한 명을 죽이고 3일 만에 일본으로 도망갔는데, 이들의 일본행은 그들이 과거 일본 도야마 육군 학교에서 공부했던 학생들이었기 때문이다. 이 때 정변에 참여했던 서재필의 나이는 겨우 열아홉 살이었다.

김인환에 따르면 한국에서 '개화'(開化) 라는 말을 세상에 처음으로 알린 것은 이들 '개화당'이 아니었다. 1894년 갑오년에 일본 공사 오토리 게이스케와 육군소장 오시마 요시마사가 군대로 한국 정부를 강제하여 석 달 동안 208개조의 일본법을 한국에 시행하면서 오토리가 '개화'라는 말을 쓰면서부터다. 이듬해 1895년 8월 20일 일본 공사 미우라 고로가 민비를 살해했으며, 정병하와 유길준이 가위를 들고 고종의 침전에 들어가 고종과 태자의 머리를 강제로 깎았다. 그리고 이 당시 고종의 내부대신이었던

유길준은 갑신년 정변 때 일본으로 도피했다가 미국에 귀화하여 필립 제이슨이라는 이름으로 살고 있던 서재필에게 공금 5000원을 부쳐주고 한국에 와서 신문을 만들라고 요청한다. 유길준의 요청으로 한국으로 귀국한 서른 한 살의 서재필이 1896년부터 1898년 사이에 《독립신문》과 독립협회를 설립했고, 서대문 근방에서 중국 사신을 맞이하는 입구였던 영은문(迎恩門)을 대체하여 독립문(獨立門)을 세웠다. 《독립신문》에는 항일의병이 일관되게 비도(匪徒)라고 기록되어 있으며, 항일의병대장 유인석을 ‘나쁜 놈’이라고 지칭하고 있다. 이토 히로부미를 암살한 안중근은 유인석의 막하였다. 《독립신문》은 일본의 경제적 조선 지배를 공고하게 만든 일본 화폐의 조선에서의 유통 현상을 긍정하였고, 청일전쟁에서 청나라의 패배와 일본의 승리를 적극 찬양하였다. 서재필에 이어 《독립신문》 2대 사장 윤치호는 이후 조선 통감이 된 이토 히로부미에게 은찰잔을 선물하였으며, 1945년 4월에는 제국주의 시대 친일 행위의 공로를 총체적으로 인정받아 일본 귀족원 의원이 되었다.¹⁾

국권 상실 과정에서 새로운 사회 비전을 모색했던 지식인 그룹이었던 ‘개화파’의 이러한 행로는 ‘개화’, 즉 사회문화의 진화·진보의 방향이 친일 이데올로기와 겹치는 착잡한 양상을 보여준다. 이것은 가시적이고 물리적으로 드러난 과학기술과 경제적 힘을 비롯한 물질의 현실을 현실의 전체와 같은 것으로 이해하고, 물질적인 것으로 드러난 현실이 추구하는 궁극적 가치와 사회재생산의 최종적 의미를 묻지 않았던 까닭이다. 기술과 물질이 그 자체로 문명개화의 실체인 것이 아니라, 한 사회 체계 내에서 그것의 구조적 작동방식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그들은 이해하지 못했다. 게다가 그들은 자기 사회 체계가 토지생산성을 중심으로 운용된 중세봉건체제의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붕괴 상황에 직면해 있다는 사실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다. 이에 더하여 당대에 무역을 매개로 벌어지고 있는 국제전쟁을 한 사회체계가 다른 사회체계를 경제적으로 지배하기 위해 벌이는 제국주의 전쟁의 표현이라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지 못했다.

1) 김인환, 「한국현대소설의 계보」, 『기억의 계단』, 68~69쪽, 민음사, 2001.

2. 애국계몽과 구한말 지식 담론

이러한 상황은 이른바 애국계몽운동기라고 불리는 을사늑약 체결 시기 즈음 한국문학사에 연관된 지식인들에게 공통적으로 감지되는 양상이다. 1907년 순종에게 올린 유길준의 긴 상소문은 “인지의 몽매와 국방의 허술함이 조금도 나아지는 기색이 없고 생업의 위축과 잔악함은 갈수록 더욱 심하여 한 가지도 안정을 확신하고 기대할 것이 없으니” 이를 걱정한 이웃 나라 일본이 우리를 위해 외교권을 넘겨받고 군대를 해산했다고 말하고 있다. 제 나라 역사의 전면 부정과 침략국 일본에 대한 전면 긍정으로 이루어진 이 상소문에서 유길준은 “급전직하”에 처한 당시 한국 상황의 이유를 “발달하는 지식은 날로 새로워지는데 우리는 송나라가 남긴 찌꺼기를 씹으면서 천하에 홀로 어진 체 하고” 있다는 취지로 요약한다.²⁾ 어윤중의 도움으로 게이오 의숙에서 공부하고, 다시 민영익의 후원으로 메시추세츠 주에 있는 대학진학 예비학교에서 공부하다 귀국한 유길준에게, 이 ‘발달하는 지식’은 강력한 군대와 과학기술과 산업기반을 지닌 서구 열강과 일본의 지식 체계를 의미하는 것이었다.

보호국 시기(1905~1910) 한국에서는 새로운 지식의 수입과 유통이 폭발적인 양상을 띠었다. 수많은 학회가 교육 구국과 산업 구국을 외치며 결성되었고, 1910년을 기점으로 해서는 550~600명에 이르는 동경유학생들이 학회의 중심을 이루었다. 이 학회들이 발간한 잡지에는 자연과학과 사회과학의 기초이론이 빠짐없이 들어 있는데, 과학 논문의 상당수는 교과서 형식으로 씌어졌거나 번역·번안된 것이었다. 경술국치 이전의 수 년 동안에 우리 지식인들은 요즘 중고등학교에서 다뤄지는 교육 내용의 상당수를 폭발적으로 섭취하였다.³⁾

보호국 시기에 최남선은 열아홉의 나이에 당대의 중요한 인물로 부상했다. 1890년생 최남선은 1904년 열다섯 살에 동경으로 유학 갔다가, 열일곱 살에 당시 동경삼재

2) 『승정원 일기-순종1』, 세종대왕기념사업회, 1995

3) 이면우, 「초기 일본 유학생들의 학회 활동을 통한 과학문화의 기여 1895~1910」, 『문학과 과학1:자연, 문명, 전쟁, 소명출판』, 2013 참조

라고 불린 이광수·홍명희와 교유하다가, 열아홉 살이던 1908년 일본에서 출판용 기계를 가지고 귀국하여 출판사 ‘신문관’을 설립한다. 이 출판사에서 1908년 조선 최초의 근대 대중잡지 《소년》을 창간했고, 그 잡지에 전통적 정형물을 파괴한 최초의 과도기적 형태의 ‘자유시’ 「해에게서 소년에게」를 발표했다.⁴⁾ 이 시의 주인공은 파괴적이지만 자유롭고 창조적이며 웅대한 기상의 이미지를 지닌 ‘바다-나’이며, 이것들은 “담크고 순진한 소년배”의 이미지와 겹치는 반면, “태산 같은 높은 뒀 집채 같은 바윗돌”과는 대립한다. 여기에서 뒀와 바윗돌은 “육상에서 아무런 힘과 권(權)을 부리던 자”와 통한다. 결국 이 시의 구조는 바다와 육상의 대립이며, 미래 이미지를 가진 소년과 낡은 권세를 지닌 뒀·바윗돌과의 대립이다. 1908년이라는 동아시아 정세를 감안할 때, 일본 유학에서 막 귀국한 청년 최남선에게 이 대립물이 정치적으로 각각 일본과 청나라를 뜻하는 메타포라는 건 자명하다. 이 시에서 바다는 압도적인 힘으로 뒀·바윗돌을 때리고 부수고 무너뜨리는데, 이 바다의 힘에 대한 작가 최남선의 매료는 유길준의 상소문에서 ‘발달하는 지식’에 관한 유길준의 열광과 다른 것이 아니다.

그리고 10년 후인 1917년 최남선과 동경에서 교유한 두 살 아래 이광수는 《매일신보》에 최초의 근대 장편소설 『무정』을 연재하는데, 이 소설의 결말에서 이광수는 국권상실의 시대를 “교육으로 보든지 경제로 보든지, 문학 언론으로 보든지, 모든 문명사상의 보급으로 보든지 대 장족의 진보를 하였으며.....(중략).....우리 땅은 날로 아름다워 간다”⁵⁾고 서술한다. 구한말의 개화파에 비해 이광수의 문명개화론은 상대적으로 정교한 논리에 근거하고 있었으나, 당대를 문명의 진보로 여기는 그 시각은 유길준과 최남선의 시대 진단을 공유하고 있었다고 해야 할 것이다. ‘유교에서 과학으로, 윤리에서 물리로’. 이것은 1910년대 이광수가 문명의 이름으로 희구한 조선 문화의 변혁을 어느 정도 설명해 주는 공식 같은 것이었다.⁶⁾ 문명개화론자 이광수는 식민지 시대를 관통하면서 친일의 논리를 체계화함으로써 친일의 대표적인 이데올로그

4) 류시현, 최남선 평전, 한겨레출판, 2011, 11~47쪽

5) 이광수, 『무정』, 김철 교주, 문학동네, 2003, 719~210쪽

6) 황종연, 「신 없는 자연」, 『문학과 과학1: 자연, 문명, 전쟁』, 소명출판, 2013, 213쪽

가 되었다. 정인보나 김창숙처럼 지지할 만한 자신의 전통을 가지고 있지 않았던 이광수는, 계급투쟁과 공산주의를 증오하고 신문명에 열광하면서도, 서구 민주주의와 평등사상을 부정하고 일본의 도의주의를 긍정하였다. 그는 일본의 도의주의를 독일·이탈리아의 파시즘과 동일시했다. 그는 일본이 약속한 의무교육제도와 징병제도를 문명화의 증표로 여겼다. 식민지 말기가 될 무렵에 이광수는 중일전쟁에서 전사한 일본군이 10만 6000천 명인데 비해 한국인 전사자가 너무 적은 것을 한탄했으며, 일본인으로 살 수 있는 행복만 있으면 한국어가 없어지고 한국 이름이 없어져도 좋다고까지 생각했다.⁷⁾

3. 이데올로기와 근대(현대)문학

국한문혼용체로 쓰인 최초의 체계적 근대서적 『서유견문』을 쓴 유길준과 최초의 근대시를 쓴 최남선과 최초의 한글 근대 장편소설을 쓴 이광수의 글에서 눈에 띄는 공통점은, 자기 사회의 진화를 물리적 현실의 양적 축적 그 자체와 동일한 것으로 인식하고, 그것을 뒷받침해주는 근대적 지식에 전적으로 매몰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이 매몰은 당대의 물리적 현실에 그들의 생각을 전적으로 동일시함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반성적 거리감각을 형성하지 못하게 했으며, 이 물리적 현실의 근거와 궁극적 목표가 무엇인지를 따져 묻지 않게 했다. 그들에게는 문명의 현실로 가시화 된 도구·제도 등이 사회체계의 하부구조 속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여부가 그리 중요한 일이 아니었다.

하나의 사회가 지속적인 체계를 유지하려면 사회의 하부구조, 즉 경제체계를 유지해야 하고 계급구조를 유지해야 한다. 알튀세르에 따르면 한 개인의 진정한 사회적 위치를 오인하게 함으로써 체계에서 자신의 역할을 스스로 승인하고 따르게 하는 데

7) 김인환, 앞의 책, 71~73쪽

에 이데올로기의 기능이 있다. 그럼으로써 주체는 이데올로기의 주체, 즉 사회적 주체가 된다. 군대나 경찰 같이 억압에 의해 사회 유지를 돕는 국가기구들과는 달리 종교, 정당, 신문, 출판, 학교 같은 사회적 장치들은 계급구조와 국가권력의 역할을 상상적으로 구축함으로써, 개인을 인지착오적 사회 현실로 이끄는 국가장치들이다.⁸⁾ 본래 근대사회에서 문학의 역할은 이데올로기가 행하는 인지착오적 기능을 방해하고 차단하며 폭로함으로써, 개인이 사회재생산의 도구가 되는 일을 교란시키는 데에 있다. 그러나 19세기 말 20세기 초 망국의 과정을 겪게 된 한국 상황에서 ‘문학’은 사회계몽의 역할을 떠맡아서 주류 지식담론과 착종되기 일쑤였으며, 그 담론이 한 사회체계가 자기 사회체계를 확장하기 위해 다른 사회체계를 폭력적으로 잡아먹는 영토확장의 과정이자 계급전쟁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는 순간 이데올로기에 복무하는 사회장치의 일부가 되고 말았다. 독립신문과 독립문을 세운 서재필을 비롯한 개화파의 행보나, 3.1독립선언문을 썼지만 친일의 대변자가 된 최남선이나, 2.8독립선언문을 쓰고서도 친일의 이데올로그가 된 이광수의 경우가 그런 사례다. 이 시기 ‘계몽’이라는 말로 표현된 근대(현대)적 세계에 대한 열망은 이들의 경우 식민지 매관 지식과 다른 것이 아니게 되었다. 한국의 경우 근대문학이 지닌 탈이데올로기적 성격을 작가들이 인지하고 작품을 통해 본격적으로 실천하기 시작한 것은 1930년대에 와서이며, 이때부터 지금까지 ‘역사와 계급투쟁’의 문제는 한국 현대문학의 가장 중요한 주제로 자리잡게 되었다.

윤봉길은 19세기말 20세기 초 한국의 대표적 계몽 지식인이었던 최남선에 의해 최초의 근대 잡지 《소년》이 창간되던 해인 1908년에 태어났다. 한글로 쓰인 최초의 근대장편소설 이광수의 《무정》이 출간되었던 1918년에 덕산보통학교에 입학했으나, 이듬해 3.1운동에 자극받아 학교 교육을 식민지 노예교육으로 인식하고 자퇴했다. 최병대(崔秉大) 문하에서 동생 윤성의(尹聖儀)와 한학을 공부하였으며, 1921년 유학자인 매곡 성주록(成周錄)의 서당 오치서숙(烏峙書塾)에 들어가 그의 문하생이 되었다. 오

8) 루이 알튀세르, 재생산에 대하여, 김용권 역, 동문선, 2007, 287~296쪽

치서숙에서 사서삼경 등 중국 고전을 두루 익혔다. 1928년 18세 되던 해에 시집 〈오추〉(鳴推), 〈옥수〉(玉睡), 〈임추〉(壬椎) 등을 발간하였다. 1929년 오치서숙을 졸업, 한학수업을 마쳤다. 청년 시절에는 농민 운동에 관심이 많았다. 19오치서숙을 졸업한 후에는 농촌계몽활동, 농촌부흥운동, 야학 활동, 독서회운동 등을 시작하였다. 1927년 농민독본 3권을 저술하였고, 1928년 부흥원 설립을 기념하는 공연인 우화 「토끼와 여우」의 공연과 월레강연회를 개최하였으며, 〈기사년 일기〉(己巳年 日記)를 지었다. 위친계(爲親契), 월진회, 수암 체육회 등을 조직하였고, 1930년에 “장부가 뜻을 품고 집을 나서면 살아 돌아오지 않는다(장부출가생불환[丈夫出家生不還])”이라는 글귀를 남기고 집을 떠나 중국으로 건너갔다. 1931년 대한민국임시정부 김구를 찾아가 한인 애국단에 가입했으며, 1932년 흥커우 공원에서 열린 일본 천황 생일과 상하이 점령을 축하하는 연회에 폭탄을 투척하였다. 윤봉길은 거사 이틀 전인 1932년 4월 27일 공원을 답사한 직후, 흥커우 숙소인 동방공우(東方公寓)에 돌아와 백범 김구 선생의 요청에 의해 유언을 작성했는데, 이 자리에서 조선청년단에 대한 당부의 시, 김구 선생에 대한 존경의 시, 두 아들에게 남기는 유언 등 4편의 시를 2시간여 만에 썼으며 그것이 남아 있다.⁹⁾

매현윤봉길기념사업회의 노고로 엮고 최근에 완역된 윤봉길의 시문집은 총 5종이며 모두 한시이다. 칠언율시, 칠언절구, 오언율시, 오언절구 등의 형식이 고루 사용되었으며, 그의 길지 않은 인생 이력에 비해 편수가 적지 않은 편이다. 문제는 이렇게 묶인 시들에서 그가 쓴 작품이 아닌 시들이 많은 것으로 보이며, 실제 그의 창작품을 선별해내는 일이 매우 까다롭다는 번역자·해제자들의 견해가 있다는 사실이다.¹⁰⁾ 이런 상황에서는 작품성 평가 이전에 작품의 진위 여부를 우선 가리는 문헌학적 작업이 선행되어야 하리라고 여겨진다.

시문집으로 묶인 한시들의 경우 자연 풍경에 대한 완상, 계절의 운치에 대한 감상, 풍속에 대한 감상, 세상 풍파에서 벗어나 유유자적하는 개인의 심경, 학문 정진의 의

9) <https://ko.wikipedia.org/wiki/윤봉길> 참조

10) 윤봉길, 『매현윤봉길전집: 제1권 시문과 농민운동』, 매현윤봉길전집편찬위원회, 2012, 8~12쪽

지, 덕과 예절에 대한 예찬, 벗과의 사귀, 옛사람에 대한 예찬 등을 담고 있다. 편수는 적지 않으나 전통적 한시의 전형적 방법론과 정서, 내용 등을 담고 있어, 결론적으로 말하면 현대시의 관점에서는 전체적으로 단조로우며, 그 창작의 방법론이나 기저의 지형학이 전혀 달라서, 현대시의 기준으로 이를 평가하는 일은 무의미하다고 판단된다. 시의 화자는 단아한 풍모 속에서 자연과 세상의 풍경을 완상하는 경우가 많은데, 화자가 풍경의 일부이면서도 풍경 전체를 조망하는 듯한 전능한 시점을 지님으로써, 하나의 제한적 시점을 지닌 현대시의 창작론과 많이 다른 지점을 보여주고 있다. 화자는 자기 자신을 시의 대상으로 삼고 있지 않기 때문에, 시의 주체는 산수화의 시점처럼 추상화 되어 있으며, 발화자는 현실세계에 없는 존재인 것처럼 모호하다. 사람이 등장할 때는 주로 산수화의 풍경처럼 관념화 되어 있는 자연과의 연관 속에서 등장하거나 중국 고사성어와 함께 등장하기 때문에, 현대적 의미의 리얼리티를 갖기 어렵다. 특정한 역사적 상황을 지정하여 현실을 묘사한다거나, 자신의 현실 맥락 안에서 발생하는 경험적 에피소드와 그 소회를 직접 발화하는 경우도 거의 없어서 실감을 갖기가 쉽지 않다. 자연과 사람과 고대적 에피소드가 하나의 풍경으로 섞여 들어가면서, 고사성어적 세계와 산수화적 세계가 구분되지 않으며, 삶의 우여곡절을 암시하는 얘기들조차 우의적 수사로 나타나는 윤봉길의 한시들은 인간과 우주가 유연하고 정형적인 리듬 안에 구현되어 있고 질서화 되어 있는 전통적 형이상학의 세계를 보여준다고 요약할 수 있겠다. 화자의 정념이 소거되어 있는 이 세계는 화자 내부의 분열도 없다는 점에서 주체 내부로 침투한 사회의 과잉역압이 드러나지 않으며, 사회라는 것 자체가 직접 나타난다고 하기 어려우므로 당대의 시대의식이었던 계몽의식도 찾아 보기 어려우며, 사회세력 간의 긴장관계를 드러내는 계급의식도 존재하지 않는다.

‘현대시’란 자기 시대가 현재 몇 시인가 라는 질문을 핵심으로 하는 시라고 할 수 있으므로, 시문집으로 묶인 윤봉길의 한시를 어떤 관점으로 보던 간에 현대시로 볼 수 있는 가능성은 없다고 해야 할 것이다. 이미 어린 시절부터 예민한 현실인식을 가지고 있었으며, 청년기 계몽운동에 열심이었던 윤봉길을 감안할 때, 이 시들에서 무

의식의 기미조차 감지되지 않는 화자의 탈사회성은 매우 의외다. 이 시들 중 적지 않은 수의 시가 그의 작품이 아닌 듯하다는 번역자와 해제자의 견해는 이런 관점에서도 일견 수긍이 가는 점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견해는 어디까지나 ‘시’ 일반의 관점이 아니라, ‘현대시’라는 관점에서 보았을 때이다. 1930년대의 시인 이상의 시를 읽으면서, ‘이것도 시인가’라는 항의성 질문을 하는 독자에게, ‘이것은 현대시이다’라고 말하면 수긍을 하는 경우에서 알 수 있듯이, ‘시’라는 단어를 공유함에도 불구하고 근대(현대) 이전의 시와 ‘현대시’를 이루는 자질이나 선행적 지형학은 상당히 다르다고 해야 할 것이다.

이런 점에서 나는 윤봉길의 시를 예술적 가상으로서 지어진 독자적인 문학이라기보다는 현대지성사의 한 정신적 스펙트럼을 드러내는 양상으로서 참조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며, 그 지점에서 보자면 시문집으로 엮인 그의 많은 한시보다도 그가 서거 전에 남긴 몇 편의 시가 더 의미 있다고 생각한다. 이 중 그의 시 한 편을 당대 지성사를 상대적으로 맥락화 하는 ‘현대시’의 한 준거점으로 삼는 독법으로 읽어 보면서 부족한 글을 마무리하고자 한다.

도깨비가 고향을 점령하고 있으면서
자유로운 사람들을 다 불지옥 속으로
밀어넣어 버렸다
남은 것이라고는 단지 재빛의 옛 땅과 히끄므레한 일그러진 뼈다구뿐이다
고향이여. 너의 운명!

기억하거니와 나의 어릴적에
현재의 이 고향은 즐거운 봄 기분으로 가득 차 있었고 자유로운 노래 소리가 넘쳐 흐르고 있었다
지금의 이 고향은 서럽게 신음하는 숨소리가 진동하여 고막을 마비시키고
휘날려 뿌려지는 붉은 피가 재빛의 따에 그득히 흐르고 사람들의
몸과 목에는 다 부자유의 멍에가 씌어져 있고 입과 귀에는 부자유의 봉함이
불혀져 있으니

고향이여! 지난날의 모든 것 자유.
즐거움.

다 어디로 가버렸는가
지금 나는 마귀한테 쫓겨 나와 버렸고
인생의 나그네 길에 오르려 한다

머뭇거리며 길에서 방황하는데
어디로 향해 가나. 오!
어느 곳이 나의 귀착지인가
아무래도 괜찮다
떠돌다 다니다 어느 곳에 밀려 간들
바라기는 하늘 끝이건 바다 귀퉁이건
다만 인류가 동정하는 돌아갈 속이 있기만 하면 된다
꼭 그곳으로 달려간다

보라! 귀착지가 나를 향해 오라고 손짓을 한다
험한 길 막다른 데에
자유의 불꽃이 피어있고
생명의 샘물이 흐르고 있다
그곳이 곧 인류의 귀착지이다

나는 서둘러 이 험한 길에 올라섰다
산을 넘어가고 바다를 건너가고
깊은 골짜기를 뛰어넘고 가시밭을 달려 지나가
나를 향해 오라고 손짓하는 「인류가 귀착」하는 곳으로!

- 「고향을 떠나 유랑하는 사람(流浪離鄉的人)」
: 1930년 3월 6일 고향을 떠나면서 지은 한시¹¹⁾

11) 윤봉길, 『매헌윤봉길전집: 제1권 시문과 농민운동』, 57쪽

고향을 떠나면서 쓴 비장한 시로 알려진 이 시는 세상을 향한 일종의 출정가다. 하나의 작품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이는 추상적이고 모호한 산수화적 세계에서 현실적 리얼리티의 세계로의 전환을 알리는 출정가라고 하겠다. “도깨비”와 “자유로운 사람들” 간의 명백한 선악 대비와 “불지옥”과 “즐거운 봄”이라는 시대적 낙차가 현실 상황을 환기하며 정념을 발생시킨다. 회복해야 할 개인의 고향은 “자유로운 사람들”의 고향이며, “자유는 불꽃이 피어 있고/생명의 샘물이 흐르고 있”는 “인류의 귀착지”이다. 개인의 고향을 민족의 고향으로 인류의 고향으로 확대해나가고 있으며, 회복해야 할 옛 시간은 귀착해야 할 미래의 시간으로 이어진다.

이러한 이상의 확대와 시간의 회복 순환적 전망은, 태초의 시간을 회복함으로써 자유롭고 평등한 미래에 도달한다는 근대 낭만주의적 역사관을 연상하게 한다. 거기에서 진보는 오래된 미래의 회복이며 원초적 순결성을 회복하는 도정이다. 이런 차원에서 삶-역사는 본래 우주적인 것과 연결되어 있었다. 유럽의 낭만주의자들은 정치혁명이 역사의 혁명이며, 이는 자유롭고 평등한 세계 질서를 획득하려는 당대의 시민전쟁과 다른 것이 아니라고 생각했다. 거기에서 정치혁명의 이상은 예술적 가상이 희구하는 세계원칙이나 억압 없는 삶을 향한 존재의 쾌락원칙과 배리되지 않는다. 그들이 좇았던 ‘계몽주의(enlightenment)’란 본래 그런 것이었다. 이런 점에서는 엄격한 지성주의자인 동시에 세계시민주의자였던 칸트도 낭만주의자였다고 해야 할 것이다. 낭만주의는 작가가 추구하는 이상과 작가가 처한 현실과의 낙차를 통해 그 이상의 순결성과 가상성의 밀도를 강화한다. 이 낙차 속에서 얼핏 드러나는 가상으로서의 이상적 예술 형상은 순간적으로 명멸하며 아름다운 아우라를 발산한다. 그것이 그들의 유토 피아였다. 유럽의 낭만주의는 관념의 유희가 아니라, 프랑스혁명이라는 시민전쟁을 겪으며 목격한 현실의 지옥 속에서 본격적으로 발생한 생생한 사회 운동이자 치열한 지적 운동이기도 했다. 그것은 그들의 역사에서 발생한 그들 방식의 예술적 리얼리즘의 한 방식이었다. 그 가상성의 낙차를 통해 그들은 ‘현실’의 참혹함을 더 잘 볼 수 있었다.¹²⁾

청년 윤봉길에게 지옥의 현실은 “자유로운 노래 소리가 넘쳐 흐르고 있었”던 “즐거

운 봄”을 떠올리게 하고, 그 봄은 인류적 이상으로 고양된다. 개인의 고향이 한 역사 공동체의 고향으로, 나아가 인류의 고향으로 겹쳐지고 확장되면서, 개인의 특수성은 보편적 인류로 지양된다. 이것은 동시에 문학의 보편성이 확대되어 나가는 과정이며, 이 이상의 간절함만큼이나 현실의 지옥은 그 낙차를 통해 더 분명하게 인식되고 실감된다. 가장 좋은 의미에서 계몽성이 문학의 전망 안에서 겹치는 형상은 이런 것일지 모른다. 그러나 윤봉길의 이 시에서 이러한 계몽적 전망은 현실의 지옥을 대면하고 계몽적 가상이 실제 역사 안에서 폭파되고 있음을 증언하는 불가능성의 목격담으로 발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제국주의 현실을 허위적 역사 낙관주의로 포장하고 있는 최남선의 「해에게서 소년에게」나 억압과 종속의 노예적 역사현실을 진보의 낙원으로 묘사하고 있는 이광수의 거짓 계몽주의와는 다르다고 해야 할 것이다. 당대 주류 지식문화의 수혜자였으며 주인공이었던 최남선이나 이광수가, 그들 자신의 계몽적 전망을 제국주의가 유포한 미래전망과 동일시함으로써 과시증적 이데올로기가 되었던 것과는 달리, 윤봉길은 그 자신이 무산계급의 위치에 있었던 피지배자로서의 현실로 인해 애국계몽 담론을 지배 이데올로기와 동일시하지 않을 수 있었다. 그 역시 문명개화가 역사 발전에 기여한다는 점을 인식하면서 계몽운동을 펼치던 운동가였으나, 그는 그 자신이 편입될 수 없었던 주류 세계와의 낙차로 인해 계몽의 이상이 역사의 현실로 나타날 때 갖게 되는 반동성과 낙차를 분명히 인식할 수 있었다.

한학을 공부한 윤봉길이 근대 사회의 구조에 대한 사회과학적 인식을 체계적으로 가질 수는 없었지만, 적어도 그는 근대 이전의 대의명분이 붕괴된 세계가 자신의 세계라는 사실을 큰 낙차 속에서 실감할 수 있었다. 그는 구한말의 유길준이나 서재필처럼 서양사회를 직접 경험해 보거나, 최남선이나 이광수처럼 일본유학을 다녀오지도 않아서, 근대 문명의 물리적 도구·제도들의 위력에 상대적 실감을 가질 수는 없었지만, 전통에 기대지 못함으로써 전통을 부정한 이들 계몽주의자들이 자기 사회를 전면 부정하는 논리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다. 그가 지은 한시가 여전히 공맹의 도와 요순

12) H.R.아우스, 『도전으로서의 문학사』, 장영태 역, 문학과지성사, 1998, 17~67쪽.

의 덕을 논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는 전통주의자다. 그러나 전통을 부정한 계몽주의자들이 계몽의 이름으로 강자의 노예도덕을 자기 인식으로 이데올로기화 했던 것과는 달리, 그는 자기 시대를 전통적 도와 덕이 추락한 시대로 이해함으로써 자기 시대를 만인전쟁의 시대로 인식할 수 있었으며, 지배담론으로부터 그 자신을 분리하여 출정가를 짓는 혁명가 될 수 있었다. 예술적 가상을 만들어 낼 경제적 여유와 마음의 여유가 허락되지 않았던 이 절박한 젊은이는 지배세력과 연결된 허위의식으로 가상의 미래를 짓는 대신, 폭탄을 들고 무장한 상하이 일본 관동군 전체와 맞섰다. 그는 이론이 아니라, 몸의 실감으로 근대 사회란 한 체계가 자기 체계의 확장을 위해 폭력적으로 다른 체계를 노예화하는 제국주의의 확장 과정이라는 것을 알았으며, 진정한 계몽이란 이론과 예술적 가상이 아니라 온몸으로 부조리한 역사의 현장을 폭파하는 일이라고 생각했다. 현대시가 자신의 시대가 무엇인가를 질문하는 시라고 한다면, 그의 의거는 그 자체로 현대시다.

제4주제 토론

현대시의 눈으로 본 윤봉길 시의 성격

이형권 (충남대학교)

이 논문은 매헌 윤봉길의 삶과 시에 대한 현대적 의미를 고찰한 것이다. 부제에 드러나듯이, 이 논문은 매헌의 삶과 시를 ‘구한말의 지성사’ 차원에서 그 독특한 위상을 정리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매헌의 개화 사상은 구한말 개화기의 유길준, 이광수, 최남선 등 일본 유학파들이 보여주었던 서구추수적인 개화 담론과 구별된다는 것이었다. 매헌은 철저히 조선적인 현실을 바탕으로 개화와 계몽을 추구했다는 점에서 당시의 일반적인 개화론자들과 다르다고 보았다. 이 논문은 이러한 주장을 위한 논지 전개이나 논거 제시 등의 큰 흐름에서 충분한 설득력 있게 제시하고 있다. 그래서 어떤 쟁점이나 이견을 발견할 만한 글은 아니라고 판단된다. 다만 몇 가지 세부적인 부분에서 궁금한 점이 있어서 이에 대한 질문으로 토론을 대신하고자 한다.

첫째, “국한문혼용체로 쓰인 최초의 체계적 근대서적 『서유견문』을 쓴 유길준과 최초의 근대시를 쓴 최남선과 최초의 한글 근대 장편소설을 쓴 이광수의 글에서 눈에 띄는 공통점은, 자기 사회의 진화를 물리적 현실의 양적 축적 그 자체와 동일한 것으로 인식하고, 그것을 뒷받침해주는 근대적 지식에 전적으로 매몰되어 있다는 사실이다.”(5쪽)에 관한 질문입니다. 여기서 유길준, 이광수, 최남선 등을 모두 친일사상이나 제국주의 논리에 기대고 있다는 주장은 일견 수긍이 가지만, 그렇게 성급하게 획일화하기에는 그들 사이의 미세한 차별점이 있지 않았나 싶다. 즉 최남선의 경우 일제말기 친일의 과오를 괄호 처리할 경우 그 이전에 시조부흥운동이나 불함문화론과 같은 민족주의적 개화를 추구했다는 점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지 궁금하다.

둘째, 매헌의 “시문집으로 묶인 한시들의 경우 자연 풍경에 대한 완상, 계절의 운치에 대한 감상, 풍속에 대한 감상, 세상 풍파에서 벗어나 유유자적하는 개인의 심경, 학문 정진의 의지, 덕과 예절에 대한 예찬, 벗과의 사귄, 옛사람에 대한 예찬 등을 담고 있다”고 했는데, 혹시 개화사상이나 항일사상을 드러내고 있는 작품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셋째, “‘현대시’란 자기 시대가 현재 몇 시인가 라는 질문을 핵심으로 하는 시라고 할 수 있으므로, 시문집으로 묶인 윤봉길의 한시를 어떤 관점으로 보던 간에 현대시로 볼 수 있는 가능성은 없다고 해야 할 것이다.”라는 부분에서 “현대시”의 규정에 대해 묻고 싶습니다. 현대시는 보통 시가 예술로서의 자족성을 획득한 것을 중요한 특징으로 삼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현대시는 시가 예술로서의 독립성을 획득하게 된 이후의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 시대가 몇 시인가라는 질문을 핵심으로 하는 시”라는 정의는, 리얼리즘 시학 차원에서 현실 문제에 대한 서정적 반응이라는 의미로 받아들일 경우 일정 부분 타당성을 확보할 수는 있기는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전근대적인 시를 지시한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들 우문에 대한 현답을 부탁드립니다.

인쇄일	2018년 11월 22일
발행일	2018년 11월 23일
발행인	황길수
총괄	이성섭 · 박행병
진행	임미선 · 박재선
발행처	(사)매헌윤봉길의사기념사업회 매헌윤봉길의사기념관 서울 서초구 매헌로 99 http://www.yunbonggil.or.kr/

이 책의 저작권은 매헌윤봉길의사기념관에 있습니다.